

C2018-61 | 2018. 12.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 등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연구 담당

송미령 | 선임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5장 집필

정도채 | 부연구위원 | 제3,4장 집필

이정혜 | 초청연구위원 | 제2장 집필

김경인 | 초청연구위원 | 제2장 집필

정책연구보고 C2018-61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 등 연구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8. 12.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주)프리비(061-332-1492)

ISBN | 979-11-6149-000-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귀중

본 보고서를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 등 연구” 과제용역의 최종보고서
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정도채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정해 (초청연구원)

참여연구원: 김경인 (초청연구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형 사회적 농업의 개념과 유형 등을 정립하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추진 전략 및 과제를 도출하는 것임. 아직까지 한국의 사회적 농업은 이론적 논의나 현실의 실천에 있어 초기 단계인 탓에 우리 맥락에 적합한 사회적 농업의 개념이나 유형, 정책적 지원의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임. 따라서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이에 대한 초보적 방향 정립을 도모하는 것이 이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범위로 구성함. 첫째, 해외 사회적 농업 실태 및 정책 동향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둘째,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 개발, 셋째,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 제시 등임. 특히 중장기 추진 전략에 있어서 ‘사회적 농업법’ 제정(안) 초안 마련 및 관련 법제 제정·정비 방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자 함.

먼저 우리보다 앞서간 유럽과 일본의 사회적 농업 실천 경험을 살펴보았음. 유럽의 경우는 1970년대부터 민간 부문을 시작으로 사회적 농업이 시작됨. 유럽의 사회적 농업 실천은 목적에 따라 돌봄, 고용,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의 형태로는 제3섹터, 민간 농장, 공공기관 등으로 다양함. 이탈리아는 2015년 사회적 농업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네덜란드의 돌봄농장 역시 돌봄 서비스 관련 법·제도의 틀 안에서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지급받고 있음. 벨기에는 중앙정부가 사회적 농업 실천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함.

이에 비해 일본의 사회적 농업은 2000년대 농업 분야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실천이 확산되었으며, 사회복지법인, NPO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인 농가, 특례자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음. 장애인 고용에서 출발해 노인, 빈곤계층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장되었으며, 사회복지법인, NPO법인 등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형태임. 전체 사회복지법인의 34%가 농업 활동에 참여할 만큼 활성화되었으며, 정부의 헬로워크라고 불리는 일자리 지원센터와 같은 공공기관 및 농협 등이 개입하고 있음. 특히 중앙정부가 2009년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 이외의 회사나 법인이 농지를 임차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시설, 교육훈련, 인건비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음. 유럽과 일본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농업은 보건복지, 고용 제도 안에서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농업 실천의 확산을 위한 법·제도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농업 실천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 농업의 실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이 필요함.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의 자발적, 혁신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대상 9개소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9개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지역사회 협력 연결망, 사회적 농업을 실천할 때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은 대부분 농촌 지역사회 내부로부터 동원해야 하므로, 사회적 농장을 지지하고 관여하는 지역사회 내 연결망을 형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음. 둘째, 사회적 농업 실천의 단위는 직접 농업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농업경영체(농가, 농업법인, 또는 법적으로는 농업법인이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사업 시행자들을 선정하였는데, 이 원칙은 사회적 농업이라는 실천의 성격과 실천 주체의 정체성 측면에서 확고하게 견지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사회적 농업의 실천 유형은 현재로서는 크게 교육, 돌봄, 일자리 제공 등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임실이나 해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밖에 다른 유형의 사회적 농업 실천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음. 기존의 실천 유형에만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농업 실천도 출현할 수 있게 관련 정책이나 법제에서 충분한 개방성과 유연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넷째,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의 역량 교육이나 돌봄 측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skill)을 축적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원의 내용 역시 현실의 상황에 맞추어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음. 끝으로 농촌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을 지역사회에 착근시키려면 지속적인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요구됨.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안) 구상을 위해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대상의 모니터링 결과에 바탕을 두어 주체와 활동 내용 등의 차이를 중심으로 5가지의 유형으로 잠정 구분할 수 있음. 이러한 유형화의 의의는 앞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후발 주자들이 모델로 삼아 사회적 농업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상정한 것임.

유형 I: 개별 농업 경영체의 돌봄 서비스 제공(보은, 임실)

유형 II: 지역사회 기반 조직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홍성, 완주, 무주)

유형 III: 개별 경영체 농업 및 관련 교육서비스 제공과 농촌 정착 지원(청송, 해남)

유형 IV: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농업 교육서비스 제공 및 농촌 정착 지원(제천)

유형 V: 개별 경영체의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제공(영광)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함. 첫째, 사회적 농업 서비스 참여자의 지속적 참여를 위한 유인 제공, 둘째, 사회적 농장의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셋째,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 개선, 넷째, 사회적 농업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본 지침 만들기, 다섯째, 사회적 농업 서비스에 관한 정규적 보상 기제 모색, 여섯째,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인식 유지, 일곱째, 사회적 농업 실천 촉진자 육성 등임. 끝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률을 제정할 필요를 제안함.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은 총 5개 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개 조문을 제안함.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3. 사회적 농업 관련 선행연구의 수준	4
4.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8

제2장 해외 사회적 농업 정책 및 실천 사례

1. 유럽의 사회적 농업 정책의 전개와 특징	11
2. 일본의 사회적 농업 현황	15
3. 시사점과 과제	24

제3장 사회적 농업 실천 현황: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1.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대상 모니터링 개요	27
2.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30
3.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대상 모니터링 결과 요약 및 시사점	46

제4장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 유형 및 정책 수요

1.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 구상	61
2. 사회적 농업 실천 유형별 정책 수요	66

제5장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

1.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	73
2. 사회적 농업법 제정(안) 초안 및 관련 법제 정비 방안	79

참고문헌 95

참고 1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정리 97

참고 2 사회적 농업 육성법 초안 전문 167

표 차례

제1장

<표 1-1>	선행연구의 ‘사회적 농업’ 개념 서술	4
---------	----------------------------	---

제2장

<표 2-1>	외국의 사회적 농업 지원 정책	14
<표 2-2>	일본의 농업 분야 장애인 고용 현황 요약	21
<표 2-3>	일본의 사회적 농업 지원 정책 요약	22

제3장

<표 3-1>	2018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신청 현황	28
<표 3-2>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 현황과 주요 사업 시행 내용	29
<표 3-3>	제천시 농촌공동체연구소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내용 및 실적	31
<표 3-4>	보은군 성원농장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내용 및 실적	32
<표 3-5>	홍성군 행복농장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내용 및 실적	33
<표 3-6>	완주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내용 및 실적	36
<표 3-7>	임실군 선거웰빙푸드영농조합법인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내용 및 실적 ..	38
<표 3-8>	무주군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39
<표 3-9>	영광군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내용 및 실적 ..	42
<표 3-10>	해남군 야호영농조합법인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내용 및 실적	44
<표 3-11>	청송군 해뜨는농장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내용 및 실적	45
<표 3-12>	사회적 농업을 지지하는 지역사회 내 사회적 인프라 현황	48

제4장

<표 4-1>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대상지 구분(안)	62
<표 4-2>	개별 경영체의 돌봄 서비스 제공 사회적 농업 실천 특성(보은, 임실) ..	63
<표 4-3>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돌봄 서비스 제공 사회적 농업 실천 특성(홍성, 완주, 무주) ..	63
<표 4-4>	개별 경영체의 농업 교육 서비스 제공 사회적 농업 실천 특성(청송, 해남) ..	64
<표 4-5>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농업 교육 서비스 제공 사회적 농업 실천 특성(제천) ..	65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 흐름도	10
-----------------------	----

제2장

<그림 2-1> 유럽의 사회적 농업 실천 유형 분류	12
------------------------------------	----

제3장

<그림 3-1> 홍성군 지역사회 연결망과 사회적 농업 활동 주체	34
---	----

<그림 3-2> 홍성 지역사회 연결망의 형태	55
--------------------------------	----

제5장

<그림 5-1> 사회적 농업 활성화 정책의 비전과 목표	75
--------------------------------------	----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비해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사회적 농업의 의미를 정립하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 자체가 빠르게 확산되었으나 아직까지는 학문이나 정책 영역에서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견해와 관점으로 사회적 농업을 인식함.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농업 활동’으로서 사회적 농업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의미 있으며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양하려는 모든 형태의 농업을 사회적 농업으로서 개념화하기는 어려움.
 - 사회적 농업에 대한 견해는 크게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김정섭 외, 2017).
 -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관점에서 사회적 농업을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농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짐.
 - * 사회적 농업의 개념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사회적 농업이 농촌지역의 사회 통합과 사회 혁신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사회적 농업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공공 부문의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봄.
 - * 사회적 농업의 개념 범위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회적 농업으로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과 민간 부문의 서비스 시장 형성을 강조함.

2 서론

- 특히 아직은 우리 사회에 사회적 농업의 논의나 실천이 모두 초기적 단계인 탓에, 사회적 농업의 개념 정립 및 범위 등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음 (김정섭 외, 2017).
 - 사회적 농업의 실천 영역을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농업 활동을 매개로 노동통합, 돌봄,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만을 사회적 농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주체의 범위를 농가로만 한정지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사단법인, 정부 기관, 농업 법인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사회적 농업을 농업정책 또는 농촌정책으로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정부의 고용, 교육, 사회복지 정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적 농업으로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어느 수준에서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현재 실천되고 있는 사회적 농업의 사례들을 조사하여 한국의 맥락에서 사회적 농업의 의의를 정립하고,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 개발 및 정책 추진 로드맵 등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중장기 정책 추진 전략을 제시할 필요**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들이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활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 등에 힘입어 전국 여러 곳에서 실천 사례가 목격되고 있음 (김정섭 외, 2017).
 -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될 때, 사회적 협동조합 제도를 도입하였고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형식의 조직이 공공 부문의 복지 서비스 전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됨.
 - 자활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농업을 수단 삼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례는 점차 늘고 있으며, 청년 구직자에게 농업을 가르쳐 자영농으로 농촌에 정착하게 돕는 취지의 직업교육훈련농장도 생겨남.
 -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 사회복지기관 법인에서도 농업 활동을 매개로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례의 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판단됨.

- 하지만, 국내 사회적 농업 실천의 양적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며, 농촌지역의 사회 서비스 수요와 사회적 농업이 실천될 수 있는 여건과 제도적 환경에 대한 검토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물론 이에 대한 조사나 검토가 이 연구에서 면밀하게 다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겠으나 부분적으로라도 살펴봄으로써 향후 연구와 정책 추진의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건복지, 고용, 교육 부문의 제도 및 정책 사업과 사회적 농업의 접점을 찾는다면, 고령화 및 과소화 등으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형 사회적 농업의 개념과 유형 등을 정립하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추진 전략 및 과제를 도출하는 것임.
- 아지까지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농업은 이론적 논의나 현실의 실천에 있어 지극히 초기 단계인 탓에 우리 사회의 맥락에 적합한 사회적 농업의 개념이나 유형, 정책적 지원의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충분치 못함. 따라서 사회적 농업의 시범사업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이에 대한 초보적 방향 정립을 도모하는 것이 이 연구의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음. 특히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 정책 추진 로드맵 등을 구축하여, 사회적 농업의 발전적 확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둬.
- 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국내외 사회적 농업 실천 현황 및 정책 동향 등을 파악하여, 한국에서 실천되는 혹은 실천될 사회적 농업의 주요 목적, 실천 주체, 수혜자, 실천 내용, 정책 지원 및 제도화 방향 등을 제시함.
 - 둘째,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참여 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를 확대하여, 사회적 농업의 실천 주체 형성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농업의 확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관련 법제 및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함.

4 서론

- 셋째,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 구상, 정책 추진 로드맵 방향 제시, ‘사회적 농업 법’ 제정(안) 초안 마련 등 사회적 농업의 발전적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실행·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함.

3. 사회적 농업 관련 선행연구의 수준

□ 사회적 농업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는 이탈리아의 도시에서 활발했던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이 농촌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탈리아 농촌에서 농축산업에 기반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을 두고 사회적 농업으로 지칭하기 시작함.
 - 사회적 농업의 개념은 현실적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양하게 활용되며, 공통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농업 활동’의 내용을 포함함. 이때의 사회적 농업의 목적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경험하는 계층을 통합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음(김정섭 외, 2017).

<표 1-1> 선행연구의 ‘사회적 농업’ 개념 서술

구분	내용
Iacovo (2009: 11)	* 급여를 받는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가령, 지적신체적 장애인, 재소자, 약물중독자, 소수자, 이주민 등)의 통합을 지향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 교육, 돌봄을 촉진하거나,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한 집단에 대해 농촌 지역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농업 실천
Iacovo & O'Connor (2009)	* 사회적 농업은 다기능 농업과 지역사회-기반 사회보장 돌봄이라는 두 개념에 기초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농촌의 자조연결망(self-help network)을 반영, 지역(local)의 복지 체계에 속한 비공식적 사회연결망과 농업 자원에 기초한 서비스를 결합
Hassink (2009: 21)	* 다기능 농업과 지역사회-기반(community-based) 사회적/건강 돌봄이라는 두 개념 안에서 시도되는 혁신적인 접근방법 * 농촌지역에서 사회 서비스를 촉진하려고(또는 만들어내려고) 동식물 모두를 포함해 농업 자원을 활용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 * 예: 사회 통합(social inclusion)에 기여하는 재활, 치료, 보호작업장, 평생교육 등의 서비스
Fazzi (2011: 123)	* 돌봄 및 사회-재활 통합 *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및 노동 통합(즉, 고용) * 특별한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 대한 교육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2)	* 장애인이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 및 일반 대중(public)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촉진하려고 적절한 환경을 만드는 데 농업자원(동물 및 식물)을 활용하는 일련의 실천 * 특별한 요구(needs)를 지닌 특정한 사람들이 자신의 발전과 웰빙 증진을 위해 일상적인 농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농업 실천에 기반해야 함

(계속)

구분	내용
Chovanec, Hudcová, & Moudrý (2015: 6)	* 사회적 농업은 광범위한 활동들로 구성되지만,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공통 요소를 지님. - 영농활동 또는 농장과 긴밀하게 연계된 활동 - 일시적으로 또는 항구적으로 특수한 요구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활동 * 사회적 농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특수한 요구를 지닌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통합 - 전문적인 사회적 돌봄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이라는 관점의 재활 및 치료, 취업 준비 - 농업활동, 농촌 문화, 경관 관리 및 농촌의 지속가능성 등에 관해 더 나은 지식 형성에 기여하는 교육 등의 활동
Assouline (2015)	*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초대해 사회통합, 노동통합, 치료적 동반을 목적으로 농업 생산물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
Crowley, O'Sullivan, & O'Keefe (2017: 7)	* 장애, 질병, 연령, 중독, 범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의 위험(risk)에 놓인 소수의 사람들에게 건강, 사회, 교육, 직업 등의 지원을 제공하려고 작동 중인 농장에서 경관이나 영농활동 등을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함. 이때 가축, 원예, 작물, 농기계, 숲 등과 결부된 영농 관련 활동 프로그램을 구조화하고, 촉진하며, 감독함.

○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을 통합하는 농업 활동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세 부류의 사회적 농업 실천 유형을 관찰할 수 있음.

-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농장에서 고용하는 활동
-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농업에 관심이 있거나 농업·농촌에서 주거, 직업 훈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

○ 이러한 실천 유형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복합적 양태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이것이 사회적 농업의 유형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움.

□ 사회적 농업의 실태 및 정책 동향에 대한 연구

○ 유럽연합은 사회적 농업의 새로운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으로 ‘SoFar’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함.

- 7개 국가(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슬로베니아,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국가별 사회적 농업의 발전 과정과 유형을 연구하여 유럽에서의 사회적 농업의 의의와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함.
- 연구는 2006년 5월부터 30개월 동안 수행하였으며,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는 Iacovo & O'Connor(2009)에 수록됨.
- 유럽에서 실천되는 사회적 농업의 유형을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함.
 - 돌봄, 고용, 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회적 농업이 실천되고 있으며,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나 단체가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됨.

6 서론

-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적·신체적 장애인, 장기 실업자, 이주민 등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농업 활동에 고용하거나 직업 연수생으로 받아들여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의 일부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특별 계약을 맺거나 세제 혜택을 받음.
 -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장 일상, 건강한 먹거리, 자연 등을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
 - 사회적 농업의 유형을 실천 조직의 구성원 특성에 따라 가족 기반, 지역사회 기반, 전문가 기반으로 구분하고 실천 조직의 형태는 제3섹터 조직, 민간 농장, 공공 기관으로 나누는 것으로 조사됨.
- 김정섭 외(2017)는 국내에서 수행된 최초의 사회적 농업 관련 연구인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에서 외국의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와 관련 정책 동향을 검토하고, 한국 농촌에서 전개되는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이 지니는 의의를 정리하고 사회적 농업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함.
- Q-방법을 실시하여 사회적 농업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3개 유형으로 분류함.
 - 의견 그룹 1은 사회적 농업을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농업으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음.
 - 의견 그룹 2는 사회적 농업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며, 사회적 농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공공 부문의 대가 지불을 강조하는 것으로 드러남.
 - 의견 그룹 3은 사회적 농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과 민간 부문의 서비스 시장 형성을 강조함.
 - 외국의 사회적 농업 실천 및 정책 사례로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4개국을 살펴보았으며, 이탈리아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요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이고 사회적 협동조합과 관련한 법·제도를 통해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네덜란드는 사회적 농장을 돌봄 기관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여 국가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농장에 대가를 지급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함.
 - 국내 사례는 5개를 조사하였으며, 발달장애 어린이와 청소년을 돌보는 “꿈이자라는뜰”, 만성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을 돌보고 이들의 재활에 힘쓰는 “행복농장”, 청년 농민을 육성하는 “젊은협업농장”, 농업을 활용하여 농촌 노인의 복지 실현에 힘쓰는 조직인 “여민동락공동체”, 농업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 및 자립을 추구하는 복지기관인 “교남어유지동산”을 분석함.

- 국내외 경험과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농업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통합하는 데 기여하는 농업 실천’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사회 통합’, ‘사회 혁신’,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 농업의 특징을 설명하는 주요 열쇳말로 요약함.
- 노동통합, 돌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았으며, 사회적 농업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첫째, 사회적 농업 정책의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이미 시행되는 관련 정책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한국의 현실에서는 여러 주체들이 협력하는 협동조합 방식을 사회적 농업 주체로 육성하는 전략이 적실함.
 - 셋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을 공공 부문에서 체계화하려면 보건 복지 분야의 여러 제도와 연계, 조정, 통합 등의 시도가 필요함.
 - 넷째, 실천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 정비의 완급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자격 제도나 규제를 만들어서 실효 없는 제도로 전략해서는 안 됨.

□ 국내외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에 비추어,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주체들의 실천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 외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농업 실천이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9개소의 경우 핵심 프로그램, 사회적 농업 주체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 각각의 사회적 농업 실천 경로에 대한 분석과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4.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 해외 사회적 농업 실태 및 정책 동향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유럽, 일본 등 외국의 사회적 농업 실태 및 정책 동향에 대하여 검토함.
 - 사회적 농업의 확산 배경 및 발전 경로에 대한 소개
 - 사회적 농업 관련 법 제정 현황 및 정책 사업의 추진 동향 파악
 - 특히 그간 사회적 농업이 유럽 중심으로 소개된 것에서 나아가 유럽과는 다소 다른 맥락에서 추진되는 일본의 농복연계 프로그램과 사회적 농업의 실천 사례 등을 살펴보는데 집중

- 해외의 사회적 농업 실천 현황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하여 한국의 맥락에서 사회적 농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중앙정부 수준에서 접근해야 할 법제 정비, 지원 정책
 - 지역사회 수준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 지역사회 복지 부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 문제 등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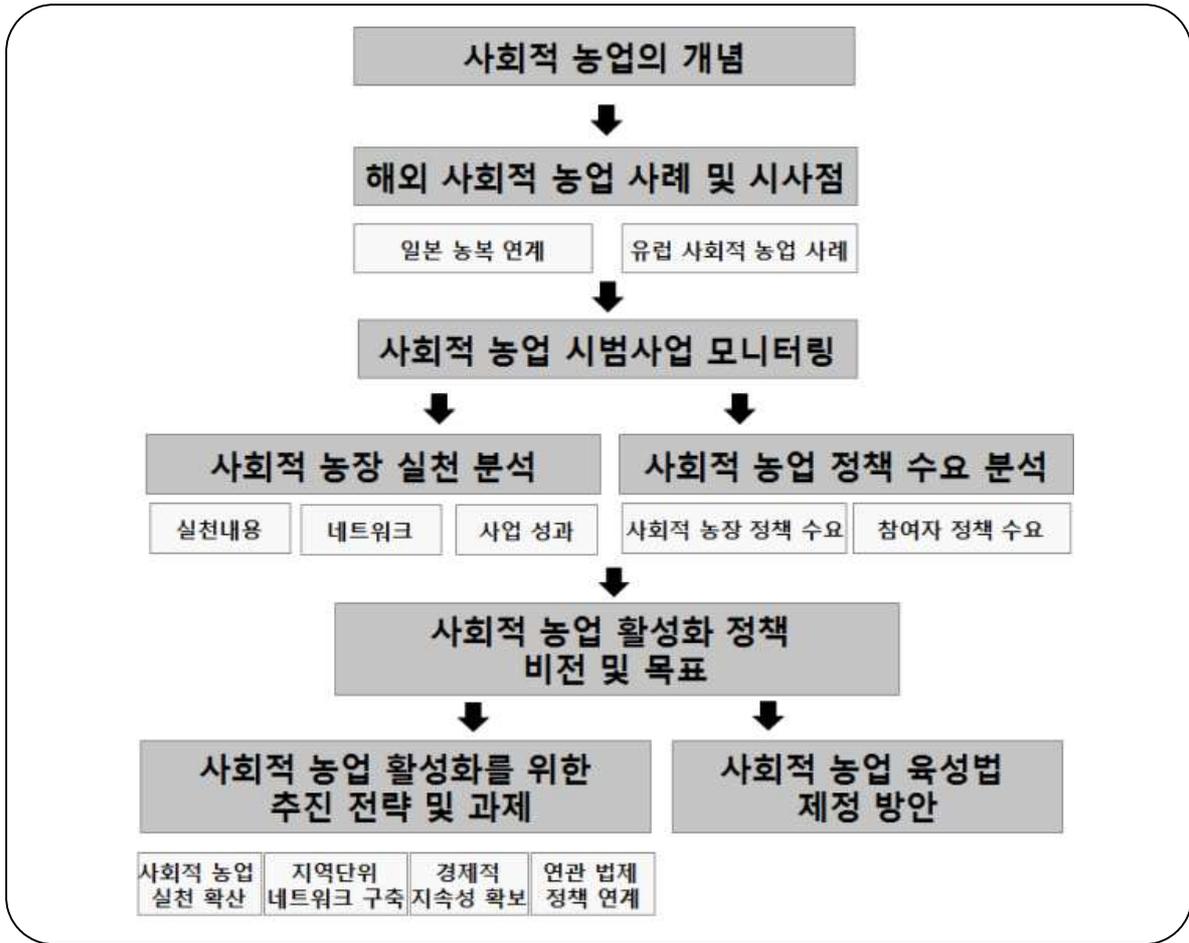
- 한국에서 실천되는 사회적 농업의 주요 목적, 실천 주체, 수혜자, 주요 활동 내용, 성과 등을 관찰함.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대상의 현장 모니터링 및 참여 관찰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대상의 사업 참여 목적과 활동 내용, 주체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실천의 성과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 모니터링 참여 전문가의 시범사업 대상 농장에 대한 현장 컨설팅 병행
 - * 사회적 농업 협의체 교류 활동 수시 개최 등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대상의 특징과 정책 수요 발굴
 - * 정책 수요는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대상 농장을 운영하는 공급 주체 입장에서 의 수요와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자 내지 수요자(장애인, 미취업자, 교육훈련 수요자 등)의 입장으로 구분

-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 관찰 내용 중심으로 핵심 구성 요소를 찾아 유형화함으로써 한국형 사회적 농업의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확장 가능성을 검토함.
 - 사회적 농업의 주체, 활동 내용, 서비스 대상 등 구성 요소 도출
 - 구성 요소의 특성별로 사회적 농업의 유형화
 - 유형별 특성 분석
 - * 사회적 농업 실천 지역의 협력 연결망 형성 특성 분석 등
 -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 및 관련 이해 당사자(서비스 수혜자 및 보호자, 지역사회 관련 조직 등) 입장에서의 정책 수요 도출

□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 제시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정책 추진 로드맵 제시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정책의 비전, 목표, 수단 등 제시
 - 한국형 사회적 농업의 목표 모델을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추진 전략 도출
 - 추진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실행·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전략별 세부 과제 도출
- 한국에서 실천되어야 할 사회적 농업의 주요 목적, 실천 주체, 수혜자, 내용, 정책 지원, 제도화 수준 등 확장과 연계 방안을 제시
 - 사회적 농업 실천 확산
 -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 실천 주체의 경제적 지속성 확보
 - 정책 프로그램과 연계
 - * 돌봄: 문재인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 구상과 연계
 - * 교육: 귀농귀촌 정책과 사회적 농업 정책의 연계
 - * 고용: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 자활 정책, 일자리 정책 등과 연계
 - * 기타 도시농업, 로컬푸드 등 사회적 농업과 연관 가능성이 높은 농정 분야 등
- ‘사회적 농업법’ 제정(안) 초안 마련 및 관련 법제 제정·정비 방안 제시
 - 법률 제정 목적, 사회적 농업의 정의 및 범위, 지원 정책의 내용, 정부 및 실천 주체의 역할과 책임 등을 명시한 법률 제정(안) 초안 작성
 -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사회적 농업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제의 개정 사항 검토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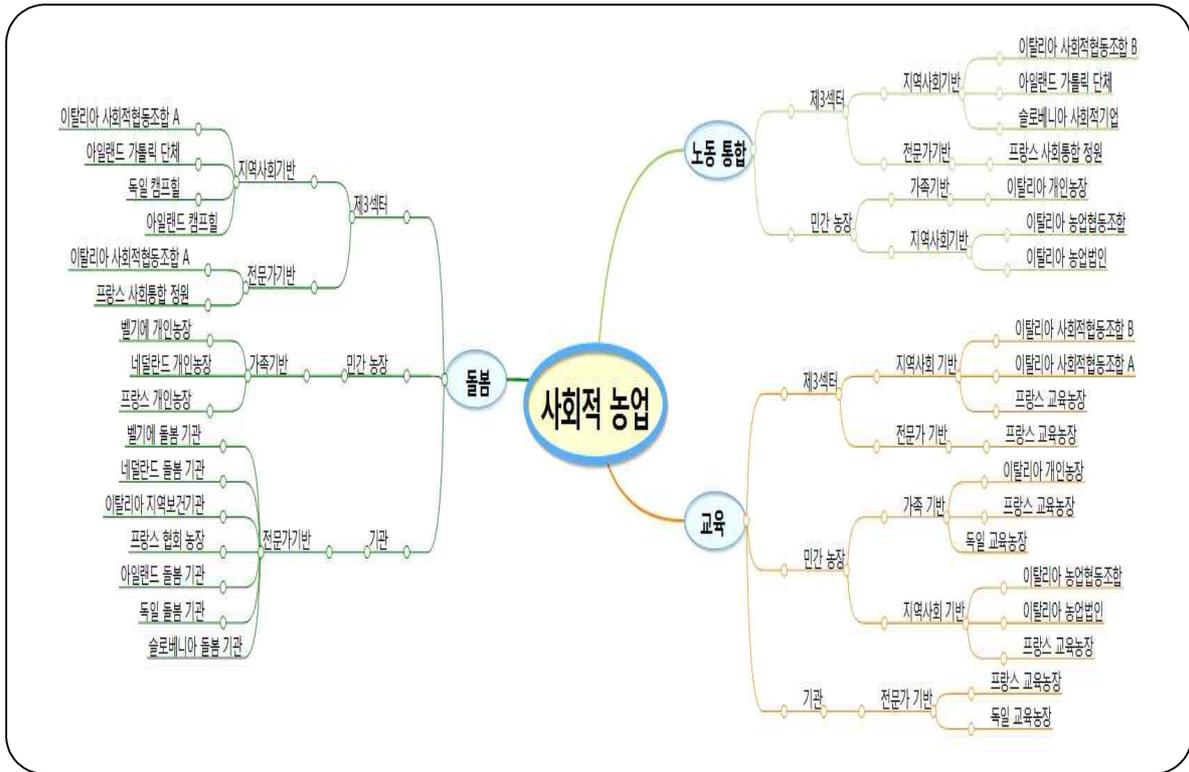
해외 사회적 농업 정책 및 실천 사례

1. 유럽의 사회적 농업 정책의 전개와 특징

- 사회적 농업이 이미 활성화된 유럽 국가들(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의 경험을 한국의 사회적 농업 정책 방향 등을 정립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유럽에서는 1970년대부터 민간 주도로 사회적 농업이 시작됐고, 여기에 정부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활성화 단계를 맞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음. 여기에 더해 농민뿐 아니라 원예치료사·의사 등이 함께 참여하면서 발달장애인·약물중독자·정신질환자 등이 농업활동을 통해 치료와 돌봄, 일자리를 제공받고 있다고 함. 정부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각각 제공하되, 농장에는 그러한 활동에 따른 수익감소를 보상하고 있는 형태임(송미령, 2018).
- 유럽에서는 국가별 문화, 사회 구조, 정책 추진 체계, 지역사회 필요의 특수성 등에 따라 다양한 발전 경로로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되었으며, 실천 주체, 수혜자, 내용, 정책 지원, 제도화 수준 등이 나라마다 다름.
 -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돌봄 농업(care farming)’, ‘녹색 돌봄(green care)’,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등 사회적 농업은 유럽 국가들마다 다양한 용어로 불리며 목적, 실천 조직의 형태, 운영 주체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실천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12 해외 사회적 농업 정책 및 실천 사례

<그림 2-1> 유럽의 사회적 농업 실천 유형 분류



자료: 이정해(2017: 1)

- 유럽의 사회적 농업 실천은 목적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Iacovo & O' Connor, 2009).
 -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나 단체가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되며(Iacovo & O' Connor, 2009: 35), 국가에서 지정한 돌봄 서비스 대상자나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농장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돌보는 활동에 참여함.
 -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나 단체는 고용주가 되며, 장애인, 장기 실업자, 이주민 등 고용 여건이 불리한 사람들을 농업 활동에 고용하거나 직업 연수생으로 받아들임.
 -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나 단체는 교육 기관이 되며,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장 일상, 건강한 먹거리, 자연 등을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
-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의 형태로는 제3섹터, 민간 농장, 공공기관 등으로 나뉨 (Iacovo & O' Connor, 2009: 37).

- 제3섹터 조직인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종교 및 자선 단체, 민간 사회복지 기관 등이 농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농업 활동을 매개로 돌봄, 고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민간 농장인 개별 농가와 농업협동조합 등은 주로 고용 여건이 불리한 사람들을 생산 활동에 고용하며, 보건복지 분야의 공공기관은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업을 활동을 매개로 한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
- 이탈리아의 경우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요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이며, 2015년 기준으로 이탈리아 전역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례가 1,090여 개로 조사되었고, 이중 사회적 협동조합이 약 40%, 민간 농장이 31%임(김정섭 외, 2017).
- 네덜란드와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에서 사회적 농업은 돌봄 농업(care farming)이나 녹색 돌봄(green care)으로 불리며, 돌봄 서비스 제공에 전문화된 가족 기반의 민간 농장이 주를 이룸(Iacovo & O' Connor, 2009).
- 이들 농장은 돌봄 농장이라 불리며 현재 네덜란드에 1,200~1,400여 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에는 901개의 농가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것으로 조사됨.
-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된 국가들은 국가의 보건복지, 고용, 교육 제도 안에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제도적 여건을 갖추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함(김정섭 외, 2017).
- 이탈리아는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법·제도 안에서 사회적 농업을 지원함.
- 사회적 협동조합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대가를 국가로부터 지급 받음.
 - 2015년에는 ‘사회적 농업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 및 체계화함.
- 네덜란드의 돌봄 농장은 여러 가지 돌봄 기관의 유형 중 하나로 간주됨.
- 국가에서 지정한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서비스 관련 법·제도의 틀 안에서 서비스 제공 대가를 지급받음.
 - 2000년대 초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관(돌봄농업지원센터)을 정부에서 출연하여 설립하였으며, 10년(1999년~2008년) 동안 운영하면서 돌봄 농장의 전문화를 실현하고 실천 주체 간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적 농업 확산을 적극 추진함.

14 해외 사회적 농업 정책 및 실천 사례

- 벨기에 플란더스 정부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개별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함.
 - 돌봄 서비스 대상자들로 인해 농장이 농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보전하는 성격의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음.
 - 2017년부터 서비스 제공 대가를 돌봄 서비스 관련 법·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
 - 2004년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5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사회적 농업을 농촌지역의 사회 통합과 농가의 다중경제활동과 관련한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음.
 -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국가별 농촌 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회계 예산인 유럽 구조 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s)에서 국가별로 추진하는 사회적 농업 관련 사업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됨.

<표 2-1> 외국의 사회적 농업 지원 정책

구분	내용		
	관련 법	주요 지원	주요 재원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법(1991) 사회적농업법(2015)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사회보험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수당 지급	
		고용취약계층의 임금 보조	
		교육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유럽연합 사회기금
		직업교육 참여수당 및 교육 운영비 지원	
		국유지 사용 우선권	
	공공조달 및 공공일자리 선정 우선권	-	
네덜란드	장기요양법(2014) 사회지원법(2014) 청소년·아동법(2014)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사회보험
		돌봄농업지원센터 운영(1999~2008)	농업부, 보건복지부
벨기에	현금 급여 지급 관련 법령 제정 (2015)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사회보험
		농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보전금 지급	농업부
		시설정비 비용 지원	
	플란더스녹색돌봄지원센터 운영(2004~)	5개 주 정부	
일본	장애인자립지원법(2006) 빈곤생활자 자립지원법(2015)	시설정비 비용 지원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인력·기술 지원	
		장애인 직업교육 운영 예산 지원	후생노동성
		공공 직업소개소(헬로워크) 운영	
		고령자대상 사회적 농장 설립 지원	
빈곤계층대상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자료: 김정섭 외(2017: 40).

2. 일본의 사회적 농업 현황¹

2.1. 일본 농복연계 추진 현황

□ 농업과 복지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 농업 분야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실천이 확산되었으며, 사회복지법인, NPO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인 농가, 특례자회사² 등이 이에 참여하고 주요 실천 유형은 아래와 같음.

- 사회복지법인과 NPO법인이 직영 농장이나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장애인 고용
- 농업회사법인과 개인 농가가 사회복지법인이나 관영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 고용
- 농업회사법인과 개인 농가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³을 설립하여 농업 분야에 장애인 고용
- 농업 분야 외 영리기업이 농업에 특화된 특례자회사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하여 장애인 직원 채용

○ 출발은 장애인 고용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도 확산되는 추세임.

1 유키사토 요시다(일본 농림수산업 정책연구원)의 FANEA 사회적 농업 관련 발표자료, 유키사토 요시다·유리에 코시바·모토야 이시바시(일본 농림수산업 정책연구원)이 작성한 논문 2편, 후생노동성·농림수산업성(2017)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 특례자회사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설립한 특수한 형태의 자회사이다. 일본 정부는 1976년에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어 1987년에 특례자회사 제도를 도입했다. 특례자회사는 전체 직원의 2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신체 및 지적 장애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 전담 지도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위의 조건이 만족되면 후생노동성은 특례자회사의 장애인 고용 실적을 모기업의 장애인 고용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장애인종합지원법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의 하나로 일본에서는 취업계속지원사업소라 지칭한다. 취업계속지원 A형과 취업계속지원 B형 사업소로 구분한다. A형은 장애인과 고용 계약을 맺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2015년도 기준 769엔/시)을 지급하는 사업소로 우리나라의 장애인근로사업장 제도와 유사하다. B형은 고용 계약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소로 임금을 공임비(2015년도 기준 193엔/시)로 지급하며 우리나라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제도와 유사하다.

16 해외 사회적 농업 정책 및 실천 사례

- 농업회사법인이나 NPO법인이 지역에서 소일거리가 필요한 노인들이 참여하는 농장을 운영하거나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농업 직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 사회복지법인과 NPO법인의 농업 분야 진출 확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NPO법인이 직영 농장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함.

- 전체 사회복지법인의 34%가 농업 활동에 참여(1983년: 4.3% → 2014년: 34%)
- 고용 경험이 있거나 농업 기술을 축적한 장애인을 주로 고용하지만 사회복지 분야 직원의 도움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도 농업 활동에 참여 가능
- 지역 내 경작 포기 농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부금과 농업계 보조금 의존도가 높음.
- 노지 채소와 벼가 주 재배작물이며 농산물 가공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나 농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
- 경작 포기 농지가 늘고 농업 분야로 진입할 의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수가 증가하면서 장애인의 농업 분야 일자리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글상자 1> NPO법인 Peerfarm: 사회복지 분야 NPO법인의 농업 분야 진출 사례

2008년에 설립된 후쿠이 현의 Peerfarm은 사회복지 분야 NPO법인으로 직영 농장을 운영하며 법인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을 과수 생산 활동에 참여시킨다. 법인 대표는 농업과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지역 내 과수 생산자들과 견고한 유대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배 재배를 시작으로 2012년에 수원지를 7헥타르로 확장하였다. 후계농이 없는 지역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이양 받았다. 장애인들의 행동과 특성에 적합한 포도, 아스파라거스, 당근, 고구마 등을 시설원예로 생산한다.

Peerfarm은 시작 초기 3년 동안 농기계를 임대하여 적극적으로 농업 활동을 수행하여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농업인⁴으로 인정받았다. 보증하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농업 분야의 공공재정을 활용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파머스마켓을 관리하면서 지역의 160여개 농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포도와 배를 가공한 상품을 개발하면서 6차산업화 인증 사무소의 역할도 하고 있다. 2015년 부터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가게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이곳은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관광안내소 역할도 한다. Peerfarm에서 관리하는 파머스마켓은 2014년에 약 1억 1,000만 엔의 매출을 올렸고, Peerfarm 소속으로 농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임금은 2008년 23,000엔/월에서 2014년 43,000엔/월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Peerfarm에는 사회복지 분야 직원 27명과 33명의 장애인이 속해 있다.

<Peerfarm 활동: 배 생산, 직영 농산물 매장 운영>



□ 농업회사법인, 개인 농가, 농업 분야 외 영리기업 등의 농업 분야 장애인 고용 증가

○ 농업회사법인이나 개인 농가가 사회복지법인에 농업 활동을 위탁하면 사회복지법인 소속 장애인이 이에 참여함.

- 농업인이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비용을 지불하면 법인이 농업 활동에 참여한 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간접적 고용
- 일본에서는 이런 유형의 활동을 ‘Working Out of Facility’라고 지칭
- 농업회사법인과 사회복지법인간의 매칭이 이루어지려면 공공기관이나 농협 등의 도움 필요

<글상자 2> NPO법인 카가와현 고용센터: 농업 분야 장애인 고용 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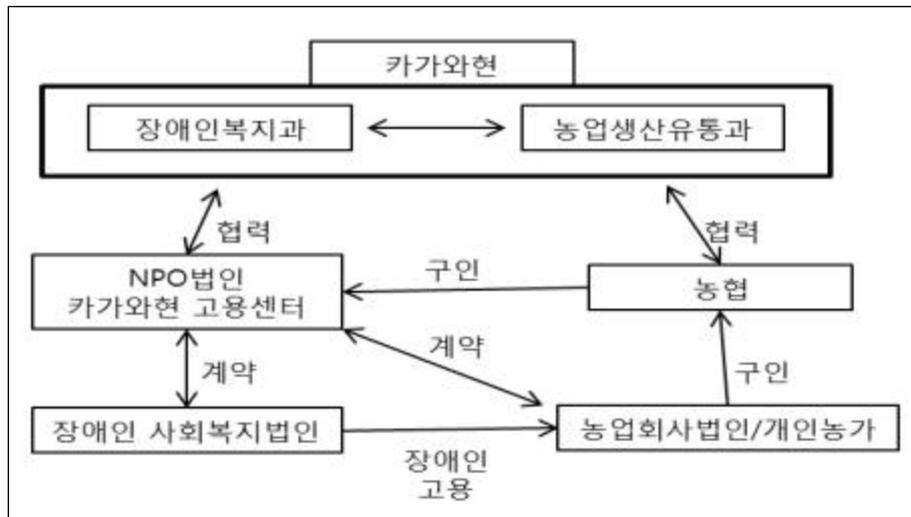
NPO법인 카가와현 고용센터는 2009년에 카가와현 전역의 사회복지법인, 개인 농가, 농업회사법인 등과 협력하여 농업 일손이 부족한 곳에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농업인이 농협에 구인을 하면 농협은 NPO법인에 구인 정보를 제공한다. NPO법인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복지법인에서 해당 일자리를 수락하면 NPO법인은 구인 요청을 한 농업인과 사회복지법인과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다. 계약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위탁받은 농업 활동에 법인 소속 장애인을 파견한다. 보통 3-4개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이 1개 농장에 파견된다. 2016년 기준으로 파견된 장애인들은 48헥타르의 농지에서 74가지 유형의 농업 활동에 참여했고 1,300만 엔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4 지역의 실제 여건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관리를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일컬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관리향상법에 따라 인정하고 보증한다.

18 해외 사회적 농업 정책 및 실천 사례

이 네트워크를 통해 농업과 사회복지 분야의 협력 관계가 구축되었고, 농업인들은 농번기에 쉽게 대체 노동력을 확보하여 적시에 농산물 수확이 가능해졌다. 농업 분야에 고용된 장애인들은 타 분야에 고용된 경우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고 농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정신 건강이 향상되고 사회 적응 능력이 향상되었다. 다른 현(아오모리(Aomori), 군마(Gunma), 도치기(Tochigi), 나가노(Nagano), 도토리(Tottori), 시마네(Shimane))에서도 과수·원예 분야 등에 유사한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

<카가와현의 농업 분야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



- 농업회사법인이나 개인 농가가 정부의 헬로워크(Hello Work)라고 불리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을 고용함.
 - 2007년 일본 전역에 장애인의 취업 상담·알선, 구인·구직 신청 접수, 취업 후 정착 등을 지원하는 헬로워크 설치·운영
 - 헬로워크를 통해 농림어업 분야에 취업하는 장애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해당 취업 건수가 2,820건에 달함.
- 농업회사법인이나 개인 농가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회사법인을 유치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함.
 - 장애 정도가 경미한 장애인을 주로 고용하고 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나 국유지 활용
 - 노지 채소가 주 재배작물이며 농산물 가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농산물 판로를 독자적으로 확보

<글상자 3> 오모리 농장: 농업인의 장애인 고용 확대 사례

2002년에 설립한 오카야마 현의 오모리 농장은 오카야마시 교외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장으로 2007년 정부에서 농업과 복지 분야의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여한 이후 장애인들과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08년에 Working Out of Facility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장애인 4명과 농장에서 딸기를 함께 재배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딸기 재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수경 재배에 장애인들을 참여시켰다. 이후 Working Out of Facility을 진행하던 사회복지법인의 직원들이 전근을 가면서 장애인들과 농장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오모리 농장은 2010년에 사회복지 분야 NPO법인 모리노이에(Mori-no-ie)를 설립하고 법인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을 농장의 딸기 및 수경 재배에 고용하였다.

오모리 농장은 루콜라와 상추를 수경 재배한다. 수경 재배 면적은 700㎡, 딸기 재배 면적은 3,500㎡까지 확대했다. 딸기 재배 면적은 2015년 가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 지역의 고령 농업인으로부터 이양 받았다. 오모리 농장은 2017년 기준으로 2,113만 엔의 농산물 매출을 올렸다. 매출이 높아 고용된 장애인들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19명의 정신질환 장애인들이 농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평균 임금은 81,000엔/월에 이르며 최고 146,000엔/월까지 받는 장애인도 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약 735-1,000엔이다. 일반인도 23명 고용했다. 또한 모리노이에 NPO법인은 2015년부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주간 보호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에는 재정 문제를 안고 있던 지역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인수했다.

- 농업 분야 이외의 영리기업이 농업 분야 특례회사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하고 있음.
 - 장애 정도가 경미하여 생산성이 높은 장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나 농업 분야 사업 경험이 부족하여 농업 생산성 및 수익이 떨어짐.
 - 특례회사의 모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과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농지를 임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 수경재배 등 시설 재배가 많으며 기업에서 축적한 마케팅 및 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하여 농산물 판로 확보 면에서 강점을 보임.
 - 2016년 6월 기준으로 일본 전역 448개의 특례회사 중 36개가 농업 분야에 장애인을 고용함.

<글상자 4> 이토츠 기업의 특례자회사 하마마츠 히나리: 농업 분야 특례자회사 사례

이토츠(ITOCHU Techno-Solutions Co., Ltd)기업에서 하마마츠에 설립한 특례자회사인 히나리(Hinari)는 장애인을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파견하려는 목적으로 2010년에 설립되었다. 직영 농장을 운영하지는 않는다. 원래 히나리 특례자회사는 이토츠 기업의 각 지사별로 설립되며 장애인을 고용하여 미용 및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하마마츠 지역의 히나리는 지역의 농업인 8명과 계약을 맺고 히나리 사무소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농장에 파견하였다. 청경채, 아스파라거스, 블루베리, 오렌지, 미니토마토, 양배추, 오코라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작업에 고용되었다. 23명의 장애인이 농장에 파견되었고 1개 농장에 파견될 때 3-4명이 1개 그룹이 되고 관리자 1명이 동반한다. 관리자는 지역의 사회복지 분야 NPO법인에서 파견한다. 하마마츠 히나리에서 파견하는 장애인을 수용하는 교마루(Kyomaru) 농장과 우에무라(Uemura) 농장은 장애인 고용으로 농업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농장 규모를 늘리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하마마츠 히나리 사무소의 운영은 모회사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라 사무소 직원을 추가적으로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현재의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이러한 형태의 농복연계 실천 활동이 지역 농업의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는 사례도 나타남.

- 일본의 경우 휴경에 따른 농지 소유자에 대한 패널티가 크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에 따라 휴경지를 사회적 농업의 생산 시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높음.
- 기존 노동력으로 생산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인건비 부담이 큰 작물에 대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는 사례들도 나타남.

<글상자 5> 교토부 교타나베시 산산야마시로 농장 사례

산산야마시로 농장은 2011년 4월 청각 장애인 대상 취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농복연계 실천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교토부 농복연계센터의 분소로 지정되어 농복연계 실천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른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기능도 병행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되, 발달장애,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우울증 환자 등이 농복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산산야마시로 농장은 설립 초기부터 지역 농업과의 연계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특산물 재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많은 노동력 투입을 요구되어, 일반 농가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재배하기 어려운 지역 특산물을 주로 재배하여 지역 농업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농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일례로, 차 묘목을 재배(연간 4,000그루)하여, 지역 차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차 묘목의 경우 단기간 내에 산출이 어렵고,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 까닭에 일반 농가에서 재배하는데 한계가 있는 작물이다. 산산야마시로 농장에서 안정적으로 묘목을 재배하여 지역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차 재배의 경우 후계 영농인력이 없어 휴경지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차밭을 임대하여 지역의 전통 다원을 계승하고 있다. 또한, 지역 특산물인 토란의 경우 손질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까닭에 일반 농가에서 재배·출하하기 까다로운 작물이며, 이에 사회적 농장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로 산산야마시로 농장에서 토란을 재배하고 관련 가공 제품 및 식단을 개발하여 함께 운영 중인 카페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표 2-2> 일본의 농업 분야 장애인 고용 현황 요약

실천 주체	실천 형태	특성	비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NPO 법인	직영농장·농업회사법인 설립	-법인이 장애인을 농업 활동에 직접 고용 -경작 포기 농지 임차 -판로 확보 한계 -보조금/기부금 의존도 높음	사회복지법인의 34%가 농업 활동 참여 (2014년 고용센터 조사 결과)
농업인 (농업회사법인/개인농가)	사회복지법인에 영농 활동 위탁	-중개기관(공공기관, 농협 등)을 통해 영농 활동 위탁 -장애인이 농업인의 농장에 파견되어 영농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간접 고용	전국적으로 실천되며 이런 활동을 'Working out of Facility'라 지칭
	관영일자리센터 (헬로워크)에 등록된 장애인 고용	-일자리센터에 구직 신청을 한 장애인 직접 고용	헬로워크를 통한 농림어업 분야 장애인 취업: 2,820건(2015년 기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립 또는 위탁 운영	-농업 활동에 장애인 직접 고용 -농산물 가공에 적극 참여 -판로 독자적 확보	10개소 (2016년 기준)
농업 분야 외 영리기업	특례회사 설립	-농업 활동에 장애인 직원 채용 -농업 생산성 및 수익이 떨어짐	36개소 (2016년 기준)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설립	-농지 임차에 어려움 -판로 확보에 강점	3개소 (2016년 기준)

자료: 저자 작성

□ 일본 정부는 농업과 복지를 연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실천 조직을 적극 지원

○ 일본은 사회적 농업 실천의 확산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중앙정부 관계 부처의 지원 사업이 다수 존재함.

- 2009년 농업 분야 외의 회사나 법인이 농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 이를 계기로 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사회복지법인과 NPO법인 수 증가
- 2006년에 영리기업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지원법을 개정, 이를 계기로 농업 분야에 진출한 영리기업의 장애인 고용 증가

22 해외 사회적 농업 정책 및 실천 사례

- 농립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농업 분야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실천 조직에 장애인 편의 시설 정비 비용, 농업 직업연수 운영비, 기술, 인력 등을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지역 내 농업 분야 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함.

- 지방자치단체 내에 농업 분야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담당 부서를 두고 농업인과 사회복지법인의 매칭 지원
- 지역 내 중간지원조직(NPO법인 등)에 매칭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기도 함.

<표 2-3> 일본의 사회적 농업 지원 정책 요약

구분	주요 지원
농립수산성	장애인 편의시설(화장실, 수도시설, 자재창고, 농산물 가공 판매시설 등) 정비 비용 지원
	영농 활동 지원 서포터 육성·파견
	농산물 생산·가공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습득 연수·실습·견학 활동 지원
	장애인 대상 농업 직업연수 운영 지원 (장애인 1명당 연간 최대 120만 엔의 연수비를 2년간 지원)
	농업 분야 장애인 고용 매뉴얼 발간
후생노동성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비용 지원
	관영 일자리 지원센터(헬로워크) 운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보조금 지급(최대 240만 엔)
	사회복지법인에 농업 전문가의 농업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지원
	민공계층 대상 농업 직업연수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농업인-사회복지법인 매칭 지원 사업 추진(담당 부서 운영/NPO법인에 사업 위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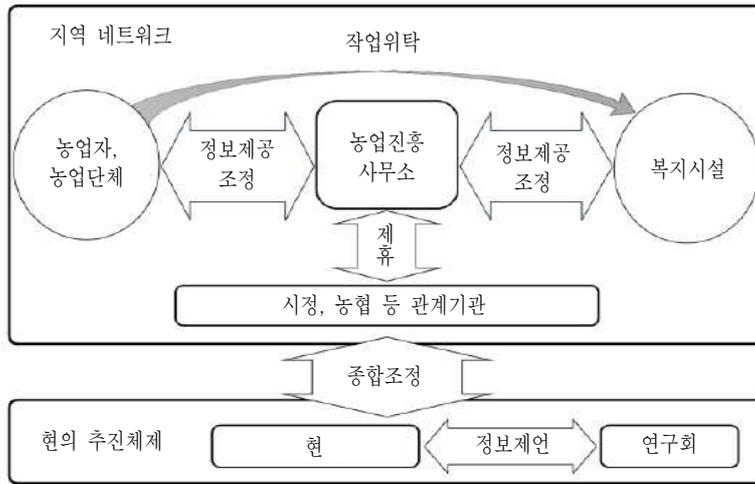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글상자 6>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사회복지법인 매칭 지원 사례

-토치기현-

토치기현은 재활치료 및 치유 기능을 제공하는 유니버설 농업을 장려한다. 토치기현 농정부의 농정과가 중심이 되어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농업과 복지를 연계하는 활동을 추진한다. 토치기현 농정부의 농업진흥사무소는 2013년부터 농업인과 사회복지법인을 매칭하여 농업 분야 장애인 고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농업인과 사회복지법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 이해를 돕고 정보 교류를 촉진하려고 한다. 또한 농업인, 사회복지/교육 관련 기관 담당자, 기업 관계자, NPO법인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토치기 유니버설 농업연구회」를 설치하여 「토치기 유니버설 농업」의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토치기현에 제안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토치기현은 자체적으로 「유니버설 농업 지원사업」을 2015년도부터 새롭게 도입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농업인에게 도구 구입 및 시설 설치비(1단체별 상한 10만엔 정기 보조)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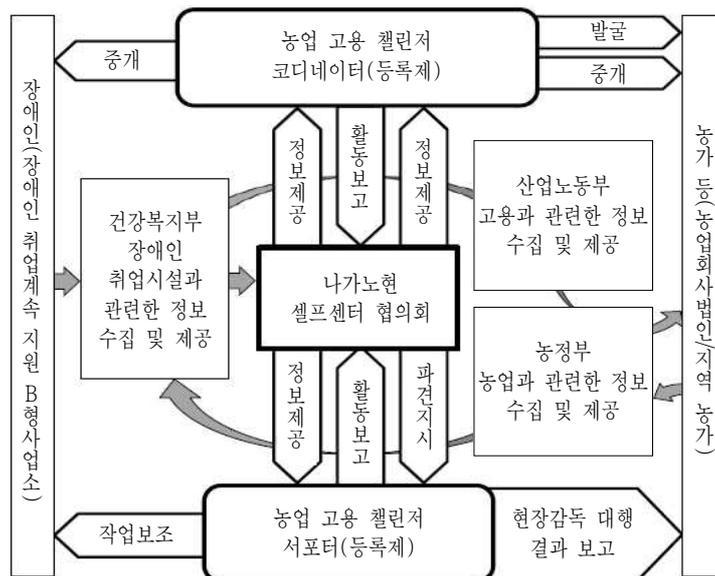
<토치기현의 농업 분야 장애인 고용 지원 체계>



-나가노현-

나가노현은 「고용, 사회참가 촉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4년도부터 「장애인의 농업 고용 챌린지 사업」을 시작했다. NPO법인 나가노현 셀프센터 협의회에 업무를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나가노현 농정부, 건강복지부, 산업노동부 등은 사회복지법인 및 지역 농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셀프센터 협의회에 제공한다. 셀프센터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농업 고용 챌린지 코디네이터(등록제)는 농업 작업을 위탁하는 농가와 사회복지법인을 중개하는 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농업 분야 장애인 고용에 동참할 사회복지법인과 지역 농가를 추가로 발굴한다. 또한 셀프센터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농업 고용 서포터(등록제)는 농가에 파견되어 장애인의 농업 작업을 보조한다. 이 사업을 통해 2014년에는 포도 가지 자르기, 브로콜리 밭 제초, 상추 모심기 등의 과수 및 채소 영농 활동에 247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었다.

<나가노현의 농업 분야 장애인 고용 지원 체계>



3. 시사점과 과제

□ 사회적 농업은 국가별 고유한 배경에서 출현하였으며, 농업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적 농업이 확산

○ 이탈리아는 1978년 국립정신장애인이시설이 폐쇄된 이 후, 시설을 나온 장애인들에 대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농업을 통해 돌봄을 제공하면서 사회적 농업이 최초로 출현했으며, 휴경지들이 사회적 농업의 생산 기반으로 활용됨.

○ 일본은 농촌 일손 부족 및 유휴 농지 증가 등 농업·농촌의 필요와 장애인 대상의 돌봄 수요 증가와 같은 복지 수요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농·복지연계가 출현하고 확산됨.

□ 사회적 농업은 보건복지, 고용 제도 안에서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농업 실천의 확산을 위한 법·제도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

○ 사회적 농업이 확산된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사회적 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 등 관련 제도의 범위 안에서 사회적 농업의 실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제반 지원 정책을 추진함.

○ 일본은 농업 분야의 장애인 고용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농업과 복지를 연계하는 실천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장애인자립지원법 등을 개정하여 농업회사법인, 개인 농가, 생활협동조합, 농업 분야 외 영리기업 등이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농지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NPO법인 등이 농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중앙정부 관계부처가 농복지연계에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 지원 수단 제공
-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농업 분야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시설 정비 비용, 농업 직업연수 운영비, 기술, 인력 등을 지원
- 후생노동성은 농복지연계의 대상 범위를 농촌 지역의 고령자와 빈곤계층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농업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 수단 도입
- 농림수산성은 농업 분야의 장애인 고용 매뉴얼 등을 발간하고 사회적 농업 실천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세미나 개최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농업 실천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농업인과 사회복지법인의 매칭을 주도하였고, 농업과 복지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촌 지역사회에 새로운 형태의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내에 매칭 사업 담당 부서를 두거나 지역 내 중간지원조직(NPO법인 등)에 매칭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사례가 많음.
 - 지역 내 사회자본이 풍부한 중간지원조직은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농업과 복지를 연계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유럽의 경우도 국가마다, 지역사회마다 다양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 결국 어느 농업·농촌 정책과 마찬가지로 농촌 지역사회마다 구체적으로 다른 특징을 중앙정부 정책만으로 포괄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현장의 특징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에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성격이 다른 주체들이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며, 농업과 복지를 연계하는 활동은 전에 없던 농업인과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부문 간 연계·협력이 중요함.

□ 사회적 농업의 실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필요

- 일본의 사례에서 후생노동성이 일본 전역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센터(헬로워크)는 농업과 복지를 연계하는 플랫폼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의 농업 분야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함.
- 이를 한국형 맥락에서 해석하자면 지역의 농업 여건과 농업인들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농협은 농업인들의 사회적 농업 실천 참여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농협에서 파악한 시기별·농가별 농업 인력 부족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 내 농업인-사회복지법인 간 매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려는 주체들이 농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지역 농업의 역량에 따라 실천 주체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지원과 자체 유통망을 활용한 판로 개척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 농업 실천과 지역 농업 생산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일본 교토부 산산야마시로 농장의 경우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가 공공부문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농업 가치사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별 농가가 수행하기 어려운 작물의 재배, 가공 제품 제작, 지역 특산품 마케팅 등에 있어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의 역할이 부각될 수 있음.
 - 지역 주민이 사회적 농장의 교관 인력으로 근무하는 등 주민이 사회적 농업 실천에 참여하면서 소득과 같이 이익을 취하는 사례들이 확인됨.

- 사회적 농업 실천이 지역 농업에 뿌리 내리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역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이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
 -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의 실천을 위해 농업 부문에서도 주민·경영체와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제 3 장

사회적 농업 실천 현황: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1.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대상 모니터링 개요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개요

-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임.
 - 이러한 활동은 그 중심에 농업이 있지만, 돌봄·교육 등 그 내용이 다양한 영역에 이르기 때문에 지역 학교, 복지시설, 농업인,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의 협업이 바탕이 되어야 함.
- 지역의 자발적, 혁신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총 63개 법인이 사업 신청
 - 사업 신청 대상자 중 9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총 378백만 원(60백만 원/개소, 국고 70%·지방비 30% 보조)을 투입하여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을 추진

28 사회적 농업 실천 현황: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표 3-1> 2018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신청 현황

지역	업체(법인)명	지역	업체(법인)명
경기 양평군	양평귀농귀촌협동조합	전남 순천시	순천화훼영농조합법인
경기 양평군	그린맥스영농조합법인	전남 나주시	레인보우팜(주)영농법인
경기 양평군	화이트파머스	전남 나주시	화답영농조합법인
경기 수원시	수원사회적농업네트워크	전남 광양시	(주)다인영농조합법인
경기 남양주시	(사)해맑음장애인복지회	전남 보성군	농업회사법인 (주)우리원
경기 시흥시	(주)무궁화사랑	전남 영광군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
경기 시흥시	시흥양봉협동조합	전남 해남군	야호해남영농조합법인
경기 이천시	한국천연쥬협동조합	전남 해남군	고천암영농조합법인
경기 화성시	교육농업연구소영농조합법인	전남 장성군	행복한노인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기 화성시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	전남 진도군	친환경으뜸올금 영농조합법인
경기 김포시	농업회사법인 맘앤네이처	경북 포항시	농업회사법인 꿈바라기
강원 원주시	농업회사법인 (주)그린세이프	경북 포항시	영농조합법인 킹스파머스
강원 평창군	평창라벤다농업회사법인	경북 문경시	바른농부영농조합법인
강원 평창군	흰구름산촌마을영농조합법인	경북 군위군	소보마실 영농조합법인
강원 철원군	뽕이네 영농조합법인	경북 청송군	청송해뜨는농장 농업회사법인
충북 청주시	다나무와종이 농업회사법인	경북 칠곡군	지천농촌체험협동조합
충북 청주시	에듀팜 영농조합법인	경북 칠곡군	광개토한우농업법인(주) 칠곡지점
충북 제천시	(사)농촌공동체연구소	경북 칠곡군	농업회사법인 (주)형제
충북 보은군	성원 농업회사법인	경북 상주시	(주)신상마을 농업회사법인
충남 금산군	바라실약초 영농조합법인	경북 상주시	(사)상주환경농업협회
충남 서천군	서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경북 상주시	쉽표영농조합법인
충남 아산시	(주)농업회사 아산논밭문화학교	경남 통영시	농업회사법인 참술(주)
충남 홍성군	협동조합 행복농장	경남 거창군	영농조합법인 수송대밭효마을
전북 완주군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경남 남해군	남해상주동고동락 협동조합
전북 익산시	익산시지역자활센터	경남 하동군	다오영농조합법인
전북 무주군	농업회사법인 무주팜에스티(주)	경남 함양군	농업회사법인 다락골농원
전북 임실군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	경남 함양군	농업회사법인 지라산희민들래영토(주)
전북 임실군	에버팜협동조합	제주 서귀포시	무릉외갓집영농조합법인
전북 임실군	임실참생명협동조합	제주 서귀포시	농업회사법인 커피문화창립(주)
전북 순창군	밭두렁	세종	목인동 영농조합법인
전북 고창군	흙건축연구소살림	세종	(사)세종브릿지공동체
전남 순천시	너름지이 영농조합법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농업회사법인 당바이오(주)
전남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고산(주)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대상 9개소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 시범사업 대상 9개소와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추진
-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회적 농업 시범 주체들의 사업 내용,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실태 등을 조사하고,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현장 및 실천 농가를 조사하여 지원사

업 추진체계 보완 및 시범사업 성과 홍보에 활용

- 아울러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수단의 적절성 평가 및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를 발굴
- 농업·농촌, 사회복지 등 사회적 농업 관련 전문가와 연구진이 공동으로 시범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사례별 보고서 작성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시행 현황

○ 전국 각지의 9개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 및 협력 단체의 현황과 사업 시행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총 9개 실천 농장은 교육, 돌봄, 일자리 제공 등이라는 핵심 실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지역사회 의 몇몇 조직들과 사회적 농업 실천을 추진하였음.

<표 3-2>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 현황과 주요 사업 시행 내용

지역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의 명칭과 조직 형식	실천유형	주요 내용	지역사회 내외 협력 단체 및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농촌공동체연구소 (사단법인)	교육	* 청년 영농정착을 돕는 교육	제천간디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성원농장 (농업회사법인)	돌봄, 교육	* 발달장애인 돌봄 및 농업 교육	보은군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남도 홍성군	행복농장 (협동조합)	돌봄, 교육, 일자리	* 성인 정신장애인 일자리 제공 *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 돌봄 및 농업 교육	젊은협업농장(협동조합),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을학회일소공도, 금마중학교,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회적 협동조합)	돌봄, 교육, 일자리	*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 농업교육과 돌봄 * 고령농 일자리 제공 * 청년 영농정착을 돕는 교육 및 지원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랑발달장애통합지원센터(협동조합), 완주군 지역아동센터, 완주군 보건소
전라북도 임실군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	돌봄, 일자리	*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는 범죄피해자 회복 과정 지원 * 일자리 제공	전북범죄피해지원센터, 삼성센터(사회복지법인)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팍앤씨티 (농업회사법인)	돌봄, 교육	* 아동 및 청소년 돌봄 * 성인 장애인 돌봄 및 농업 교육	안성면공동체활성화지원단, 국립인터넷드림마을,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무주군 종합복지관
전라남도 영광군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	일자리	* 노인 일자리 제공	여민동락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
전라남도 해남군	야호해남 (영농조합법인)	일자리, 기타	*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문화적 통합 * 일자리 제공	해남 공공도서관, 해남에 다녀왔습니다. 해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남 지역아동센터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헤뜨는농장 (농업회사법인)	교육	* 청년 영농정착을 돕는 교육	청송 농촌관광연구회 등

30 사회적 농업 실천 현황: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 이들 지역에서 진행된 사회적 농업 실천을 주로 돌봄, 교육, 일자리 제공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
 - ‘좁은 의미의 돌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내 관계 형성을 촉진하거나(해남), 정신적 외상(外傷)이 있는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일을 추진하는(임실) 사회적 농장도 있음.
- 하나의 농장에서 한 가지 유형만의 사회적 농업 실천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두 종류 이상의 활동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
 - 특히, 장애인과 함께 이루어지는 농장 활동은 돌봄, 농업교육, 일자리 제공 등의 활동이 긴밀한 관련성을 지님.
 -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장 활동은 처음에는 ‘농장 체험’의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관심 여하에 따라서는 일종의 ‘직업재활’ 성격을 지니는 농업 교육 활동이나 일자리 제공 활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지역사회 내외의 여러 기관, 단체, 개인 등과의 협력 구조는 사회적 농업 실천에 중요한 기반이 됨.
 - 뚜렷한 협력 관계없이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진행하는 곳은 소수이며, 대부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력 관계망을 조금씩이라도 확대하는 양상을 보임.

2.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⁵

2.1. 제천시, 농촌공동체연구소

□ 사업 추진 실적

- 농촌공동체연구소에서는 지역정착 희망자 농부 프로그램 등을 비롯해 크게 4가지의 실천 활동을 기획하여 실천하였음. 제천간디학교와의 협업 하에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림으로써 귀농 의향이 있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 과정이 지역사회의 청년 및 고령 농업인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였음.

⁵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3-3> 제천시 농촌공동체연구소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내용 및 실적

활동	내용	실적	비고
지역정착 희망자 농부 프로그램	- 덕산면으로 귀농할 의향이 있는 도시민이 장기 체류하면서 영농을 실습하고, 지역 내 선배 농업인과 멘토링 활동 - 45일간 체류하며 경험하는 초기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1년 반을 체류하는 장기 프로그램 진행 예정	3명	10월 15일부터 3명 이주, 45일간 초기 프로그램 시작
지역에 청년을 남기기 위한 학생 사회적 농부 프로그램	- 제천간디학교(고등학교 과정)를 졸업한 청년들이 지역에서 농업 및 연관 분야에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게 교육훈련하는 농장 조성 및 운영 체계 구축	농장운영체계 구축, 간디학교 농업실습 수업을 부분적으로 위탁 진행	약 2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진행, 2019년에는 간디학교 농업 관련 수업을 전담하기로 함
귀촌자 사회적 농부 프로그램	- 제천시 덕산면 거주하는 기존 귀촌인 대상 영농교육 및 지역사회 융화	10명	삼채소, 잡곡, 벼 등의 품목 공동재배
할머니 텃밭 생산물 판매 지원	- 소량의 농산물을 생산한 고령농업인이 5일장에 나와 판매할 수 있게 지원	매5일 5명	교통비 지원, 판매대 및 천막 설치 지원

□ 사업 성과

- 귀농인, 귀촌인, 지역 출신 청년이 농촌 지역사회에서 농업을 영위하면서 정착해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기반을 구축 중에 있음.
- 두레농장을 근거지로 삼아 제천간디학교 학생들이 장기간 동안 영농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장 기반과 상근 인력 등 교육과정 운영 체계를 정비함.
 - 2018년에는 제천간디학교에서 실행하는 농업 관련 교과수업의 일부를 두레농장에서 수행하기 시작했으며(약 20명 부정기적으로 참여), 2019년부터는 농업 수업 전체를 두레농장에 일임하여 진행하기로 학교 측과 협의를 완료함.
- 지역 외부의 귀농 희망자가 장기간 체류하면서 농업을 경험하고 정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2018년 10월 중순 기준 3명의 희망자가 이주함. 45일 간 머물면서 영농과 농촌 생활을 경험하기로 함. 45일 간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과정을 평가하고 1년 반을 머물면서 정착을 모색하는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
- 덕산면 지역에 귀촌했으나 농업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에 잘 융화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귀촌인들에게 농업을 권유하고 농업을 통한 소득 창출의 가능성을 찾도록 돕는 영농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
-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소농의 농산물 판매를 돕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향후 이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덕산면 이장협의회 등과 협의 중임.

2.2. 보은군, 성원농장

□ 사업 추진 실적

- 보은군의 성원농장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으로 농업을 통한 돌봄과 일자리 제공 등을 실천하고자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음. 보은장애인복지관과 협업하여 발달장애인 농업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35일간 진행하는 등 다각도의 프로그램 기획과 활동을 추진하였음.

<표 3-4> 보은군 성원농장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내용 및 실적

활동	내용	실적	비고
발달장애인 농업재활 훈련 프로그램	-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는 장애인 대상 - 주5회 농장으로 출근하여 10시~15시까지 활동 - 농작업(대추, 노지채소, 양봉), 원예치료	35일 (연인원 175명=5명×35명)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 농업진로탐색 프로그램	- 농사체험 및 간단한 농작업 - 원예치료	1회 (7명)	
보은장애인복지관과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평가	- 농업재활훈련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수정 - 장애인 활동 기록 및 평가	수시	
보은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주관 사회적 농업 워크숍	-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에게 사회적 농업에 관한 인식 확산	1회 (25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햇볕 차단용 그늘막 및 평상 - 장애인 숙소 기초공사 중		농식품부 사업 예산이 아닌 성원 농장 예산으로 실행
농장 스태프 및 자원봉사자 확보	- 도예가, 성직자 등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지원할 상근 자원봉사자 2명 확보		

□ 사업 성과

- 성인 발달장애인 농업재활훈련을 실행하면서, 추후 농장 채용 등의 가능성을 확인함.
 - 농작업 활동에 장애인들이 적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염려와 달리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함.
- 장애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농업과 연관되어 추진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과 인식이 없던 보은군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함.
- 농업재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발달 장애인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둠.
 - 복지관에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참여 당시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발달 장애인의 농기계 조작 및 농작업에 대한 흥미와 새로운 역량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발달

장애인의 재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발달 장애인의 체중 감소 등 긍정적인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확인함.

2.3. 홍성군, 행복농장

□ 사업 추진 실적

- 홍성군 행복농장을 중심으로 성인 만성정신질환자 및 발달장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업 실천 활동이 기획되고 추진되었음. 홍성군의 경우는 전체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것은 아니지만, 행복농장 및 지역의 협력 주체들이 추진하기로 결의하여 실시하는 활동으로 다음의 활동들이 있음.

<표 3-5> 홍성군 행복농장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내용 및 실적

활동	내용	실적	비고
자연구시 기본과정	- 성인 만성정신질환자 농장 방문 프로그램 - 4박5일간 농작업 및 정신건강프로그램에 참여 - 향후 자연구시 인턴 과정 참여 및 농업 분야 취업 가능성 타진	2회 실시 (7명, 6명)	조현병, 양극성장애 등을 지닌 정신요양병원 거주 환자
지역학교 특수학급 청소년 대상 농부 프로그램	- 금마중학교 특수학급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농업 체험 및 직업재활 훈련 - 원예작물(허브, 꽃모종) 작기에 맞춰 프로그램 내용 구성 - 발달장애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목적	10회기 실시 (5명, 연인원 50명)	매학기 8회기 프로그램, 1학기 종료, 2학기 프로그램 진행 중 회기당 3시간
특수학급 대상 농부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 금마중학교 특수학급 대상 프로그램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홍성군 등 인근의 사회적 농업 실천 의향 농가에 보급하여 사회적 농업 확산에 기여	-	외부 집필진을 확보해 2차례 세미나를 진행했으나, 연내 출간 어려움
돌봄농업 연속 세미나	- 돌봄농업 관계자들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학습하는 모임 - 장애 일반, 지적 장애, 정신 장애, 자폐 장애 등 네 가지 주제로 4회 계획	3회 실시 (연인원 140여 명)	4회차 자폐장애에 대한 세미나는 10월 27일 예정
사회적 농업 관련 책자 발간	- 2017년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한국의 농업 현실과 사회적 농업” 연속 세미나(7회 실시)의 토론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여 사회적 농업에 관한 관심 확산	집필 완료	12월 중 발간 예정
여성 고령 귀농인 창업 인큐베이팅	- 농업기반과 영농기술을 갖추지 못한 고령 여성귀농인의 지역 정착을 돕는 활동 - 행복농장 시설의 일부분을 할애해 원예작물 재배 및 판매를 코칭	진행 중	로즈마리, 적소렐 등 계획한 품목을 정식, 재배, 일부 판매 시작
농장 수지 개선을 위한 가공상품 마케팅	- 바질페스토, 건바질 등 행복농장에서 생산하는 허브 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	인허가 절차 진행	행복농장은 충분한 시설 규모를 갖추지 못해 홍성유기농영농조합과 협력
정신보건 관련 국제 학술행사에 부스 참여	- 8월, 충남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공주에서 개최된 국제정신건강 컨퍼런스에 사회적 농업 홍보 부스 운영 - 가든박스, 바질페스토, 건바질 등 기념품 제작 및 배포	부스 방문객 1,000명	정신보건학계, 일반 시민에게 사회적 농업을 알리는 계기

① 장곡초등학교 꼬마정원사 프로그램

- 행복농장 인근의 장곡초등학교(학생 수 46명) 학생들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일환으로 ‘장곡마을학교’를 3년째 운영
- 학기 중 격주로 수업시간을 할애하여 학생들이 마을로 나와 6개 과목의 수업에 참여
-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학교 교사’가 과목별로 운영하는데, 행복농장은 원예 실습 프로그램인 ‘꼬마정원사 프로그램’을 맡아서 운영
- 장곡초등학교 재학생 중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30여 명이 넘으며, 상당수가 기초 생활수급 대상자 가구인 상황에서 아동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돌봄 및 교육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
- ‘장곡마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생들 중 발달장애 아동 4명

② 홍성군 도농교류센터(사단법인)와 협의하여 초중등학교 도움반(특수학급) 학생들 대상 돌봄농업 프로그램 준비 중

- 학교 인근에 소재하며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시설 기반이 있는 마을의 젊은 농가들을 돌봄농업 프로그램 실행 주체로 양성하려는 기획
- 2018년에는 소규모 강의 등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부분적으로 전개
- 2019년에는 홍성군 차원의 중요 농정 과제로 부각시키고, 상당한 규모의 학습 및 네트워킹 활동을 기획해 추진하는 방안 검토 중

<그림 3-1> 홍성군 지역사회 연결망과 사회적 농업 활동 주체



자료: 정민철, 2018, “이상촌, 흥동면과 장곡면 사례”, 농촌 유토피아 워크숍 발표자료.

□ 사업 성과

- 수년 전 자연구시 기본과정을 계기로 고용한 정신장애인(2명)이 요양병원에서 주거 독립, 홍성읍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행복농장 및 오누이권역센터로 출퇴근하면서 재직 중임.
 - 중증 만성정신질환을 앓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시설에서 나와 농촌에서 농업 및 농업 관련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사회 복귀 및 재활한 드문 사례로 평가됨.

- 한국에는 아직 소수에 불과한 돌봄농업 실천 농장으로서, 사회적 농업의 의의와 필요성을 각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함.
 - 대중매체(주요 신문 및 방송)를 통해 정보를 발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매월 2~3차례 방문객들이 행복농장을 방문해 사회적 농업에 관한 강의와 견학을 실시함.
 - 홍성군 지역사회 안에서도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는 중심 장소로 자리매김함.
 - 인근 지역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려는 농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서울이나 대전 등지의 정신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자연구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함.

- 재학 중에는 학교 체제 안에서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의 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받는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직면하게 될 일자리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업 직업재활 교육 과정을 형성함.
 - 오랜 경험과 기술적 측면에서의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농업 직업재활 모형을 만들 수 있는데, 행복농장의 경우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정리하여 발달장애인의 농업 재활 모형을 정립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선 상태라 평가할 수 있음.

- 사회적 농업 관련 지역 내 주체들과의 교류 협력 강화가 특징적임.
 - 충남정신건강복지센터, 홍성군 도농교류센터, 지역 내 다수 농가 및 농업생산자 단체, 홍성군청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
 -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고 시도할 만한 여건이 조성
 - * 지역 주민과 연계한 돌봄 농업 프로그램 기획
 - 홍성군 도농교류센터(사단법인)와 협의하여, 초·중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

36 사회적 농업 실천 현황: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으로 한 돌봄 농업 프로그램을 준비 중

- 학교 인근에 소재하며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시설 기반이 있는 마을의 젊은 농가들을 돌봄 농업 프로그램의 실행 주체로 양성하기 위한 기획이 추진 중
- 2018년 소규모 강의 등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부분적으로 전개
- 2019년부터 홍성군 차원의 중요 농정과제로 부각시키고, 상당한 규모의 학습 및 네트워킹 활동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 중

2.4. 완주군,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사업 추진 실적

- 완주군의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과 독거노인 대상으로 한 원예치유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아동 돌봄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함. 임대한 농장 시설을 중심으로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과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표 3-6> 완주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내용 및 실적

활동	내용	실적	비고
발달장애아동 대상 가족 농장 및 원예 치유 프로그램	- 발달장애아동 가족 농장 운영 및 원예 치유 프로그램 개최 (월 2회, 총 10회) - 로컬푸드와 연계한 농산물 판매 - 지역 노인을 멘토로 채용 사회적 일자리 창출	15회 실시 (15가족, 지역 노인 5명 채용)	두레농장 임대
독거노인 대상 원예치유·돌봄 프로그램	- 지역 독거노인 대상 원예활동 및 요리체험 프로그램 운영 - 농장 활동 병행(다육식물 재배) - 지역 보건센터와 연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15회 실시 (독거노인 20인 참여)	
취약계층 아동 돌봄 체험 프로그램	- 지역(고산면) 아동센터 아동 대상 지역먹거리 활용 요리 및 기타 체험 프로그램 운영	7회 실시	
사회적 농업 협의체 운영	- 사업주체, 행정(군, 민, 농정 및 사회복지 담당), 두레농장, 사회적 농업 협력 주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농업 민간 협의체 운영		

□ 사업 성과

- 기존 지역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사회적 농업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식시킴.
 - 시범사업 주체인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주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문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본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체들 사이에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농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함.

- 완주군을 비롯하여, 농정 및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부문의 행정과 지역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지역단위 지원 체계를 구축함.
- 발달장애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였던 이랑협동조합의 경우 2019년 사업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 주체들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함.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음.

- 발달장애 아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들의 경우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야외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나, 본 사업을 통해 주기적으로 야외활동과 농작물 재배 그리고 사회적 교류에 참여함으로써 아동 및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독거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경우 요리체험, 원예활동과 함께 육체적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건강 관리 및 정서적 안정감 제고에 기여함.
- 사업에 멘토로 참여하는 지역 주민(노인)의 경우에도 소득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의 교류 및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2.5. 임실군, 선거웰빙푸드영농조합법인

□ 사업 추진 실적

- 임실군의 선거웰빙푸드영농조합법인에서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복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농업을 소재로 한 원예치료 및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독특한 실천 사례로서 농업이 어떤 사회적 기능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원예치료 활동과 마을 방문 활동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당초 월 2회(마을 1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회)로 계획했던 프로그램 활동이지만, 참여자들의 요청에 따라 월 4회, 즉 매주 프로그램을 진행함.

<표 3-7> 임실군 선거웰빙푸드영농조합법인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내용 및 실적

활동	내용	실적	비고
범죄 피해자 및 가족 원예치료 및 휴양 프로그램	- 전북범죄피해지원센터 및 피해자 쉼터에 입소해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원예치료 활동 - 격주로 원예치료가 센터를 방문하여 실내에서 프로그램 진행 - 격주로 범죄피해자 및 가족들이 임실군 선거리 마을에 방문하여 현장 프로그램 진행	16회 (20명, 연인원 320명)	보존화 제작, 농촌마을 산책, 농작업 체험 및 실습, 아동의 경우 미술 치료 등으로 내용 구성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 보존화 제작에 필요한 야생식물 채취, 건조, 1차 가공 - 범죄 피해자 및 가족 마을 방문 프로그램 진행 보조자로 참여	약 10명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닌 사람과의 만남/교류 준비 워크숍	- 법조계 추천 전문가를 초빙하여 범죄 피해자 등 특수한 입장에 있는 이들과의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학습	1회	
범죄 피해자 일자리 모색 활동	- 일용 아르바이트 기회 주선 - 다수의 일반인과 공개된 자리에서 대면할 수 있는 경험 제공	2회	임실군치즈축제, 전주 한옥마을

□ 사업 성과

○ 범죄 피해자 및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이 되었음.

-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결의 사람들과의 대화도 꺼리던 범죄 피해자 및 가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대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함.
- 실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참여에도 어려움을 겪던 참여자들이 수개월 만에 지역축제나 유명 관광지 같은 익명의 사람들이 지나는 개방된 장소에서 일정한 경제적, 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함.

○ 범죄 피해자의 주거 및 일자리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를 형성함.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피해자 쉼터의 수용 인원에는 한계가 있어, 관련된 범죄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범죄 피해자 가족들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가 대두됨.
- 선거웰빙푸드영농조합법인의 현재 역량으로는 일자리 및 주거를 충분히 지원할 수 없으나, 한 가족을 마을로 11월 중에 귀농하도록 돕기로 결정하였고,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을 구하는 중임.
- 일자리는 여의치 않지만 선거웰빙푸드영농조합법인이 수행하는 보존화 제작, 원예치료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액의 소득이라도 얻을 수 있게 조치함.
- 사회적 농업이 원예치료 등의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경제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 진행해야 하는 실천임을 확인하는 계기를 형성함.

2.6. 무주군, 팜앤씨티 농업회사법인

□ 사업 추진 실적

- 무주군의 사회적 농업 실천은 돌봄 농업의 형식을 지님.
 -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장애가 있는 성인을 농장에 초대해 여러 가지 경험과 직업재활 교육을 제공함.
 - 발달장애(지적 장애, 자폐 장애)가 있는 성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인 청소년,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 등의 기관에서 돌봄을 받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매개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함.
 - 4개 농장이 5개 교육 및 복지 기관과 협력해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함.
 - 8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연인원 약 656명의 아동, 청소년, 성인 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함.

<표 3-8> 무주군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참여 인원/연인원)

구분		진원반디길마을	호룡불마을	반햇소	정원산책
무주종합복지관				12/24	12/24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114	114
지역 아동 센터	만나지역아동센터	32/128	32/32	32/32	32/32
	솔로몬지역아동센터		26/26	26/26	26/26
	행복홈스쿨지역아동센터		24/24	24/24	24/24

주1)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농장으로 오는 청소년은 반복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매회 변동하므로, 연인원만 집계함.

주2) 8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참여자 현황임.

-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은 4개소이며 각 농장의 특성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함.
 - 농작물이나 가축을 돌보는 농업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분적으로 체험하는 내용을 위주로 구성
 - 진원반디길마을: 시설원예(토마토) / 3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 기획
 - 호룡불마을: 노지원예(오이, 콩, 고구마, 옥수수)
 - 반햇소: 축산(한우 사육, 가공) / 6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 기획
 - 정원산책: 화훼 / 3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 기획
-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과 참여자가 속한 사회복지 및 청소년 교육기관 이외에도, 무주군 안성면 공동체활성화지원단, 관내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조력자로 참여함.

40 사회적 농업 실천 현황: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 관계자들이 매월 사회적 농업 관련 협의 모임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고, 8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모임을 개최함.

□ 사업 성과

- 지역 농업 경영체들의 돌봄, 교육 농업 프로그램 기획·운영 역량 확인의 계기가 되었음.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무주군의 농업 경영체들은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비교적 풍부한 편인데, 이 사업을 계기로 관광 목적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돌봄이나 교육 측면에서의 농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함.
- 사회적 농업의 지역사회 저변을 확대하게 되었음.
 - 농업을 통해 지역에서 돌봄이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농업의 취지와 실천을 무주군 지역사회 내에 알리고 저변을 확대하는 데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둠.
 - 무주군 종합복지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지역아동센터 3개소와 농업경영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새로운 활동을 모색한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의 일자리 제공 가능성을 확인함.
 - 무주군 종합복지관에서 참여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노동통합(일자리 제공)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프로그램을 진행
 - 축산 경영체인 반햇소는 축산물 가공시설을 갖춘 곳인데, 2회기 동안 참여한 성인 발달장애인(20대~50대)들이 중장기적으로는 농장에 고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중
 - 무주군 종합복지관에서는 농작업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경증 수준의 발달장애인 위주로 참여자를 선정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지역아동센터에서 참여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아동 및 청소년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아동 및 청소년 돌봄을 수행하지만, 그 돌봄 활동을 구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지역사회의 농업 자원을 활용한 것이 거의 없었던 실정임.

“아이들이 산책활동을 하고 들어오면서 기분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예쁜 꽃을 꺾어 자랑하는 아이도 있었고 들어오는 길의 국화 화분에 관심이 많아 질문을 쏟아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5가지 꽃색 중 한가지는 “포인트E” 라고 써있었는데 비밀의 색이라고, 꽃이 피어봐야 알 수 있다고 하자 흥미를 보이며 절반정도는 이 화분을 선택했습니다. 화분에 이식하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심느냐, 흙은 이정도면 되느냐, 바닥의 흙을 넣어도 되느냐” 등 활동을 하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고, 자신이 심는 것이 잘된 것이냐며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친구, 원하는 색이 있는데 꼭 그랬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겠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친구들이 느낌을 나타내는 그림에 고스란히 보여졌습니다. 활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좋았다, 신이 난다고 표현한 이○○, 라벨을 꽃은 화분을 그린 김○○, 모종삽으로 흙을 퍼담는 그림을 그린 우○○, 파란빛이 도는 꽃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글로 마음을 표현한 송○○, 느낌이 좋았다는 김△△, 그리고 아주 멋진 일러스트를 그린 우△△, 개미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한 신△△ 등 아이들이 집중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회기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아이들의 정서에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목표로 진행이 되면 어떨까하는 생각으로 수업을 마쳤습니다.”

-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한 9월 11일 프로그램 일지 중에서, 프로그램 진행 강사 작성.

○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 확대가 뚜렷함.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의 청소년이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설립한 기관으로 무주군에 소재하고 있음.
- 학기 중에는 1주~2주, 방학 중에는 2주~3주 기간의 캠프를 운영하며, 전국의 각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캠프 기간 중에 인터넷드림마을이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함.
- 인터넷드림마을 측과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관점 차이 등을 좁혀나가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와 인터넷드림마을에서 오는 참여 아동 및 청소년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임.

2.7. 영광군,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

□ 사업 추진 실적

- 영광군의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고령 농업인 대상의 일자리 제공, 귀농인 정착의 플랫폼 제공, 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농업·농촌 이해 교육 등이 추진되었음.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도 함께 투입되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 동락점빵도 부분적으로 함께 참여함.

42 사회적 농업 실천 현황: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표 3-9> 영광군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내용 및 실적

활동	내용	실적	비고
고령 농업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농장조성 및 영농교육/실습	- 여민동락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모싯잎 재배 및 모시떡 가공 일자리 사업의 시장환경 변화,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여 노동 강도가 덜한 작목으로 전환 준비 차원에서 야생화 재배 단지 조성	비닐하우스 2동, 노지 1,000평	여민동락 자체 재원과 영광군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조성
	- 야생화 모종 생산을 위한 고령 농업인 교육훈련 및 가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18회 (35명, 연인원 630명)	야생화 파종, 포트묘 재배, 야생화가공제품(비누 등) 제조 등에 관한 학습
교통불리 벽오지 고령 소농 생산물 판매 플랫폼 구축	- 대중교통 수단이 운행하지 않는 오지 마을 고령 영세 농업인의 생산품(콩, 잡곡 등) 수집 및 판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	2개 마을 (10농가, 3회)	농산물 선별, 포장 요령 등 교육, 여민동락영농조합이 수집해 '사회적협동조합 동락집빵'에 판매
귀농인 정착 교육 및 지원 플랫폼 구축	- 수시로 농기계, 작물재배 등에 관해 가르쳐줄 멘토 농업인 소개 및 연결	귀농인 2명	수도작 1명, 야생화 1명
아동, 청소년 농업·농촌 이해 교육	- 관내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업 또는 농촌 복지 분야 진로 탐색 기회 제공	10명 (10명, 총 9회 연인원 90명)	지역이해 교육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농업학습

□ 사업 성과

○ 고령 농업인이 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영농기반 마련 및 삶의 질 개선에 도모함.

- 야생화 모종을 집중적으로 생산·판매함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확보함.
-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과는 무관하게 여민동락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르신 일자리 마련을 위해 수행했던 모싯잎 재배 및 모시송편 가공사업은 상품시장환경이 악화됨.
-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모싯잎 재배에 종사하던 노인들이 더 고령화되면서 적합한 노동강도의 일자리가 필요해진 상황임.
- 여민동락공동체 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을 창립해 야생화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스타일의 농작업에 적응해야 할 고령농의 재배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진행함.
- 영농기반과 재배기술 습득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19년부터는 어느 정도 생산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2~3년 후 계획대로 생산성 수준을 이룬다면 연간 9,000만 원 정도의 조수입을 달성하리라 예상되며, 이는 25명~30명의 고령농에게 매월 25만 원의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임.
- 아울러 단순히 일자리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비롯하여 식사 제공 등의 일자리에 기반한 돌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고령 농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함.

- 고령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 기반을 마련하는 단초를 제공함.
 -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고령의 영세소농 어르신이 아주 최소한의 금전이라도 확보하려면, 시장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생산한 소량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이미 지역 판매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 동락점빵과 협력하여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이 고령 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출하할 기반을 마련 중임.

- 지역(영광군 묘량면)의 지속가능한 유지 기반 마련의 가능성을 확인함.
 - 영광군 묘량면의 지속가능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적 자원을 외부에서 수혈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됨.
 - 이런 문제의식에서 귀농·귀촌인을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정착을 지원하며, 영광군 안에서도 지역의 위기에 대한 인식과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할 상황임.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귀농인 정착 교육 및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과 관계를 맺으면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함.

- 사회적 농업 실천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됨.
 - 여민동락공동체가 조성한 여타 조직들(여민동락공동체, 동락점빵, 깨움마을학교)을 협력 네트워크 안에 포함함으로써 수행하고자 하는 사회적 농업 사업들과 관련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함.
 -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장을 방문하여 농작물 재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2.8. 해남군, 야호영농조합법인

□ 사업 추진 실적

- 해남군 야호영농조합법인에서는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농업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자 기획함. 절기별 농사·가공 체험 및 꾸러미 판매, 다문화 여성의 문화예술교육 강사로의 육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되 이주 여성 출신국의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곱 부뚜막 프로그램 등을 추진함.

44 사회적 농업 실천 현황: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표 3-10> 해남군 야호영농조합법인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내용 및 실적

활동	내용	실적	비고
절기별 농사·가공 체험 및 꾸러미 판매	- 이주 여성 대상 농사 및 가공 교육 - 재배한 농산물 및 가공제품을 꾸러미 형태로 판매	꾸러미 판매	
다문화 여성 문화예술교육 강사 육성	- 대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거주 이주 여성을 문화예술 강사로 육성 - 문화예술 공연 개최	다문화 네트워크 공연 개최	
일곱 부뚜막	- 해남꾸러미 회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여성의 모국 음식과 한식이 접목된 식당 운영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단 개발	도시락 판매 일곱 부뚜막 식당 운영	- 새로운 식당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관계로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행사와 연계한 식당 운영 및 도시락 판매

□ 사업 성과

○ 이주 여성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적 농업을 기획, 실천함.

- 야호농장의 사회적 농업은 전적으로 이주 여성에 맞추어져 있으며, 농업 영역(주로 가공과 판매)과 문화 영역으로 구분함.
- 농업에서는 제철 농산물로 신선한 꾸러미를 구성하고, 콩 수확물로 된장 가공, 배추 수확물로 김치 가공을 체험하며, 직거래 친환경 장터를 시범 운영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추진함.
- 문화 영역은 다양한 문화가 표현되는 그림책, 공예, 놀이 등을 융합하여 다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파견 교육을 실시함.
- 이와 더불어 농업과 문화를 융합하여서 일곱 부뚜막(농산물을 다문화 요리로 만들어 파는 식당) 운영, 갤러리 전시 등 다문화와 한국문화가 만나 제3의 특별한 문화(일종의 퓨전문화)를 창조하여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의 다문화 관광 공간을 설계함.
- 일곱 부뚜막에서 진행한 케이터링 도시락, 선물세트를 통해 일정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다문화 여성의 소득원 확보에 기여함.
- 기존 한국 사회의 적응만을 강조하는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에서 발전하여, 각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주 여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주체가 되어 지역 기반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다문화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

○ 지역 주민의 이주 여성 및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

- 지역 축제와 행사, 각종 회의 등에 도시락 판매 및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다문화 여성의 활동을 알리는 동시에 사회통합의 기회를 제공함.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함.
 - 야호농장은 2011년부터 해남에 정착해서 농사와 문화·교육 활동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협력했던 지역 기관을 활용해서 사회적 농업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순조롭게 확보함.
 - 시범사업이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가족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협력 기관이 포함, 하지만 해당 기관들의 협력 내용이 전체 사업에서 최소화되어서 실질적인 사업 목표 달성에 제한적으로 기여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2.9. 청송군, 해뜨는농장

□ 사업 추진 실적

- 청송군의 해뜨는농장에서는 청년의 농촌 정착을 위해 진로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천을 도모하는 사회적 농업을 기획함. 특히 이 과정에서 도시민 청년이 농업 일자리를 얻고 자리잡는 성과를 거둠.

<표 3-11> 청송군 해뜨는농장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내용 및 실적

활동	내용	실적	비고
청년·청소년 농업체험교실	- 농업 관련 진로체험 및 직업 체험 기회 제공 -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	- 사과 농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가공·생산 교육	
청년 농촌 정착 교육	-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 마을 협의체 조직을 위한 교육 - 주민과 청년 간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학습 모임 운영	- 청년 2인 지역 전입 - 농촌공동체회사 창업 추진 - 청년 숙소 완공	
지역 축제 기획단 및 직거래 장터 운영	- 청년 농업 기획자들이 연 2회 네트워크 모임을 팜파티 형태로 운영	- 경북 우체국쇼핑 직거래 장터 참석 - 플리마켓 참석	

□ 사업 성과

- 농장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업 및 농촌 정착에 관심을 가진 청년을 교육함.
 - 2013년부터 농대생들이 농업 실습을 오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청년들의 농업 실습 및 농촌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함.
 - 일당에 비해 청년 노동력의 질은 다소 부족. 하지만 농촌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교육에 중점을 두고 농장을 운영함.
 -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청년 2명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46 사회적 농업 실천 현황: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에 참여하여 농업 교육을 이수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및 정주 기반을 제공받아 청송에 정착

- 독립적 농업 경영체 육성과 경영체 간 협력 확대를 추구하여 청년과 기존의 농업 경영체 모두 상호 도움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함.
 - 청년들이 농촌에서 정착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함.
 - 청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목표는 지역사회에서 청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독립적인 경영체로 육성하는 것에 있음.
 - 해뜨는농장은 유통사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향후 청년들이 독립하게 되면 유통 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양한 정책·사업과 연계한 청년들의 초기 정착 지원 기반을 마련함.
 - 다양한 정책 정보 제공을 통해 청년들이 부족한 토지와 자본 문제에 대한 지원 추진, 청년들이 교육과정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숙소 완공
 - 이 외에도 청년들의 학습과 정착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청년 귀짜방 사업을 통해 목공, 사진 등을 테마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도모
 - 농촌공동체회사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여 교육·실습 중인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3.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대상 모니터링 결과 요약 및 시사점

3.1. 모니터링 주요 결과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의 성과 요약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여자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농업 실천의 효과를 확인함.
 - 2018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던 9개 지역에서 각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시범사업 지역별 가시적 성과를 확인함.
 - 예들 들어, 충북 보은의 경우 기존 복지관 프로그램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참여자의 새로운 흥미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전북 임실에서는 외부활동을

기피하였던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외 행사에 참여하는 등 참여자들의 가시적인 행동 변화를 확인하였고, 그 외 지역에서도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성과를 확인함.

- 충남 홍성의 행복농장 사례의 경우 사회적 농업 실천과 관련한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달 장애인 대상의 농업 재활 모형을 정립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됨.

○ 지역사회 발전의 관점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의 기여 가능성을 확인함.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농업 실천을 매개로 한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들이 나타남.
- 교육 프로그램 관련 지역 학교의 협력(충북 제천, 충남 홍성), 장애인, 아동 돌봄과 관련한 복지관 및 관련 주체와의 협력(충북 보은, 전북 완주, 무주), 일자리 및 농업 생산과 관련한 지원기관과의 협력(전남 영광, 경북 청송)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관련 협력(전북 임실, 전남 해남) 등 시범사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다양한 지역 단위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향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 역할로써 사회적 농업 실천의 가능성을 보여줌.

○ 사회적 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함.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을 통해 시범사업 지역 외에서도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려는 농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신문, 방송 등의 매체와 사회적 경제 박람회 등 행사들을 통해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의 실천 사례들이 소개되었고,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이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추진 지역을 방문하는 등 사회적 농업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함.

○ 시범사업 참여 주체들도 사회적 농업 실천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변화와 성과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농업 생산 활동 외에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데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다양한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의 성과와 함께 향후

48 사회적 농업 실천 현황: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함.

□ 지역사회의 협력 연결망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할 때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은 대부분 농촌 지역사회 내부로부터 동원해야 하므로, 사회적 농장을 지지하고 관여하는 지역사회 내 연결망(network)을 형성하는 일이 중요함.

- 잠재적 사회적 농업 서비스 참여자 접촉 및 선정
- 돌봄농업의 경우, 사회적 농업 활동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구성
- 사회적 농업 서비스 참여자 모니터링 및 평가
- 사회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 농업인 외 스태프 참여
- 사회적 농장의 영농기반 등 물적·기술적 자원 확보
- 사회적 농장의 산출물(농산물 등) 판매

<표 3-12> 사회적 농업을 지지하는 지역사회 내 사회적 인프라 현황

지역	서비스 참여자 접촉	프로그램 및 서비스 구성	서비스 참여자 모니터링, 평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진행 인적 자원	사회적 농장의 물적, 기술적 자원	사회적 농장 농산물 판매 지원
제천시	간디학교	간디학교	-	간디학교 월악상생포럼	-	-
보은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	-
홍성군	충남정신건강센터 금마중학교 장곡초등학교	젊은협업농장 충남정신건강센터	충남정신건강센터 금마중학교	마을학회 젊은협업농장 옥계열매농장	농업기술센터	홍성유기농 영농조합
완주군	협동조합이랑 문화예술협동조합	문화예술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랑	협동조합이랑	두레농장	완주군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
임실군	범죄자피해지원센터 삼성 여성의 쉼터	한국원예복지협동조합	한국원예복지협동조합	임실군원예치료사협회	-	임실군 전주시
무주군	무주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인터넷드림마을	인터넷드림마을 공동체활성화 지원단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공동체활성화 지원단	공동체활성화 지원단	-	-
영광군	여민동락공동체	-	-	여민동락공동체, 깨움마을학교 야생화영농조합법인,	농업기술센터	-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농조합법인 해남에다녀왔습니다	-	야호문화나눔센터	-	해남꾸러미
청송군	경상북도 경북대학교	-	-	헬로파머, 팜타스틱, 경북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	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

○ 시범사업 대상지 9곳마다 사회적 농업을 지지하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인프라 형성 수준은 상당히 차이남. 아직까지 전반적으로는 매우 빈약한 수준임.

- 돌봄농업을 주요 활동 내용으로 삼은 사회적 농장들은 서비스 참여자(장애인 등)를 접촉하고, 초기부터 지역사회 내의 기관·단체와 협의해야 프로그램화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음.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계기로 비로소 그 같은 협의 구조를 만드는 일부 터 착수한 지역으로 보은군, 완주군, 무주군을 들 수 있음.
 - 홍성군 행복농장의 경우, 정책지원 사업을 시작하기 몇 년 전부터 충남정신건강복지센터, 홍성군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협력해 활동을 해왔음.
 - 완주군의 경우, 2018년 상반기에 결성한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 연합조직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지역 내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분야 협동조합, 고산면의 청년 농업인 집단,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등이 이미 그 연합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여서 협의구조를 형성하기가 비교적 용이했음.
 - 영광군의 경우,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이 묘량면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 분야에서 상당히 폭넓게 활동을 전개해 온 임의단체 ‘여민동락공동체’로부터 파생된 농장이어서, 서비스 참여자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았음.
 - 보은군과 무주군의 경우 지역 내의 사회복지기관, 아동청소년 돌봄기관 등을 접촉하여 협의 구조를 새로 형성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보은군의 경우 사회적 농장(농업회사법인 성원)이 직접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가 협의를 시작했고, 무주군의 경우 ‘안성면공동체활성화지원단’이 협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였음.
 - 임실군의 경우, 서비스 참여자가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이 아니어서 전주시의 관계 기관과 직접 접촉하여 협의를 시작함.
 - 해남군의 경우, 야호해남영농조합법인의 관계자가 지역 내 다문화가구의 결혼이민여성들과 개인적인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어서, 그 연결망이 서비스 참여자를 확보하는 데 기반이 됨.
 - 제천시와 청송군은 농업에 진입하려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농장임. 제천시의 경우, 제천 간디학교와의 협의를 통해서 서비스 참여자를 확보하려 노력 중이며, 청송군은 지역의 경계를 벗어나 경상북도 내 농과대학들과 형성한 연결망을 기반으로 서비스 참여자를 확보함.
- * 보은, 무주, 해남, 제천 등의 경험을 근거로 살펴보면 사회적 농장이 단독으로 서비스 참여자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함. 특히, 사회적 농업 실천에 관한 이해(理解)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초기 접촉과 협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사회적 농장에서 진행되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일에서도 지역사회 내 사회적 인프라가 작동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음.
 - 장애인 등을 농장으로 초대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그들을 돌보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협력이 필수적임.
 - 참여자의 농장 활동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일은 사회적 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돌봄기관 종사자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는 데 필수적임. 참여자들이 처음 경험하는 농작업의 종류와 성격, 참여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함.
 - 사회적 농장 측과 사회복지관 등 돌봄기관 측의 초기 만남에서 흔히 나타나는 의견 차이는 농장 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차에 기인함. 특히, 성인 장애인 참여자의 활동과 관련해 농업인 측은 농장 활동을 일종의 직업훈련 또는 노동 경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돌봄기관 측은 참여자 개인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음.

- 참여자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일에서도 프로그램 참여자, 사회적 농장, 돌봄기관 등이 함께하는 공동의 작업이 필요함. 이는 향후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임.
 - 홍성군의 경우, 4박5일 일정의 ‘자연구시 프로그램’이 종료일에 참여자들의 자가 평가 모임을 열고, 종료 직후에 사회적 농장의 농업인과 충남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들이 모여 전체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함.
 - 무주군의 경우, 프로그램의 매 회기마다 참여자 대상 질문지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과도한 작업이라는 평가가 있음. 그보다는 사회적 농장과 돌봄기관 양측의 관계자들이 협의하는 방식의 평가가 더 실제적일 것임.
 - 보은군의 경우, 질문지를 활용하는 등의 모니터링을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복지관 측의 사회복지사 등이 빠짐없이 동행하여 의견을 주고받았고, 그것이 실제적인 평가로 이어져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수정 보완 할 수 있었음.

- 지역사회 내 ‘사회적 인프라’ 또는 ‘협력 연결망’에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사회적 농업 실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직능 영역의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임. 사회적 농업 실천이 널리 확산되지 않았고, 초기 단계인 한국의 상황에서는 농장 내부에서 진행되는 활동 외에도 여러 활동들이 사회적 농장의 뒤편으로 남겨진 상황임.

- 참여자 확보와 모니터링 및 평가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기관 등이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인적자원을 제공하기도 하지만(홍성, 보은 등), 그 밖의 측면에서는 사회적 농장 외부로부터의 인적자원 지원이 거의 없는 형편임.
- 농업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의 경우에도, 영농기반을 준비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영농 경험 및 기술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농장 밖의 여러 행위자들과 다양한 접촉과 공동 활동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임.

□ 사회적 농업 실천의 시행 단위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할 단위는 직접 농업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농업경영체(농가, 농업법인, 또는 법적으로는 농업법인이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사업 시행자들을 선정하였으며, 이 원칙은 사회적 농업이라는 실천의 성격과 실천 주체의 정체성 측면에서 확고하게 견지할 필요가 있음.
 - 농장이라는 물리적 환경 자체가 사회적 농업 실천의 필요조건이며, 사회적 농업 실천이 여타의 사회적 경제 부문 활동과 구분되는 지점임.
 - 한 군데 사업 시행지에서 영농 실천이 사회적 농업의 기본적 요소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않아서 사업 시행 초기에 혼란을 경험하였으나, 현재는 문제가 상당히 해결된 상태임.
 - 사회적 농업은 본질적으로 영농활동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점을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며, 향후 있을 수 있는 사회적 농업 관련 지식·정보 확산, 학습 등의 장(場)에서 충분히 강조해야 할 부분임.
- 농촌 지역사회 내 비농업 부문 직능에 종사하는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과 상호작용이 사회적 농업 실천과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
 - 사회적 농업은 농촌 지역의 ‘사회적 배제 계층’(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농업인의 직접적 관여라는 특징을 지님.
 - 대체로 사회적 배제 계층은 다양한데, 지역사회 안에서도 농업인 계층과 사회적 상호작용은 평소에 잘 이루어지지 않음.
 - 농촌 지역사회 내에 비농업 부문의 다양한 사람, 단체, 기관과의 협력과 상호작용은 사회적 농업 실천 과정의 처음부터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함.

- 가령, 보은, 완주, 무주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돌봄 성격의 사회적 농업 실천은 지역 내 장애인 복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없이는 출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서로 다른 직능에 종사하는 이들이 사회적 농업을 매개로 만나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 즉 네트워크 형성이 사회적 농업 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시간이 많이 걸리며, 구체적인 사회적 농업 실천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각별히 노력해야 할 부분임.

□ 사회적 농업의 실천 유형

- 현재로서는 한국 농촌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을 크게 교육, 돌봄, 일자리 제공 등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임실이나 해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밖에 다른 유형의 사회적 농업 실천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음.
 - 기존의 실천 유형에만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농업 실천도 출현할 수 있게 관련 정책이나 법제에서 충분한 개방성과 유연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교육, 돌봄, 일자리 등의 사회적 농업 실천은 한 곳에서 한 유형의 실천으로만 등장하기보다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유형 간의 논리적 연관 속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무주, 보은, 홍성, 완주 등지에서 보듯이 발달장애인이거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장 활동은 초기에는 단순한 농업체험에서 시작하지만, 이것이 직업재활 성격을 지니는 교육 실천 또는 농장 환경에서의 돌봄 실천으로 진화할 개연성이 높고 그렇게 되게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직업재활 성격의 교육 유형 사회적 농업 실천은 꾸준히 진행될 경우 농업 부문에서의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영광의 사례에서 보듯이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은 일정 부분 돌봄 실천과 결합되어 발전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함.

□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의 역량

- 사회적 농장 내부에서 경제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사이에 일정한 균형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함.
 - 사회적 농업 실천은 농업생산성 극대화에 전념하지 못하고 교육, 돌봄, 일자리 제공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실천이지만, 교육 분야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제공하는 공적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생산 활동에 여전히 바탕을 두어야 하는 실천임.
 -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 실현에 편향되어 역량을 집중하는 경우 사회적 농업 실천이라는 특징이 약화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만 주력하는 경우 농장 자체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음.
 - 추후, 다른 검토와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의 균형이 적절한지를 이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 스스로 균형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이나 돌봄 측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skill)을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아직은 체계화된 프로그램 매뉴얼 자료도 없고, 그렇게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에게 돌봄을 제공하려는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에게 적절한 학습은 필수적임.
 - 시범사업 주체의 사회적 농업 담당자, 지역 내 협력기관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 참여·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업 관련 사전 교육의 필요성이 높음.
 - 장애인이나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농업의 경우 농장 스태프의 기초적인 지식 습득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함.

-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의 일반적, 전문적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학습의 기회는 확충되고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
 - 현재로서는 일방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줄 수 있는 교수자-주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들이 잦은 빈도로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학습 모임 형태의 역량강화 활동이 가장 적절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학습 형식이 되리라 판단됨.

□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원의 내용

-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돌봄농업, 어르신 일자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 대상지에서는 휴게시설 등 물리적 인프라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발견됨.
 - 청년 등 장기간 농업 교육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가 머무를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필요하기도 함.
-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일부 시범사업 대상지는 지자체의 기타 사업이나 농장주의 개인 부담 등을 통해 사회적 농업 관련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음.
 -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 운영비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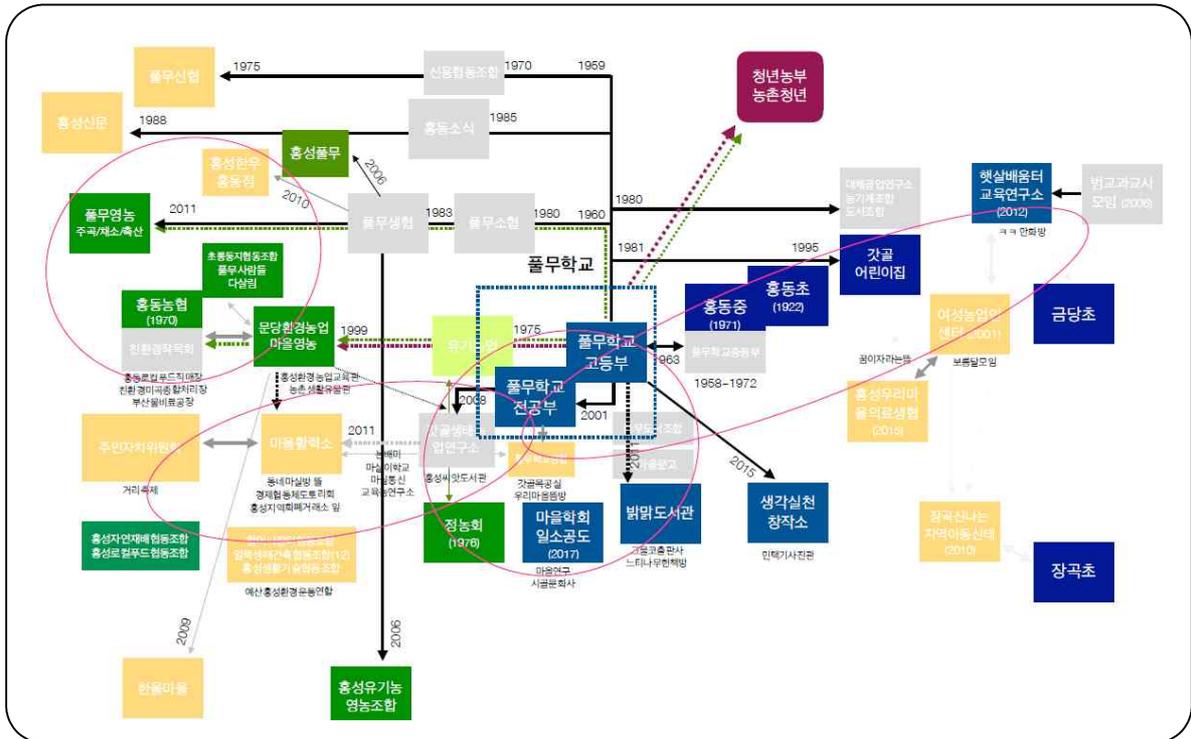
□ 농촌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을 지역사회에 착근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육성정책은 이 실천을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음. 사회적 농업이 지역사회 주민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기관 단체,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그런 파트너십이 상대적으로 더 두텁게 형성된 홍성군이나 완주군 같은 곳이 사회적 농업 실천을 시작하기 쉬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보은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파트너십 관계없이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농업 실천을 시작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음.
- 농장 활동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농업에 관한 인식 저변을 확대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책은 그런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농업을 추진하려는 주체(개인, 조직 등)는 필요한 행위자들을 한데 불러 모을 수 있고,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확보해야 함.
 - 홍성군의 행복농장과 젊은협업농장, 완주군의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처럼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연합체나 연결망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음. 또는 무주군처럼 이른바 ‘중간지원조직’이 초기 단계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음.

* 향후,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사업의 대상자를 찾을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임.

<그림 3-2> 홍성 지역사회 연결망의 형태



자료: 정민철, 2018, “이상촌, 홍동면과 장곡면 사례”, 농촌 유토피아 워크숍 발표자료.

□ 신뢰 관계 형성, 사회적 농업 실천을 준비하는 일

○ 사회적 농업 실천을 성공적으로 전개하는 데에는 지역사회 내의 신뢰 관계가 전제되어야 함.

- 사회적 농업을 하려는 농업인과 돌봄기관이나 농업인 교육훈련 관련 조직 등 여타의 지역사회 조직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사회적 농업 실천을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승인’받기 어려움.
- 사회적 농업 실천을 주도하는 농업인이 신뢰받을 때 지식 및 자원 동원 측면에서 긍정적 관계를 활용할 수 있음.
- 사회적 농업은 개별 프로그램으로서는 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활동임. 농업인이나 주민이 여러 형태로 사회적 농장과 관계를 맺고, 그 바탕 위에서 실천되어야 함.

* 아일랜드의 케리 사회적 농업 프로젝트(Kerry Social Farming Project)는 사회적 농장들을 지지하고 대변할 수 있는 신뢰받는 위치에 있는 농업인 등을 가디언(Guardian)으로 선임하여 진행한 바 있음.

□ 참여적 거버넌스

- 현재로서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9개 지역에 이상적인 형태의 민관 거버넌스가 형성된 곳이 없음. 따라서 사회적 농업 실천과 관련된 지원 정책의 시행 결과를 보고할 체계도 지역 수준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개별 사회적 농장 단위를 확보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우선적인 과제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농업 실천을 확장하려면 지방 수준에서 일정한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사회복지 분야 거버넌스 조직,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의 지역발전 분야 중간지원조직,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회의체 등이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자들임.
 - 농촌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대표성 있는 조직, 지역사회 안에서 특별한 필요를 지닌 사람들을 지지하는 활동들에 관해서 기득권을 지닌 조직 등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이런 거버넌스 조직이 농촌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사회적 농업 프로젝트에 결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여기에 사회적 농장의 대표자, 전문성을 지닌 인물 등이 참여할 때 상당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음.
 - 거버넌스 조직이 탄탄히 형성되어야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재원을 조달받을 가능성도 높아짐.
- 현재로서는 사회적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어서 사회적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참여자를 돌보는 기관, 양자의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지만, 이 파트너십 관계를 거버넌스 조직으로 확장할 전략을 모색해야 함.

□ 사회적 농업 실천의 기술

-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활동의 특성상 실천 행위자에게는 특수한 지식과 기능이 필요함.
 - 농업에 관한 실제적이고 기본적인 지식을 전제로, 돌봄농업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며 청년 농업인 교육훈련을 위주로 하는 사회적 농업의 경우에는 교육자 혹은 학습촉진자로서의 역량도 요구됨.
 - 개인 차원에서 그 같은 역량은 발전적이고 건설적이며 문제해결 능력에 초점을 둔 학습을 통해 신장될 수 있음.
 - 사회적 농장의 농업인은 여러 측면에서 대상자가 누구이든 ‘도제 훈련’ 방식을 주관하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함.
 -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사회 내 조직 및 기관(사회복지기관, 학교 관련 기관 등)의 행위자는 사회적 농업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함.
 - 한편으로는, 사회적 농업 실천이 한 지역에서 여러 농가들이 연대하는 가운데 확산되어야 함을 고려하면, 조정자(coordinator)의 역량을 갖춘 활동가도 필요함.

3.2. 시사점 및 제언

□ 사회적 농업 서비스 참여자의 지속적 참여를 위한 유인 제공

- 사회적 농업 서비스에의 참여 여부는 결국 참여자 개인의 의사결정에 달린 문제임.
 - 사회적 농장에 갈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참여자 개인임. 그런 의사결정은 참여자의 개인적 계획과 무관할 수 없음.
- 참여자의 필요에 맞게 사회적 농업 활동이 구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므로, 정부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농업 서비스 이용자에게 개인화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농장의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 사회적 농업을 실행하는 농업인의 교육훈련 요구가 적지 않게 형성되어 있음.
 - 현재로서는 대체로 장애인, 청년 농업인 등 특별한 요구를 지닌 서비스 이용자에 관해 농업인의 개인적 경험과 전문성을 동원해 사회적 농업 활동을 구성할 수밖에

에 없음.

-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요구 중 주된 것은 특별한 필요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서비스 이용자(참여자)와 함께 ‘일하는’ 태도 및 방법과 관련된 것임.
- 이 같은 교육훈련 과정은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농장 지정 제도 등 일정 수준의 정부 통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조건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임.

□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 개선

○ 사회적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내용이나 농장에 찾아오는 참여자의 변화 및 성취를 기록하는 것은 우선 사회적 농장의 농업인의 몫임.

- 농업인은 사회적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회기(session)에 관련된 정보를 잘 정리해 이력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그 같은 자료가 사회적 농업 실천을 확장하려는 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고, 참여자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는 근거가 될 것임.

* 기록 등의 역할을 인근지역 대학 유관학과 학생들을 활용하여 저변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음. 물론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고려해야 함.

○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니만큼, 정책 추진 과정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중요함.

- 정책 평가의 관점에서 사회적 농업 현장을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몇 년 정도 이 같은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사회적 농업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본 지침 만들기

○ 사회적 농업 서비스 제공자, 즉 사회적 농장의 농업인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가운데 사회적 농업 실천과 관련된 여러 행위자들이 유념해야 할 기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로서는 농촌 지역사회 내에 사회적 농업에 관한 저변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이 농장 활동의 안내자 및 교육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조직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 실천가의 영역인 ‘사례관리’ 비슷한 일까지 수행하기도 함.

- 이는 사회적 농장의 인적 역량에 상당한 부담과 피로감을 부과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농업인이 아니지만 사회적 농업 실천을 지원하는 인적 역량을 확보하면서(조정자, 사례관리자, 기획자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알려주는 기본 지침이 필요함.

□ 사회적 농업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규적 보상 기제 모색

- 사회적 농업 실천이 지속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사회적 농장의 경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임. 사회적 농장도 농장이므로 농업생산을 통한 수입 구조가 안정화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구이지만, 사회적 농업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불가피한 생산성 손실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이에 관한 제도적 보상 기제는 거의 없는 상황이 한국의 현실임. 사회적 농업 실천을 자원봉사 성격의 자발적 실천으로 규정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이 실천의 확장가능성에 제약이 뒤따름.

□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인식 유지

- 사회적 농업 실천이 개별 농장 단위의 프로그램, 특히 일종의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인식되는 경향을 극복하고,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의 집합적 노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함.
 -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농업 실천을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함.
 - 이 측면에서 기존 지역사회 조직 및 단체의 협력 연결망,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및 사회복지 분야 거버넌스가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부각됨.

□ 추가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 및 과도한 규제 억제

- 과도한 간섭이나 규제가 없는 가운데 재정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사회적 농업 실천의 지속가능성에 관건이 될 것임.
 - 사회적 농장이 보건복지부 계통의 공적 지원을 받는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의 사회복지시설 형식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며,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음.
 - 자활의 경우,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농업 영역에 참여하는 데에 제약을 받고 있음.

60 사회적 농업 실천 현황: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 정부의 여러 부처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는 것, 민간 부분의 재정 지원 수혜 기회를 확장하는 것 등이 중요한 과제임.

□ 사회적 농업 실천 촉진자 육성과 일자리 창출

- 사회적 농업 실천에 조력할 여러 직능의 촉진자가 필요함. 즉, 지원 활동가 그룹이 필요함.
 - 활동가를 육성하는 일과 지원활동 자체가 일자리가 되어 장기간 동안 사회적 농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일이 아주 중요함.
 - * 활동가 육성은 사회적 농업 현장에서의 경험에 철저하게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므로, 사회적 농업 실천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현장에 활동가 육성 기능을 갖춘 기관을 두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4장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 유형 및 정책 수요

1.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 구상

□ 사회적 농업의 구성 요소

- 주체 - 운영 주체의 형태에 따라 개인, 기관, 제3섹터로 구분하거나, 조직의 특성에 따라 가족기반, 지역사회기반, 전문가기반, 서비스 수혜자 기반 조직 등으로 구분
- 활동 - 사회적 농업의 주요 목적 및 내용에 따라 ‘고용’, ‘교육’, ‘돌봄’ 등으로 구분
- 서비스 대상 - 단일한 그룹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다수의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으로 구분
 - * 농업의 비중 - 농장의 주 활동에 따라 농업 중심 및 돌봄 등 서비스 중심 활동으로 구분

□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 구성 요소 및 유형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체, 네트워크 형성, 농업의 비중, 핵심 서비스 내용에 따라 사회적 농업 구분이 가능함.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대상의 모니터링 결과에 바탕을 두어 주체와 활동 내용 등의 차이를 중심으로 5가지의 유형으로 잠정 구분할 수 있음.

62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 유형 및 정책 수요

- 이러한 유형화의 의미는 앞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후발 주자들이 모델로 삼아 사회적 농업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상정한 것임.

○ (주체 및 네트워크) 사회적 농업 주체 유형

- 개별 농업 경영체
- 지역사회 기반 조직(사회적협동조합, 사회서비스 관련 기관 등)

○ (사회서비스 내용) 농업을 매개로 한 사회서비스 내용

- 장애아동·청소년 등 장애인 대상 돌봄 서비스
- 지역 아동, 청소년 대상 농촌 체험 및 농업(진로) 교육
- 귀농·귀촌, 청년 대상의 농업·창농 교육 및 농촌 정착 지원
- 다문화,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일자리 및 소득 지원 활동

○ (농업) 사회적 농업 활동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및 위상

- 농업 및 농업 기반 다각화 활동(가공, 체험 등) 중심
- 농업 생산을 매개로 돌봄·교육·사회적일자리 등 사회 서비스 제공 중심

<표 4-1>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대상지 구분(안)

주요 활동 내용	사회서비스	주체 유형	
		개별 농업 경영체	지역사회 기반 조직
주요 활동 내용	돌봄	유형 I 보은, 임실	유형 II 홍성, 완주, 무주
	교육	유형 III 청송, 해남	유형 IV 제천
	고용	유형 V 영광	-

□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 유형별 실천 사례의 특성

○ 유형 I: 개별 농업 경영체의 돌봄 서비스 제공(보은, 임실)

- 실천 형태: 개별 농업 경영체가 사회서비스 주체와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실천 동기: 농업 경영체의 개인적 동기에 의해 사회적 농업 실천을 시작
- 시범사업 대상 모니터링 결과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협력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사회적 농업 추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농업 경영체의 돌봄 서비스 및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

<표 4-2> 개별 경영체의 돌봄 서비스 제공 사회적 농업 실천 특성(보은, 임실)

	내용
프로그램 기획	· 원예치료 등 기존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 농업 실천을 기획(임실) · 농장주의 개인적인 결심과 지역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기획·준비(보은)
대상자 모집·선정	·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복지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 · 농장의 규모, 프로그램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규모 선정
프로그램 운영 인력	· 농장 인력 외 대상자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협력 기관(복지관 등)의 인력 도움을 받음(보은). · 조합 경영체 경우 조합원 중 사회복지사, 원예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임실) · 발달 장애인(보은)의 경우 장애인의 이동, 관리, 관찰을 위한 인력이 다수 소요
시설·인프라 구축	· 전문적인 돌봄 기관이 아닌 까닭에 프로그램 대상자(장애인, 노인 등)맞춤형 시설·인프라가 미비 · 프로그램 시작 단계에서 관련 시설·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음.
농장(생산·경영) 관리	· 농장 규모에 따라 농장 관리를 위한 별도 인력 필요 · 농장 내 별도의 인력을 두거나(보은),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과 별개로 경영체 운영을 위한 농업 생산활동 수행(임실)
프로그램 대상자 관리	· 프로그램 대상자의 이동은 복지관 등 기존에 대상자가 이용하던 기관의 도움을 받음 ·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대상자 보호·돌봄(발달장애인)과 대상자 변화에 대한 관찰(일지 작성 등) 또한 협력 기관의 도움을 받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경영체의 기존 활동 등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단위(행정, 전문가, 주민 등) 협의체가 구성·운영
지역주민과의 관계	·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개별 경영체가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지역 주민의 도움을 받음. 임실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 준비 등에 있어 지역 주민의 도움을 받고, 주민들은 작은 소득을 올림.

○ 유형 II: 지역사회 기반 조직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홍성, 완주, 무주)

- 지역사회 기반 조직이 지역 내 농업 경영체 및 사회서비스 주체를 조직화 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사회 기반 조직이 지역 내 농장과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중개하여 사회적 농업을 추진
- 시범사업 대상 모니터링 결과 유형 I 에 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원활한 편임.
- 사회적 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농장, 인력 등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표 4-3>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돌봄 서비스 제공 사회적 농업 실천 특성(홍성, 완주, 무주)

	내용
프로그램 기획	· 농촌의 지역 중간지원조직(완주, 무주), 돌봄 관련 주체(홍성)가 사회적 농업 실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필요한 주체 들의 자발적 참여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 농업 실천 추진 · 지역에 따라 지역(마을, 공동체 등) 활성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준비(완주, 무주) ·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농장의 경우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완주-두레농장 임대, 무주-지역 내 다수의 참여 농장 확보, 홍성-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농장 확보)
대상자 모집·선정	·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상자가 속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기 운영중인 기관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모집(완주-이 랑협동조합, 무주-지역아동센터 등)
프로그램 운영 인력	· 중간지원조직과 대상자 관련 지역 기관의 인력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시설·인프라 구축	· 두레 농장(완주) 등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
농장(생산·경영) 관리	· 농업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지역 주민, 농가의 참여로 이루어짐.

(계속)

	내용
프로그램 대상자 관리	· 프로그램 대상자의 이동은 복지관, 지역이동센터 등 기존에 대상자가 이용하던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음. ·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대상자 보호·돌봄(발달장애인)과 대상자 변화에 대한 관찰(일지 작성 등)은 협력 기관의 도움을 받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사회적 경제 등 기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 · 사회적 농업 관련 지역 단위 협의체 등이 구성·운영되며,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 수준이 높음.
지역주민과의 관계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부터 지역 주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설계,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 대상자 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 등의 효과를 꾀함.

○ 유형 III: 개별 경영체의 농업 및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및 농촌 정착 지원(청송,해남)

- 개별 경영체가 농업 및 농업 관련 다각화 활동을 중심으로 청년, 귀농·귀촌인 대상의 일자리 제공 및 농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 생산활동이 사회적 농업의 핵심 활동이며, 농업 및 다각화(가공, 체험) 관련 인프라와 역량을 갖춘 경영체를 중심으로 농업 교육 가능
- 청년,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농촌 정착과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

<표 4-4> 개별 경영체의 농업 교육 서비스 제공 사회적 농업 실천 특성(청송, 해남)

	내용
프로그램 기획	· 사회적 농업 주체들이 해오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기획 (청송: 대학생 멘토링→청년 정착 지원, 해남: 문화 활동→이주 여성 정착 지원)
대상자 모집·선정	· 주체들의 기존 활동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
프로그램 운영 인력	·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적 농업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운영 ·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주체들의 조력을 받음
시설·인프라 구축	·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되, 주거(청송), 상품 가공(해남) 관련 (지자체)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거나(청송), 지역 내 공간을 활용(해남)
프로그램 대상자 관리	· 사회적 농장 인력이 프로그램 대상자를 관리 · 이동의 문제는 없으나, 농장 운영과 프로그램 대상자 관리를 농장 인력이 담당해야 하는 까닭에 어려움이 있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프로그램 기획 및 초기 단계에서 사회적 농장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만 작동했으나,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단위 네트워크로 그 범위를 확장
지역주민과의 관계	· 사회적 농업 대상자가 지역과의 통합이 필요한 특성이 있으며, 이에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포함(청송: 지역 주민 가구 수리, 해남: 지역 행사 케이터링 및 문화 행사 개최 등)

○ 유형 IV: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농업 교육서비스 제공 및 농촌 정착 지원(제천)

- 지역사회 기반 조직이 농업 및 농업 관련 다각화 활동을 중심으로 청년, 귀농·귀촌인 대상의 일자리 제공 및 농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 지역 내 학교, 교육기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청년,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농촌 정착과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

<표 4-5>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농업 교육 서비스 제공 사회적 농업 실천 특성(제천)

	내용
프로그램 기획	· 지역 학교(제천간디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 대상의 농업 체험·교육·진로 프로그램 기획
대상자 모집·선정	· 지역 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경영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외부(귀농·귀촌 희망자) 대상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인력	· 사회적 농업 주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의 인력을 확보
시설·인프라 구축	· 지역 내에서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생산기반(토지 및 시설 등) 확보
프로그램 대상자 관리	· 프로그램 운영 인력과 학교에서 대상자를 관리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사회적 농업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기관 들간 협력관계를 구축
지역주민과의 관계	·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소농의 농산물 판매를 돕기 위한 활동들을 병행

○ 유형 V: 개별 경영체의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제공(영광)

-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해 농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제공
- 농업을 영위하는 자활기업 및 사회적 기업이 이에 해당
- 취약계층 고용에 따른 경제적 보상 필요
- 작업 환경 등에 대한 고민 필요

<표 4-6> 개별 경영체의 취약계층 대상 고용 제공 사회적 농업 실천 특성(영광)

	내용
프로그램 기획	· 주체의 기존 활동 연장선상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고령인) 대상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
대상자 모집·선정	· 지역 주민 중 관련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 고령자 및 귀촌인을 대상으로 선정
프로그램 운영 인력	· 지역 내 기관(더불어삶사회적협동조합, 야생화영농조합법인)과 협력하여 대상자 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시설·인프라 구축	· 경영체의 기존 공간을 활용하고, 토지는 임대 · 작업을 위한 시설 및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조성해야 하지만,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함을 겪음.)
프로그램 대상자 관리	· 경영체에 소속된 사회복지사가 실무자로 참여하고 있어, 대상자 관리, 사례 기록 등을 수행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상자 모집, 농업생산, 판매 등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및 협동조합 등 지역 내 주체들의 도움을 받음. · 고령인 대상 사업인 까닭에, 보건소,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지역주민과의 관계	· 지역 주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 포럼을 기획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행정상의 이유로 포럼 미개최).

2. 사회적 농업 실천 유형별 정책 수요

□ 유형 I: 개별 농업 경영체의 돌봄 서비스 제공(보은, 임실)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추진 상의 특징

- 농업 경영체 대표의 개인적 동기에 따라 사회적 농업 실천을 결정하였으며, 기존 활동을 통해 사회적 농업 관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거나,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내 사회복지 기관과의 협력관계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
- 사회적 농업의 시작 단계에 있는 경영체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관찰·기록 등이 특히 중요한데, 이는 개별 농장의 역량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복지관 인력 등 외부 인력의 참여가 필요함.

○ 정책 수요

- 보은군 성원농장의 경우 장애인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농장 내 대상자 맞춤형 인프라 구축이 필요
- 개별 농업 경영체의 경우 본래 농업활동과 사회적 농업 실천을 병행해야 하는데 사회적 농업 활동을 추진하는데 따른 기회 비용을 측정하여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됨.
- 보은, 임실 두 지역 모두 농장의 안정적인 운영이 당면한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농장 운영(경영) 상의 개선이 공통 과제로 제시됨.
- 협력 주체와의 관계 설정 및 기능 분담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 돌봄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농업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며, 반대로 농장의 경우 돌봄 서비스 대상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돌봄 서비스를 위해 참여하는 협력 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유형 II: 지역사회 기반 조직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홍성, 완주, 무주)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추진 상의 특징

- 사례 지역 모두 지역 내 이미 구축된 사회적 경제, 농업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농업 활동을 추진하거나 확산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운영함.

- 유형 I 에 비해 지역 내 협력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필요한 자원(인력, 농업 기반 등)을 구득하고, 지자체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덜한 것으로 나타남.
- 완주군의 경우 지역 내 두레 농장을 활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했으며, 홍성군 행복농장 또한 농업기반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지원에 기반하고 있음.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자로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참여 모델, 로컬푸드 등 지역 내 판매와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도입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농업 추진 가능성을 보여줌.

○ 정책 수요

- 사회적 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농장, 인력 등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지원에 기초해야 함.
- 무주군의 경우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운영의 많은 부분을 전라북도 과소화인력지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인력지원단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사회적 농업 사업 추진의 지속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갖추는 것이 과제로 제시됨.
- 돌봄 서비스와 관련하여 유형 I 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농업 관련 주민, 담당자들의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 유형 III: 개별 경영체의 농업 교육서비스 제공 및 농촌 정착 지원(청송, 해남)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추진 상의 특징

- 농업 경영체의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사회적 농업 실천 대상(청년, 이주여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학습 공간으로서 농장을 활용하는 사회적 농업을 추진함.
- 청년에게 제공하는 임금에 비해 청년의 노동력 질이 부족하지만, 농업·농촌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교육을 실시함.
- 청년을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만큼, 농업 교육 프로그램 이후 일자리 연계나 창농과 같이 독립적 농업 경영체 육성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이 중요함.

○ 정책 수요

- 교육을 이수하는 동안 대상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주거·교육·실습 공간 필요

- 농장과 서비스 참여 대상자 간 소통 뿐만 아니라, 서비스 참여 대상자 간 협력을 통해 공동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필요
- 일자리, 청년 창농 지원, 이주여성 지원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구상·운영 필요

□ 유형 IV: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농업 교육 및 농촌 정착 지원(제천, 완주)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추진 상의 특징

- 지역 내 교육기관과 연계한 농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 중이며, 전문적인 농업 교육을 위한 인력 확보 및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농촌 정착 지원의 경우 제천 및 완주에서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는데, 귀농·귀촌 희망자의 기대 수요와 사회적 농장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거나, 기존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의 차별점이 부각되지 않아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남.

○ 정책 수요 및 과제

- 전문적인 농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장시설, 교육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농촌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은 기존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의 차별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귀농·귀촌 교육 희망자에 대한 수요 파악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를 들면 지역 주민과의 협력관계 형성, 공동체 활동을 병행하는 가운데, 농업 교육 및 농촌에서의 생활을 사전에 익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임.

□ 유형 V: 개별 경영체의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제공(영광)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추진 상의 특징

-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해 농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시범사업 주체의 경우 기존 지역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을 사회적 농업의 틀로 수정하여 추진함.
-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비용 등의 어려움이 따르게 되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자활기업 및 재활시설의 농업 생산 활동 또한 이러한 유형에 해당될 수 있음.
- 취약계층(노인, 장애인)이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기관의 개입 및 협력이 필요함.

○ 정책 수요 및 과제

-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의 중복 수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요양서비스 수급자 중 5급 정도로 거동이 가능한 경우나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급여와의 중복 수혜 문제로 인해 사업에 참여할 동기가 떨어짐.
- 취약계층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있음.

※ (참고사례) 자활기업 및 재활시설의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

- 2017년 등록된 1,092개의 자활기업 중 31개 기업이 농축산물 생산·가공에 참여하고 있음.

<글상자 7> 서천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운영 영농사업단 사례

서천지역자활센터는 2010년부터 영농사업단을 운영하였다. 지역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 주민 20명과 함께 시작하였고, 서천군 중천면에 위치한 하우스 13동과 노지 5,000평을 임대하여 농작물을 재배했다. 영농사업단은 2015년에 자활기업 서래뜰로 창업했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한산모시재배사업단을 운영하였다. 서천군에서 무상으로 한산면의 논 6,000평과 밭 7,000평을 임대해 주었다. 밭에서는 대부분 모시를 재배했다. 2018년에 출범한 복합영농사업단은 기존 한산모시재배사업단이 사용했던 농지를 그대로 사용하며 모시재배와 더불어 감자, 단호박 등을 생산한다. 현재 13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천지역자활센터는 한산모시재배사업단에서 생산하는 모시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2013년에 한산모시재배사업단과 더불어 모시가공사업단도 함께 운영을 시작했다. 이 사업단에서는 한산모시재배사업단에서 생산한 모시를 가공하고 모시떡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모시가공사업단은 2017년까지 운영되다 2018년에 모시뜰협동조합으로 창업했다.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공식블로그와 서천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자활센터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 결과를 정리함.

70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 유형 및 정책 수요

-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며 최종적으로 이들의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 농촌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단의 하나의 유형으로 영농사업단을 운영

<표 4-7> 농축산물 생산·가공 참여 자활기업 목록

지역	자활기업 명	업종
부산 강서구	신라농원	농산물생산·가공(채소)
대구 동구	행복하게 동구	축산물생산·가공(육가공)
광주 북구	푸른밭야채하우스	농산물생산·가공(채소)
광주 광산구	달구치고	축산물생산·가공(육가공)
안성시	맞춤다육자활기업	농산물생산·가공(식량,곡물)
춘천시	협동조합 참담갈비	축산물생산·가공(양계)
속초시	해맑은농장	축산물생산·가공(양계)
영월군	외갓집마당	농산물생산·가공(화훼)
정선군	눈꽃마을버섯농장	농산물생산·가공(식량,곡물)
청주시	거북이농장	농산물생산·가공(식량,곡물)
보은군	아름농장	농산물생산·가공(채소)
단양군	무지개영농	농산물생산·가공(식량,곡물)
서천군	주식회사 서래뜰	농산물생산·가공(채소)
예산군	두레마을영농조합법인	농산물생산·가공(채소)
예산군	자활영농조합법인	농산물생산·가공(채소)
익산시	산들농산	농산물생산·가공(식량,곡물)
남원시	되살림	축산물생산·가공(양돈)
무주군	푸른꿈농장	농산물생산·가공(식량,곡물)
임실군	탱글농원	농산물생산·가공(채소)
영암군	만수자연농장	농산물생산·가공(채소)
합평군	나비버섯	농산물생산·가공(식량,곡물)
경주시	착한농사	농산물생산·가공(채소)
칠곡군	아리흑염소	축산물생산·가공(기타)
칠곡군	해피블루	농산물생산·가공(과실)
봉화군	(주)땅파는까망떼지	축산물생산·가공(양돈)
울진군	우리들영농기업	농산물생산·가공(식량,곡물)
진주시	허브줍사람들	농산물생산·가공(식량,곡물)
함양군	당내미골사람들	농산물생산·가공(식량,곡물)
거창군	한빛농장	농산물생산·가공(과실)
서귀포시	행복한영농	농산물생산·가공(채소)
대구 남구	행복하게협동조합(광역)	축산물생산·가공(육가공)

자료: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농업 활동을 매개로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직업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

-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 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41조)
- 장애인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장애인 복지법 제41조)

<글상자 8> 교남어유지동산: 장애인근로사업장의 농업 사례

교남어유지동산은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에서 설립·운영하는 기관이다. 교남재단은 한 사람의 장애인이 태어나고,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노후의 삶을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중 교남어유지동산은 청·장년기 장애인들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다. 다양한 직업적응훈련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을 목적으로 직접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사업체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향상을 통해 직업재활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4만여㎡의 부지에서 각종 채소류 및 식용작물을 재배하고, 일부 품목은 가공을 하여 판매한다. 교남어유지동산에는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발달장애인 35명이 있다. 여기에 오는 장애인 대부분은 인터넷, 관공서 게시판 광고, 지인 소개 등으로 처음 이 곳을 알게 된다. 이들이 지원한다고 해서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접도 보고,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평가도구를 가지고 체크를 한다. 그 후 3주 정도 훈련 기간을 갖고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거쳐서 이를 이겨낸 사람은 정식으로 입사를 시킨다. 매월, 반기, 연간으로 처음 대비 직업 숙지도 등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고 상담일지도 작성한다.



자료: 김정섭 외(2017)의 사례 조사 내용을 요약

72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 유형 및 정책 수요

<표 4-8> 농업 활동 참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명(소속법인)	농산물
파주시	교남어유지동산(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	오이, 토마토, 배추, 콩, 수세미 등
광주 북구	요셉행복일터(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집)	새송이버섯
안성시	혜성일터(사회복지법인 혜성원)	화훼
인천 옹진군	장봉혜림보호작업장(백십자사)	고구마, 감자, 단호박 등
여주시	신록장애인보호작업장(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화훼
광주시	참벗보호작업장(사회복지법인천주교진우리)	화훼
파주시	우리자리(사회복지법인주내자육원)	파프리카, 화훼
춘천시	밀알일터(천주교춘천교구사회복지회)	유정란
춘천시	희망의일터(천주교춘천교구사회복지회)	감자
제천시	살림터(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허브
정읍시	자애자립장(자애복지재단)	새송이버섯
안동시	나눔공동체(유은복지재단)	새싹채소
안동시	천등산보호작업장(안동에명복지촌)	표고버섯, 마
울진군	푸르미작업장(고우이복지재단)	표고버섯
창원시	참좋은F&D(사회복지법인해강복지재단)	콩나물

주: 교남어유지동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애인보호작업장
 자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홈페이지

제 5 장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

1.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

□ 사회적 농업 정책 추진의 근거

- 사회적 농업이란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통합하는 농업 실천’이라고 요약할 수 있음.
 - “급여를 받는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가령, 지적·신체적 장애인, 재소자, 약물중독자, 소수자, 이주민 등)의 노동통합을 지향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 교육, 돌봄을 촉진하거나,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한 집단에 대해 농촌지역에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농업 실천”(Iacovo and O’Connor 2009: 11).
 - 일자리 제공, 돌봄, 직업 교육훈련 등의 분야에서 농업 활동을 매개로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것임.

- 이러한 사회적 농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타 농업·농촌정책과는 특징적 차이를 가짐. 그간 농정의 목표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등과 같이 산업이나 공간의 혁신과 성장을 지향함. 그러나 사회적 농업은 농업·농촌이 지니는 다원적 기능이나 공동체적 가치를 수단 삼아 소위 사회적으로 배제된 약자 계층을 포용하고 통합하는 실천을 지향하므로, 사람 중심 농정 패러다임 자체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음.

- 문재인정부에서는 사회통합을 국가적 과제로서 다루고 있음. 더욱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81번째 과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의 주요 내용에 사회적 농업이 정책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사회갈등의 분출, 불안한 생애과정, 각자도생으로 인한 불안과 분노를 넘어서 공존과 포용의 공동체를 실현”(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9)
 - 2018년에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은 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 * ‘사회적 농업 육성법’ 제정안 발의(2018.12.27,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정책의 비전과 목표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특히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농촌형 사회적 경제조직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으며 공동체 활동에 기반한 고용도 창출될 수 있음. 또한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치유·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확대함. 나아가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농업도 보다 체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2018년 9개소 대상의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의 외연을 2019년에는 18개소로 확대, 이후 정부가 지원하는 농장의 범위를 100개소까지 목표로 삼을 수 있음(송미령 외, 2017).
-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별 추진 과제를 고려할 수 있음.
 - 먼저, 사회적 농업 정책의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관련 정책과 조율 및 연계가 필요함. 정책이 실제로 접근해야 할 영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부분적으로 이미 시행되는 관련된 기존 정책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음.
 - * 예: 노동통합형 사회적 농업 실천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이 이미 지원하고 있음.
 - 둘째, 농촌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 여건을 조성해야 함. 특히 농업인과 다른 직능에 종사하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농업을 매개로 취약계층 등에게 일

자리, 돌봄, 직업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을 논의·구상·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의 확장에서 더 나아가 농촌의 사회적 경제 조직 협력 네트워크 안에서 사회적 농업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실험과 실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사업이 유연성과 포괄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함.

- * 로컬푸드 등 농업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 실천 영역에 사회적 농업을 연계
- * 농가의 물적 여건이 불비한 상황을 고려하면, 네덜란드의 돌봄농업 실천 농가 사례들처럼 개별 농가 수준에서의 사회적 농장 경영을 확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러 주체들이 협력하는 구조 속에서 사회적 농업 주체를 형성해야 함
- 셋째, 법제 정비도 필요함. 사회복지 및 사회적 경제 관련 지원 정책·제도와 결합된 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법률 제·개정이 요구됨.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고자 함.
 - * 네덜란드에서는 돌봄 농업 서비스에 대해 사회보험 급여를 제공하도록 제도화
 - * 이탈리아는 농촌에서의 일자리 제공,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사회적 농장)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제3섹터 방식의 정책 추진체계 일반화

<그림 5-1> 사회적 농업 활성화 정책의 비전과 목표

비 전	◆ 사람 중심 농정 실현: 사회적 농업을 통해 함께 사는 따뜻한 포용 농촌 실현		
목 표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 확대 ◆ 사회적 농업 실천 여건 조성 및 농촌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 ◆ 법제 정비와 농업계 내외에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단계별 주요과제	기반조성	도약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장 확대(18개소) •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성과지표 개발 • 지원센터 설치 • 법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장 확대 • 분야별 거점농장 운영 • 사회적농업교육홍보자육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장 확대 (100개소) • 등록제 도입 • 커뮤니티 케어 등 복지 제도 연계 추진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정책 추진 전략

○ 사회적 농업 실천의 확산 전략

- 초기 단계에는 정부가 사회적 농업 실천을 위해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을 일부 메꾸어줄 수 있도록 정책 사업 등을 통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참여를 촉진
- 이 보조금 지원은 인프라 정비, 보조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경상운영비 지원 등 모니터링 결과에서 제시된 다양한 형태로 구성
-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시장 확보를 통해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조달시장 형성 및 진입을 지원
- 공동 브랜드 구축 및 사회적 인식 확장을 포함한 사회적 농업 인지도 제고
 - *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인을 사회적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공무원의 이해도 제고
 - * 다양한 재능을 가진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의 사회적경제 교육을 신설하고 사회적 농업 활동 소개
 - * 현장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농장을 등록하고 복지·고용 등이 연계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의 추진
 - * 등록된 사회적 농장에 대해서는 복지·교육·고용 등의 영역에서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 추진

○ 사회적 농장의 체계적 육성

- 사회적 농장의 단계적 지원 및 확산을 위해 기존의 사회적 농업 지원 외에 예비 사회적 농장 단계 및 거점농장 도입
- 사회적 농업 활동에 진입하려는 농업법인에 교육·행사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예비 사회적 농장’ 단계 운영
 - *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농장을 대상으로 교육·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사회적 농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존 사회적 농장 중 사회적 농업 실천 분야별 ‘거점농장’을 지정하여 사회적 농장에 대한 교육네트워크 중심 기관으로 운영함으로써 타 사회적 농장 등을 견인
 - * 일본 교토부는 지역별 거점농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장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 사회적 농업 실천을 위한 다층적 네트워크 구축

- 농촌지역 수준에서 협력 연결망 및 거버넌스 구축
 - * 지역 내 주민·복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및 사회적 농장 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지자체 및 지역농협 등이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독려
 - * 네트워크 구성원 간 사회적 농업 활동 시 협력하고, 기타 지역사회 문제 논의 및 생산품의 상호 구매·판매가 이루어지는 장 마련
 - * 분야별 거점 농장을 중심으로 지역 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동 학습을 주도하여 사회적 농업 실천 역량 강화
 - * 지역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거점 농장을 중심으로 하되 유관 조직이나 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확보
- 전국 수준에서 사회적 농업 주체 간의 연결망 형성
 - * 거점 농장과 네트워크를 맺은 복지·교육·보건 기관 등과 신규 사회적 농업 활동 희망 농장들 간에 연결망 형성
 - * 현재 시범사업 주체들간의 사회적 농업 협의체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 * 분야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상자(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 제고, 운영 방식 공유 등 사회적 농장의 전문성 강화
 - * 사회적 농업 사업비 및 상향식 학습조직 지원사업 활용하여 세미나 개최
- 전국 및 지역 단위에서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
 - * 사회적 농업 협의체에 농식품 유관기관 및 지역 대학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사회적 농장과의 교류 강화
 - * 유관기관 지원 사업 연계 및 대학 사회복지 전공자 등의 유입 유도
 - * ‘사회적 농업 진흥재단’ 등의 형태로 온·오프라인 병행해 관련 정보의 교류 거점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사회적 농업 지원 시스템 구축
 - * 교육 교재, 활동 지침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의견 청취 및 전문가 컨설팅 풀을 구성하여 농장 운영 지원
 -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및 가족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하여 사회적 농장의 부당 행위 방지
 - * 지자체(시·군)의 사업 이행점검 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및 가족 의견 청취 포함(반기별)
 - * 사회적 농업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각 농장의 사회적 농업 방향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 지원 추진

78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

○ 사회적 농업의 경제적 지속성 확보 방안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데는 물리적 인프라, 인력 양성, 네트워킹, 경상비 등 제반 재정 지원이 필수적임. 특히 경상비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 인력 양성과 훈련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배려
 - * 사회적 농장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에 대해 사업비 등 지원
 - * 사회적 농장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전문분야(회계·세무) 바우처 운영 및 인건비 지원사업 연계
 - * 지역의 유희시설을 사회적 농장이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연계 추진
- 사회적 농업에 대한 자원봉사, 기부, 기업, 사회공헌 활동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
 - * 제4섹터(자원봉사, 사회공헌 부문)의 전국 수준 참여 및 후원 활동 등
-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연계 및 사회적 농장 생산물에 대한 생산자-소비자 연대 전략 강화
 - * 사회적 농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농장의 생산품을 홍보하고 판매 사이트와 연결
 - * 생산에 참여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개와 사회적 농업 활동 취지를 설명하여 스토리와 상품을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
 - * 공영홈쇼핑 중간광고, 사회적 농업 생산품에 대한 클라우드 펀딩, 사회적 농장의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홍보 방안 추진
- 사회적 농업 농산물이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아동센터, 공공급식 등을 통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유도(푸드플랜과 연계 등)
 - * 먹거리 선순환체계 내에 사회적 농장이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독려
- 농림축산식품부 및 유관기관 행사를 활용하여 사회적 농업 생산품 홍보

○ 사회적 농업 실천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제도 개선 및 홍보에 활용할 사회적 농업 관련 연구 지속 추진
 - * 사회적 농업 성과 연구를 통해 성과 지표를 개발하여 사회적 농업 성과 관리·분석에 활용
- 사회적 농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적 지원의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농업계, 농업·복지전문가, 언론과의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농업의 중요성과 근거법의 필요성을 공론화

- * 주요 내용: 사회적 농업 정의, 정부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등
- 사회복지, 교육, 고용 등 사회적 농업과 연관성 있는 법제 및 정책의 활용
 - * 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농촌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 연계
 - * 지속적·안정적 지원을 위한 복지제도 연계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삶의질위원회 분과위 등을 통해 복지부·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추진
 - * 사회적 농업은 대상자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가 각 분야에 다양하게 존재
- 사회적 농장의 홍보·컨설팅 등 사업을 지원할 지원센터 설치
 - * 기존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의 역할을 농업·농촌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지원 기능으로 확대
- 농업인 육성, 창업, 창직, 귀농·귀촌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농촌 일자리 창출

2. 사회적 농업법 제정(안) 초안 및 관련 법제 정비 방안

2.1. 사회적 농업 육성법 개요

□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 제정 취지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은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최종 목표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
-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의 발전경로와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합헌적인 근거, 법률 근거가 필요함.
 - 기존 법률로는 이와 같은 정책적 필요성에 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향후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 및 개정 등이 필수적임.

□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 제정 시 검토 사항

-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 제정에 앞서 관련 분야의 기존 법률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라는 목적에 적합한 법 형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특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하는 방안과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일법을 제정하는 방안 중에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인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함.

2.2. 사회적 농업 육성법 내용 및 참고조문

□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 체계

-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은 총 5개 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개 조문을 제안하는 것으로 구성함.

<표 5-1>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 체계 및 조문

장	조	조문의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사회적 농업 육성법'의 목적 규정
	제2조 (정의)	주요 개념("사회적 농업", "취약계층", "사회적 농장")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회적 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
제2장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정책	제4조 (사회적 농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5년마다 사회적 농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무와 기본계획에 포함될어야 할 사항 등
	제5조 (사도별 사회적 농업 지원계획 수립)	제4조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사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의무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제출
	제6조 (사회적농업육성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사회적 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사항, 구성 등
	제7조 (실태조사)	사회적 농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
	제8조 (홍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의무 규정
제3장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등	제9조 (교육훈련)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 및 위탁
	제10조 (사회적 농장의 지정)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농장의 지정, 지정표시 및 유사표시 금지
	제11조 (재정 지원)	지정 사회적 농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12조 (경영 지원)	지정 사회적 농장에 대한 경영적 지원 및 위탁
	제13조 (시설 등의 지원)	지정 사회적 농장에 대한 국유 및 공유재산, 물품의 지원
	제14조 (판로 지원)	지정 사회적 농장에 대한 판매 촉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판로 지원
	제15조 (조세감면)	지정 사회적 농장에 대한 조세 특례
	제16조 (보고 등)	지정 사회적 농장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보고의무 및 이에 관한 공표, 서류제출명령, 평가, 시정명령 등
제4장 보칙	제17조 (지정취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의한 지정 사회적 농장의 취소사유 및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절차 등
	제1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가능성
제5장 벌칙	제19조 (과태료)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 부과절차 등
부칙		시행일

□ 제1조 목적

- 헌법 및 기존 법률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 규정에 근거
 -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제2조에서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특히 제10조 제2항에서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및 이와 관련된 복지혜택을 위해 노력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
 - 「사회적 농업 육성법」 역시 이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무관하지 않음.

○ 내용 및 참고조문

<표 5-2> 법률 목적에 관한 내용 및 참고조문

조	내용	참고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적 농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123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 제2조 정의

- 사회적 농업, 취약계층, 사회적 농업 주체(사회적 농장)에 대한 정의
 - 사회적 농업은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 때 취약계층이 누구인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밖에 사회적 농업의 역할과 특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 체계의 통일성과 각 법률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기에 적절한 방법임.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고령자, 장애인, 청년, 결혼이민자 등 상당히 광범위한 계층을 ‘취약계층’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로는 귀농이나 귀촌하여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자, 돌봄과 교육 대상으로서 사회부적응 아동이나 소외계층 아동, 지역 아동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음.

○ 내용 및 참고조문

<표 5-3> 사회적 농업 정의 내용 및 참고조문

조	내용	참고조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농장”이란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조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 민간 주체 중심으로 사회적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직접적인 법의 목적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사회적 농업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함.
 - 민간 영역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률 다수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같이 국가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회적 농업 육성법」은 민간에서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며, 각 사회적 농업 주체가 구체적인 목표로 삼는바(예컨대 장애인을 위한 교육 등)도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한 상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함이 바람직함.
- 유사한 사례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비롯한 다음의 법률 조항이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내용 및 참고조문

<표 5-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내용 및 참고조문

조	내용	참고조문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농업지원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3조

□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 사회적 농업 육성 기본계획

-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관점에서의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사항을 다룰 필요가 있으며, 유관 법률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주체, 주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법률로 정함.
- 사회적 농업 육성은 국가가 직접 사회 서비스의 주체로 나서기보다는 사적 주체의 활동을 촉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과 유사하며, 동 법 제11조 제2항 각호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비롯한 협동조합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권(「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 제5항 참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나 의견 요청(「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 제3항),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국회에 제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게 알릴 의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4항, 동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 제4항) 등을 들 수 있음.

○ 시도별 지원계획

-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함.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맞추어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유형의 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기도 하고(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 수립 주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음(예를 들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5항).
-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법률에서 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및 제3항).
- 그밖에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함.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정책의 기본 방향, 구체적인 정책 목표, 조세 감면 등 지원책, 자원 조달 계획 등 사항이 시·도지사 차원의 계획에 포함됨.
- 그밖에 대통령령을 통하여 지원계획 수립 또는 변경 과정에서 거쳐야 할 심의 등 절차 및 관계 기관에의 사후 통보와 같은 절차를 정할 수 있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계획을 주무부 장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사회적 농업 육성위원회

- 기본계획 등 해당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회적 농업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본 법안에서 제안하는 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의 경우, 주무부 장관 소속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사회적 농업 육성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성격이 유사한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를 참조(글상자)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법률로 정하는 범위 외에 사회적 농업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사회적 농업 육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의 경우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모두 다루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비하여 그 소관 사무의 범위가 다소 좁으므로, 20인보다 적은 인원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설득력이 있음. 대통령령을 통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함.
-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으로 중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농업 실태조사

- 사회적 농업 분야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태조사 규정이 필요함.
-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은 다양하며 각 법률마다 실태조사가 의무인지 여부, 실태조사의 주기 등에 관해서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각 법률을 참고하여 사회적 농업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 사회적 농업 분야의 국민 참여 및 의식 제고를 위한 목적에서 홍보 활동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유관 법률에서 정부의 홍보 활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녹색생활 문화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직접적, 포괄적으로 정부의 의무를 적시하는 방법에 해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는 정부의 홍보 방식에 대하여 더 적극적이거나 상세하게 규정하는 사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며, 여기에는 홍보 영상 제작, 학교 교육 영역에서의 실천 등을 포함하도록 직접 법률에서 명시

○ 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사회적 농업의 건전한 성장과 확산을 위해 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

육·훈련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 사회적 농업이 민간의 자발적 활동이며 국가의 역할은 이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정부에서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가 바람직함.
- 유사한 사례로 다음의 법률을 고려할 수 있음.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 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환경부 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내용 및 참고조문

<표 5-5> 사회적 농업 육성 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내용 및 참고조문

조	내용	참고조문
제4조(사회적 농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회적 농업 육성 정책을 총괄하고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농업의 인력양성, 재정지원, 교육, 홍보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정보교류, 산업간 연계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연구,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
제5조(시·도별 사회적 농업지원계획 수립)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 농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6조(사회적 농업 육성위원회)	①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사회적 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농장 등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농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 농업 육성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업, 농촌, 복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의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계속)

조	내용	참고조문
제7조(사회적 농업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6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8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9조
제8조(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
제9조(교육 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회적 농업의 확산과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사회적 농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의2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의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사회적 농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사회적 농장의 지정

- 사회적 농장 중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각종 지원의 대상이 되는가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며, 이 사실을 문자 등으로 표시하여 대외적으로 해당 조직이 정부의 지정을 받았다는 점을 알릴 수 있음.
- 지정, 인증, 인가 등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면 다수 국민의 신뢰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 직접적인 재정 지원, 농장 경영상 필요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지원, 기타 혜택 등을 규정
-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재정 지원 가능성 명시
- 주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영 지원(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 명시
- 지정 사회적 농장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국유·공유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의 지원 가능
- 사회적 농업이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농업을 통하여 생산한 물품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이를 위해 시장과 판로를 넓히기 위한 활동 지원을 규정

-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조직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돕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해당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며,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음.
- 특정 유형의 조직을 육성할 필요성, 또는 그러한 조직이 갖는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조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이러한 조직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음. 조세 감면은 아니지만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제99조의 사회적 협동조합 재산에 대하여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규정도 참고할 수 있음.

○ 사회적 농장의 의무(보고)에 관한 사항

-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정은 곧 이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므로 지정 사회적 농장의 경우 일정한 사항을 국가에 보고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며, 지정 사회적 농장의 관리, 감독을 위한 일정한 권한(시정 명령권 등)이 필요함.
- 지원을 전제로 사회적 농장의 사업보고서 제출 및 평가, 기타 업무에 필요한 보고 및 관계서류 제출 명령권, 시정 명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사회적 농장 지정 취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등을 취소하여 국가의 지원이나, 국가로부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정 등을 받은 조직이라는 점에 대한 표시를 상실하게 이행하도록 함.
- 「사회적 농업 육성법」이 제정된다면 청문 절차 등 지정 취소 당사자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절차 등 구체적인 절차와 지정 취소 사실을 공표하는 방법, 지정 사회적 농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받았던 지원의 환수 여부와 범위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농장 지정 및 지원, 의무에 관한 내용 및 참고조문

<표 5-6> 사회적 농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내용 및 참고조문

조	내용	참고조문
제10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 농업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적 농장(이하 "지정 사회적 농장"이라 한다)은 지정 사회적 농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지정을 받지 아니한 사회적 농장은 지정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지정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협동조합기본법 제3조, 제85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

(계속)

조	내용	참고조문
제11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 사회적 농장에 대하여 사회적 농업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협력관계 구축비, 취약계층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시설개선비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 제10조의2, 제95조의2 및 제99조
제12조(경영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 사회적 농장에 대하여 농업 경영기술·세무·노무·법률·회계 등에 대한 자문과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 제6조, 제10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시설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정 사회적 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노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5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도서관법 제32조
제14조(판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정 사회적 농장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최 및 참석,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지정 사회적 농장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
제15조(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정 사회적 농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보고 등)	① 지정 사회적 농장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10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 사회적 농장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서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지정 사회적 농장의 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8조, 제9조 및 제12조 협동조합기본법 제96조, 제96조의2 및 제111조
제17조(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정 사회적 농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농장 및 그 운영주체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정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제113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

□ 보칙 및 벌칙에 관한 사항

○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다양한 권한과 업무 중 일부는 시·도지사 또는 관련 단체에 위임 혹은 위탁함으로써, 해당 권한을 행사하거나 사무를 수행할 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 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중 사회적 농장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지정 사회적 농장의 사업보고서에 의한 평가 및 그 후속 조치인 시정 명령 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가능함.

- 경영 지원이나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영역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수 있음.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116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 중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 지원이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 실태 조사 또한 위탁을 고려할 수 있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여성기업 현황에 관한 중소기업부 장관의 실태 조사 업무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례가 있음.

○ 과태료에 관한 사항

- 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에서 부여하고 있는 의무 위반에 적용 가능함.
- 이 법안의 중요한 의무인 지정 사회적 농장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금지(유사한 예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 2호,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 제1항 2호 참조), 사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위반(유사한 성격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 제2항 2호 및 3호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 명령 위반(「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 제2항 제4호의 과태료 부과 사유와 유사), 시정 명령 위반(「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2호,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 제1항에서도 시정 명령 위반을 과태료 부과 사유로 적시하고 있다)의 경우를 과태료 부과 사유로 정할 수 있음.

○ 보칙 및 벌칙에 관한 내용 및 참고조문

<표 5-7> 보칙 및 벌칙에 관한 내용 및 참고조문

조	내용	참고조문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 협동조합기본법 제116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0조의5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에 위반하여 지정표시 등을 사용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부과 및 징수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6조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

2.3. 사회적 농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과제

○ 유사 기능(치유농업) 관련 법안과의 중복성 검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관련하여 올해 9월 19일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농업, 농촌의 자원 및 산출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진흥시키는 개정이 이루어짐.
- 해당 개정의 목적으로는, 2015년 목표 식량 자급률은 57%임에 반해 실제 자급률은 50.2%로 목표 자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곡물자급률 목표 30%에 비해 실제 자급률은 23%에 그치고 있어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국가 차원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 확대와 고기능성 식품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 및 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 모델의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함이었으며, 그 구체적 조문내용은 다음과 같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의2(치유농업의 진흥) 정부는 농업, 농촌의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 강원도에서는 이미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활용을 도모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하여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 서비스”란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재활, 회복, 건강증진 등에 맞게 설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치유농업 사업자”란 치유농업을 통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2. 치유농업 정책개발·추진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4.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등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실태조사·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치유농업 사업자 신청 및 선정) 치유농업 사업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술 및 교육지원)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발전 및 치유농업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치유농업사업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업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사업자로 선정·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부서로 하여금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치유농업사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치유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회원은 치유농업관련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치유농업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도농업기술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협의회 회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당연직 회원은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대하여는 회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회원을 해당 안전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⑥ 회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⑦ 협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회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회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회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회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⑧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4156호, 2017.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회적 농업과 치유농업이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하더라도 그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 영역 주체들이 혼동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과 이와 같은 규정들과의 조정도 앞으로의 과제임.

참고문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 2017.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김광선·김정섭·심재현·정도채·임지은, 2017.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2018.8.3.,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민신문.
- 이정해, 2017. “유럽의 사회적 농업: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사례, 한국의 농업 현실과 사회적 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미간행.
- 정민철, 2018. “이상촌, 흥동면과 장곡면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유토피아 워크숍 발표자료.
- 요시다 유키사토(吉田行郷) · 코시바 유리에(小柴有理江) · 이시바시 토시나리(石橋紀也), “기업이 출자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농업분야 진출의 의의와 과제”,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 이시바시 토시나리(石橋紀也) · 코시바 유리에(小柴有理江) · 요시다 유키사토(吉田行郷), “농업 분야에서 장애인 취업 추진을 위한 지역의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 Assouline, G., 2015. *The French social farming model under pressure: The role of a territorial network like ASTRA*. Paper presented in AgUrb 2015 Conference. Roma.
- Chovanec, T., Hudcová, E., & Moudrý, J. 2015. *Social Farming: A document prepared in the framework of the Working Committee for Social Farming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Ministry of Agriculture of the Czech Republic.
- Crowley, C., O’Sullivan, S., & O’Keeffe, B., 2017. *An Evaluation of Kerry Social Farming 2017*. Ireland: Commission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Rural Areas.
-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2.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n ‘Social farming: green care and social health policies’*. Brussels: EESC.
- Fazzi, L., 2011. “Social Co-operatives and Social Farming in Italy”. *Sociologia Ruralis*, 51(2), 119-136.
- Iacovo, F. D. 2009. “Introduction”, in F. Di Iacovo and D. O’Conner (Eds.),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Toscana: ARSIA.
- Iacovo, F. D. and O’Connor, D.. 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Toscana: ARSIA.
- Hassink, J.. 2009. “Social farming across Europe: overview” in F. Di Iacovo and D. O’Conner(eds.).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Toscana: ARSIA.

<웹페이지>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http://www.cssf.or.kr/new_home/main.asp

서천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 <http://cafe.daum.net/scgjahwal/PY32>

한국농어촌공사 공식블로그 <http://blog.daum.net/krcpolicy/2987>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홈페이지 <http://www.kavrd.or.kr/kavrd/>

참고1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정리⁶

1 제천 농촌공동체연구소

○ 사업계획 변경

- 지역 내 귀촌인, 신규 진입 귀농인, 제천간디학교 졸업생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 세부 내용 재편
- 제천간디학교 등과 학생 진로 관련 농업교육훈련 사업을 추진

○ 2018년 사업계획 추진 상황

- 귀촌자 사회적 농부 프로그램(덕산면 거주 귀촌인 대상 영농 교육 및 소통): 짬채 소 파종 및 정식, 정기적인 모임 진행
- 지역정착 희망자 농부 프로그램(덕산면으로 이주해 귀농할 의향이 있는 도시민을 정기적으로 초대해 영농실습, 지역 내 작목별 전문농가와 멘토링 결연): 의향자 5명 면담, 계속 모집 중
- 학생 사회적 농부 프로그램: 제천간디학교 농업실습을 농촌공동체연구소의 두레농장에서 실천적으로 진행케 하려는 목적으로 학교 측과 협의 완료, 두레농장 상근 인력 확보
- 할머니텃밭 생산물 판매 지원: 진행 중
- 월악상생네트워크 구축 운영: 정례적인 모임 진행 중

○ 관찰자 의견

- 귀촌자 사회적 농부 프로그램은 월악두레농장을 중심으로 해오던 것으로 차질 없이 진행
- 지역정착 희망자 농부 프로그램은 제천시 덕산면에 귀농할 도시민을 섭외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단기간 내에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⁶ 이 모니터링 결과는 김영란 교수(목포대학교), 이민수 교수(한국농수산대학), 정민철 대표(젊은 협업농장), 조미형 박사(함께하는 연구협동조합), 채종현 박사(대구경북연구원)와 연구진이 각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를 인터뷰한 결과와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

- 2018년 7월 사업계획을 변경할 당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계획 수정 내용은 월악 두레농장을 본격적인 영농실습의 중심 장소로 재편하기 위해 간디학교와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농장을 책임지고 운영 관리할 상근인력을 확보하는 일이었음. 간디학교와 협의는 마무리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근인력 1명을 확보함. 덕산면에 거주하는 간디학교 출신 청년들을 대상으로 영농실습 및 다양한 교육 활동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는 일이 남아 있음.
- 할머니 텃밭 생산물 판매 지원 사업은 최소한의 규모로 진행되고 있음. 추후, 평가와 더불어 새로운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덕산면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과 협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네트워킹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
- 전체적으로 지역 내 여러 주체들과의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진해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에 포함된 개별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실행하는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치밀하지 못한 기획이 눈에 띄기도 함.

○ 사업 추진 성과

- 귀농인, 귀촌인, 지역 출신 청년들의 농촌 지역사회에서 농업을 영위하면서 정착해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음.
- 두레농장을 근거지로 삼아 제천간디학교 학생들이 장기간 동안 영농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장 기반과 상근 인력 등 교육과정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중
- 2018년에는 제천간디학교에서 실행하는 농업 관련 교과수업의 일부를 두레농장에서 수행하기 시작했으며(약 20명 부정기적으로 참여), 2019년부터는 농업 수업 전체를 두레농장에 일임하여 진행하기로 학교측과 협의를 마친 상태
- 지역 외부의 귀농 희망자가 장기간 체류하면서 농업을 경험하고 정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10월 중순 현재 3명의 희망자가 이주해 왔으며, 45일 간 머물면서 영농과 농촌 생활을 경험하기로 함. 45일 간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과정을 평가하고 1년 반을 머물면서 정착을 모색하는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
- 덕산면 지역에 귀촌했으나 농업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에 잘 융화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귀촌인들에게 농업을 권유하고 농업을 통한 소득 창출의 가능성을 찾도록 돕는 영농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소농의 농산물 판매를 돕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향후 이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덕산면 이장협의회 등과 협의 중

② 보은 성원농장

1.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방문 조사 내용

1) 1차 방문 (6/1(금) 10:00~12:00)

- 김진영 대표와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본인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모든 프로그램이 농장 일정과 무관하게 계획되어 있어서 농장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 복지관에서 계획하는 프로그램에 의존하다 보니, 실제 김진영 대표님 생각과 달리 사업이 운영될 소지가 다분함.
 - 아직 농장에서 활동할 장애인을 만나지 못한 상태임.
 - 실제 사업기간을 7-11월(5개월)로 해서 실행가능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중임
 - 복지관과 협업
 - 주5회 농장으로 출근할 장애인 5명: 가장 핵심 활동임.
 - 연 4회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 농장에서 운영되는 복지관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
 - * 농장의 1년 스케줄에 따라 장애인들이 농장에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할 것임.
 - * 예산 사용에 대해, 복지관 규정에 의해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 지역 주민이 장애인에게 농사를 가르쳐주고 지원하면 집행이 불가하다고 함. 강사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함.

2) 2차 방문 (6/29(금) 10:00~13:00)

- 참석자: 충북도청 용미숙 팀장, 이재원 주무관, 보은군청 정송민 주무관(점심 식사때 함께 하면서 예산 처리 관련하여 의논함)
보은노인장애인복지관 손영환 부장, 담당 사회복지사 성호준 강사 외 2명 (4-50대 여성): 나미자(도자기), 이름 모름(다육이)
- 농장 상황
 - 꿀벌사장, 옹기사장이라고 부르는 두 분이 농장에서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음.
 - 농장에는 대표 사장(김진영 대표) 이외에도, 옥수수·애호박 사장, 꿀벌사장, 옹기 사장 등 4명이 본 사업에 함께 하시게 됨.

- 6월에 새롭게 합류한 꿀벌사장, 옹기사장은 이 농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3년 동안 월 50만원을 비롯하여 양봉과 옹기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심. 두분의 귀농 안착도 일종의 사회적 농업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임.
- 꿀벌사장님은 텃밭 관리를 담당할 예정이고, 옹기사장님은 아동들과 관련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하실 예정임.

○ 사업 준비 상황

- 7/2~12/20까지 일자별 프로그램 계획이 수립되었음(농장 대표님은 프로그램을 줄이고 싶다고 하셨으나, 복지관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해 보겠다고 하였고 함. 복지관에서도 장애인 자립과 관련하여 사회적 농업 실험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함).
- 복지관에서는 직업훈련, 농업지원, 텃밭/원예 등 크게 세 파트로 구분하여 담당자를 3명 배정하였으며, 작업지원의 경우 농장 활동 전체를 모니터링하면서 기록해야 하는데, 담당자 시간을 이렇게 할애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함. 프로그램은 주 단위로 장애인의 활동 상황에 따라 수정 보완해 가기로 함.
- 직업훈련: 장애인 5-6명이 월수금 10-3시 정도까지 농장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핵심임.
- 지역 노인이 멘토가 될 예정인데, 10-3시는 농사일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라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임. 하우스는 덥고, 텃밭을 활용해야 할 것 같음.
-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별로 참여자들의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예: 관찰일지, 장애아동 부모 FGI를 통한 참여자 변화 파악,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

○ 해결해야 할 사항

① 농장 주변 정리 및 청소 필요

- 불탄 폐가로 인한 외관 등으로 인해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부모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농장에서 일만 부리는 것은 아닌지, 쾌적하지 않는 환경에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을 줘서 참여를 꺼리게 될까봐 걱정임. 김진영 대표님은 사업 시작되면 바로 청소한다고 하시는데, 복지관에서는 지난 4월부터 3개월이 지났음에도 농장의 환경이 변한 게 없어서 걱정이 매우 큼.
- 본 활동에 강사로 참여하실 대표님의 지인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염려를 하면서, 환경운동이나 공공미술을 하시는 분들을 소개시켜 주신다고 했음(자원봉사활동으로 농장 환경 정비를 하는 것을 본 프로그램에 포함시켜도 될 것 같음).

-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대표님은 수리를 좀 하실 생각이라고 하심.
- 복지관에서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농장을 방문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모시고 왔다가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실 수도 있다고 함. 그렇게 되면 복지관은 프로그램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함.

② 예산 집행

-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복지관에서 강사비, 재료비 등을 집행하게 되는데, 복지관에 프로그램별로 총 예산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게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법인카드를 2장 만들어서 농장과 복지관에서 각각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 군청 담당자가 확인해 보기로 하였음. 복지관에서는 법인카드(농장 명의) 2개를 만들어 사용하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었음.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카드 2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함.
- 본 사업이 지속된다면, 특성상 여러 주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므로, 성원농장처럼 농장과 복지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경우 예산 사용에 대한 지침이 필요할 것임.
 - *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음. 군청에서는 바로 사업 결정 공문 내려주겠다고 하였고, 7월2일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1주 정도 늦어질 것 같음. 하지만 복지관에서 농장으로 바로 보내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은 7월2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였음.

○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

- 김진영 대표가 대추농사 수입으로 새롭게 합류한 회원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함. 3,000평 대추 농사도 혼자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새로 온 2명의 식구들과 함께 농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 복지관과 농장의 업무 처리 방식의 차이, 복지관의 농장/농사활동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해 사업을 운영해 가면서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음.

3) 3차 방문: 08/03(금)

○ 장애 아동, 청소년 대상 농업 탐방대 프로그램 운영

- 7/30(1회기: 복지관에서 실시), 2회기(8/1)부터 농장에서 진행하였고, 당일 세 번

째 회기

- 사업 참여자: 중고등학령의 발달장애인 남자 5명
- 이들을 돕는 자원봉사자 청소년 2명, 사회복지사 3명 참여
- 복지관에서 오전 프로그램을 하고, 농장으로 이동하여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



- 이 날 프로그램은 찾았을 볍는 과정까지 복지관에서 실습하고, 농장에서 차를 내려서 마시는 다도 실습교육을 실시
- 이후에 농장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해 준비해 둔 임시 풀장에서 물놀이, 참여자들은 물놀이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사회복지사가 옷 갈아입고 돌아가자고 재촉. 간식으로 준비해 둔 빵을 먹었고, 농장에서 재배한 옥수수를 찌주셔서 맛있게 먹고, 남은 것은 복지관에 있는 다른 청소년들과 나눠 먹기 위해 가져감.



○ 대표 면담

- 8월 2일 사업예산사용 통장을 개설하고 카드 등록까지 마쳤으나, 예산을 사용하려면 e-나라도움을 통해야 하는데, 지자체 담당공무원도 사용법을 몰라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
 - 농어촌희망재단에 연락하여 사업자용 매뉴얼을 구해서 농장 대표에게 전달
- 매일 장애인들이 농장에 오니, 농장일을 할 수가 없다면서 농장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 날은 많이 지쳐 보임. 실제로 장애인들이 농장에 온 이후로, 대표님은 풀장에 물을 받아두고, 다도 교육진행시에도 줄곧 옆에서 함께 함.
- 복지관에서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농장에 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 농장의 시설이 열악하여 다음 주에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여서 대표님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사회적 농업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전달
- 농업탐방대 프로그램은 농장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러기엔 성원농장의 여건이 열악함. 혹서기에 장애 아동청소년들이 농장에 와서 할만한 활동이 없어서 풀장을 구입

○ 모니터링 의견

- 장애인의 사회·직업 재활이 목적이라면, 농장이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느라 농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현재 시범사업은 농장의 소득이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 복지관에서는 농장에서 아이들이 그냥 놀다가 가는 것으로는 안 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복지관의 시스템이 농업 활동을 하는 농장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며, 복지관과 농장이 생각하는 장애인의 농장 안에서의 활동이 차이가 있음을 발견

4) 4차 방문: 11/05(월)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가자 인터뷰

- 농장에 오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함.
- 배추와 무를 심고 팻말을 세워 둔 밭을 보여주겠다고 나에게 안내하기도 함
- 생각을 다듬었는데, 익숙하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음.

○ 금년도 사업 평가 및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회의

- 농장 멘토 4명, 김진영 대표, 복지관 국장과 담당 사회복지사 등 8명이 함께 회의 진행
- 사업비 교부 결정이 8월말에 되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기간은 9월부터라고 볼 수 있음.
- 11월 초(11/5 기준)까지 2,500만 원 정도 집행, 전체 예산 6,000만 원 중에서 균청으로부터 3,000만 원을 1차 교부 받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아직 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
- 10월 중순경 열리는 보은군 대추축제에서 대부분의 대추를 팔았고, 11월 초에 열린 가톨릭농민회 주관 행사인 우리농산물 축제에서도 일부 판매. 대추 농사는 10월이면 종료
- 11~12월에는 농사계획을 갖고 있지 않음.

			
<p>11/4 명동성당 우리농산물축제 참여 모습</p>	<p>각자 이름이 적힌 팻말을 꽂아 놓은 배추밭 모습</p>	<p>①남은 수녀님 부탁으로 모종 포트를 가지런히 정렬해 놓았다.</p>	<p>양파를 심기 위해 밭을 갈고 있다. ①남과 ③여는 직접 농기계를 작동해 보고 있다.</p>

2. 사회적 농업 모니터링 결과

1) 성원농장 상황

○ 농장 경영 현황

- 성원농장의 주소득원은 김진영 대표의 대추 농사 매출
- 2017년 대추 농사 매출이 3,000만 원 정도 되었고, 2018년에는 2,000만 원 정도 예상
- 그밖에도 농장에서는 옥수수과 슈키니도 재배하고, 벼농사도 짓고 있으며, 아직도 밭으로 활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있음.

- 하지만, 불탄 축사가 다소 흉물스럽게 그대로 남아있고, 풀들을 비롯하여 정리되지 않고 버려진 쓰레기들도 있음.
- 최근에는 농장에서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숙소를 건축 중에 있음.

○ 농장 인력 현황

- 성원농장은 사회적 농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때는 김진영 대표(70대 남성)와 농장장(60대 남성) 2명이 농장에서 살면서 농장을 운영
- 이후 6월 중순 경에 양봉을 준비하는 50대 남성(김현철님)과 옹기 굽는 40대 남성이 농장에 합류
- 그래서 사회적 농업 사업을 운영하는 데 중장년층의 참여로 역할을 분담
- 옹기 굽는 사람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몇 달 있다가 현재는 떠난 상태이고, 장애인시설 등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허브 재배 등 농사에도 익숙한 수녀님이 농장에 합류
- 사회적 농업 사업에는, 김현철님(양봉사장), 수녀님, 나미자님(루시공방 대표), 농장장님 등 4명이 주 3회(월, 수, 금) 농장에 와서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장애인 4명의 멘토로 활동
- 초기에는 복지관 직원 1명이 함께 하였으나, 장애인들이 농장에 익숙해지면서부터는 함께 하지 않음. 실제로 농장에서 식사 및 간식도 챙기고, 장애인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챙기는 역할은 나미자님과 수녀님이 함께 하고 있음. 특히 본인의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3회 농장에서 장애인들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나미자님의 역할이 큰데, 다소 버거워 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중장년 남성들만으로는 농사일 이외에 농장에서 이뤄지는 일상생활들이 챙겨지지 못하고 있음.

2)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내용

○ 4가지 사업을 진행

- 발달장애인 직업 훈련, 장애 아동청소년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농업탐방대, 장애인 가족의 응집력 향상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농업 인지도 향상
- 핵심 사업인 발달장애인 직업 훈련은 4명(여성 2명, 남성 2명)의 성인 장애인이 주3회 농장에 와서 농업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3) 2018년 사회적 농업 시범 사업 평가

○ 직업 훈련이 참여자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함

- 개별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병행하지 못함.

①남 은 여기(농장) 내에서 활동하는 것과 복지관에 있는 것과 집에서 있을 때 가지고 있는 문제 사항들은 다 다르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②남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체중 조절이 필요하고 농장 외에 집에서의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맨날 핸드폰을 봐서 지금 눈 밑이 꺼멓고...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는 농장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례 관리, 개별적인 사례 관리 시스템도 같이 묶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관] 복지관에서 직업훈련 쪽만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그러니까 (농장 안에서 장애인의 능력에 맞춰서 적합한 활동을 안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누군가 한 명이 있어주면...

[농장] 우리가 그냥 농사짓는 것만 이렇게 하지, 복지하고 매치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우리 농장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장] ***선생님이 계속 계실 때는 서로 좋았는데 좀 적응하고 나서 빠져 나가시니까, 빈 자리가 좀 크더라고요

○ 농업 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활동 내용이 다양하지 못함.

- 복지관에서는 대상자가 너무 협소한 것 같고, 장애 특성이나 유형, 장애인의 역량에 따라서 체계화된 농업 훈련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사업의 성과: 직업 훈련 참여자 4명의 활동 및 변화

- ①남: 언어장애가 있어서 말을 하지 못하지만, 농기계에 관심이 많고 조작법도 빠르게 습득, 매사에 적극적이며, 복지관에 있을 때에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몰라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능력이 있을 줄 몰랐다면 놀라워하고 있음. 농장에서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복지관에서는 따로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복지관] 제 개인적으로 되게 놀라운 성과예요. ①남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몇 번 들었었는데, 농장에 와서 바뀐 게 그런 것들인 거 같아요. 저희 사회적 농업 올해 성과로 나머지 다 떠나서 “복지관이라는 이 건물 안에 있는 것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상당히 다르구나.” ①남 올 때 저기 버스 들어올 때도 그렇고 이 그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농장: 얼굴이 다르죠.), ‘진짜 우리가 너무 짧게 생각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효과는 있구나.

[농장] 그 훈련을 통해 이 사람을 파악했잖아요. 가능성은 이 사람도 문장을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문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개발을 안 시킨 건데, 언어치료를 개별적으로 받아가면서 직업훈련도 하고, 이 사람이 더 할 수 있는 일. 특히 기계를 만지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 자신 말만 해요. 트럭이 오니까 자기가 이 차를 갖고 오라고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안 되는 발음으로 그래도 막 말을 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언어치료부터 함께 해야 되겠구나.”

- ②남: 스마트폰 과다 사용, 과식, 비만 문제를 갖고 있음. 농장 활동에도 관심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옆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 직업 훈련보다는 건강관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②남 같으면 사실은 이 농업은 안 맞아요. 여기는 안 맞아요.
 저희가 그냥 얘기하면 안 듣거든요. 일하다 혼자 슬쩍 빠져 나간다고 해야 하나. 개별적으로 누가 코칭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을 멘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잘만 이 사람을 다루면 영향은 있어요. 이 사람을 잘 붙들고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 ③여: 농업 활동뿐만 아니라, 생강다듬기 등 농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을 능숙하게 해 낼 수 있음, 어머니가 농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집에서 도와서 일을 했다고 함. 농장에 와서도 즐겁게 일하고 있음.

③여 같은 경우, 굉장히分別이 있어요. 그래서 홀로는 어렵지만 동반해 갖고 취업을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사실 직업 훈련을 해서 취업을 하더라도 늘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동반해야 그 직업이 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혼자서는 자기가 농사 계획해 갖고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잘 해요. 그리고 재밌어 해요. 그러니까 물론 각 분야에 그 어떤 취향대로 취직을 할 수 있죠.

- ④여: 체력이 약하여 농사일을 힘에 부쳐 하지만, 농장에 와서 하는 일에 흥미가 많고 즐겁게 참여함.
- ①남과 ③여는 농장에서 스스로 농사를 계획해서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처럼 멘토가 함께 하면 충분히 농사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함.

지금도 두 사람 정도는 취업훈련이라 하고 하여튼 그대로 따라 가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 사람들을 취업시킨다 하면 그 사람들의 역량을 알기 때문에 그 역량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동반한 농사에서 자기 생활비가 나오도록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여하튼 그 두 사람을 볼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②남은 피가 나 가지고 정말로 그러는데, ④여 같은 경우는 체력이 달리는 거 외에는 셋이 다 적극적이고 일을 기뻐하고 잘 해요. 그리고 ③여는 여기 안에서 하는 다양한 것을 다 해요. 오늘도 생강 까기하고. 오늘 ②남도 앉아 있는 거를 수녀님이 일을 시켰더니 하더라고요. 누군가 계속 개별적으로 적극적으로 신경써 줄 사람이 필요한 거 같아요.

4) 2019년 사회적 농업 시범 사업 추진 방향

○ 직업 훈련 참여 대상자 확대

- 내년에는 대상 선정을 신중히 하는 것보다 우선 오는 사람을 우선 다 받아서, 장애 특성이나 유형을 분류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보완이 될 것으로 판단
- 내년에는 기초반(2~3일: 농장 방문 및 체험 활동 정도), 훈련반(올해 프로그램), 고용 활성화반(보다 전문화된 농업 훈련) 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제안

○ 농장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전문성 증진

- 농장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농장 운영이 체계를 갖추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임.
- 옥수수밭, 대추밭, 양봉, 구절초 등 농장 안에서 각 작물별로 담당들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각자 일년 매출 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금년 사업 시작 당시에도 농장의 1년 스케줄에 따라 사업 내용이 구성되어야 함을 제안하였으며, 내년 사업 계획에도 농장 스케줄에 따라 활동 내용이 구성되어야 함.

[복지관] 다양한 체험 활동 필요
 장애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은 올해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바람에(체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향이 있다) 농촌 지역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원예체험, 과수체험 등 체험 유형을 다양화하였으면 해요. 가족 프로그램도 운영했는데, 꽤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재밌어 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것도 조금 더 유형을 다양화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농장]
 텃밭팀, 농사팀 등 팀을 두세 개 만들어서 월/수반, 화/목반 해 가지고 한 20여 명씩 오는 거는 좋겠고. 아동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어차피 여기 와서 노는 거니까. pc방 가서 노는 것보다 여기 와서 노는 게 좋겠고.

- 다양한 체험 활동을 위해, 농장에서 닭 10~20마리 키우는 것을 검토해 보고, 다른 양계농장과 연계하여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추진

○ 농업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 필요

- 직업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주3회 농장에 와서 다양한 체험을 하였지만, 사실상 노동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이들에게 대가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복지관과 농장 모두 개

선행야 할 부분으로 지적

여기 와서 애들이 10시부터 3시까지 일을 해요. 일을 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고. 물론 훈련을 쌓는다는 측면은 있지만 저희 농장이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 수익이 빵빵하면 나눔도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년엔 우리 성원농장의 자체 역량이 좀 더 커져서 대추 따주고 와서 뭐 하는 데에 대한 보상을 좀 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지금 대추 정도 주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수익을 그 사람들에게 줄 것이고 어떻게 우리 자체 역량을 키울 것인지.

○ 농장 활동의 목표 설정: 장애인의 직업 재활, 사회적 재활

- 복지관과 농장의 관점 차이가 존재
- 복지관에서는 체계적, 훈련 등의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면, 농장에서는 즐겁게 같이 등의 용어를 많이 사용
- 복지관은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농장의 멘토들은 취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 그럼에도 농장에서 하고 있는 노동에 대한 대가는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으며, 복지관 사업에서는 최소한 중증장애인 직업훈련비로 9만원씩 지급되고 있음.

* 내년에는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으나 취업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은 좀 지양됐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는. 쉬거나 여가 활동, 건강관리는 얼마든지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자기가 노력해서 그 수확물을 가져가는 텃밭 같은 것들도 대폭 늘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밭이 넉넉하니까.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얼마든지 수확물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그 분들을 훈련해서 제대로 된 농부를 양성한다. 아니면 농업 기업에 취업을 한다. 그건 제가 보기에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면 차라리 단순 반복 작업하는 공장이 좋겠고. 아니면 그 이동거리가 많지 않은 사료 주는 거, 계란 줌의 거 이런 축산이 나올 것 같고. 네 사람이 있는데 ①남을 다른 어떤 일자리 좋은 데로 보내야 된다는 등 내지는 ④여는 힘이 없어서 여기 하고 안 맞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돌봄의 가장 근본적인 이 농장에 와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다. 농장에 와 가지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거움 그 자체로 굉장히 그 성원농장의 사회적 농업의 가치 실현이 아닌가. 그 측면도 좀 보고요. 충분히 이사님 말씀[농장에 와서 쉬거나, 건강관리를 하고, 여가활동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가능, 취업을 전제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수확물을 가져가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함] 이해하고 공감되는 바이기는 한데, 사회적 농업이 두고 있는 가치점이 그런 거인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19년 사업계획 예시에서도 5년차 계획도 수립했는데 고용 얘기가 작년 사업 계획서 예시에도 꼭 있었고 올해도... 물론 이게 예시일 수 있겠지만 고용이 어느 정도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시는 계속 고용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실제 복지관 내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사실상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

- 보은군에서도 농축산분야에서 채용 공고가 나오고 있으며, 다문화나 장애인 대상으로 7명 정도 공고가 나온 것을 보았다고 응답
- 장애인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면, 취업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복지관의 생각이지만, 농장 멘토들의 의견은 올해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농사일을 할 수는 있지만, 옆에서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5)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 종합 의견

○ 종합 의견

- 성원농장은 농장 운영이 안정화되면, 사회적 농업을 실현하는 농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
- 이유는 멘토들(농장 식구들)의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토대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일치
- 멘토들이 농장 안에서 각자 자리를 잡고, 농업 활동에서 어느 정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면, 장애인들이 이 활동에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농장 운영은 개선이 필요함.

○ 복지관의 역할

- 복지관에서는 멘토들에게 참여자들을 관찰하고 기록도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지만, 농장 멘토들은 이러한 일에 익숙하지 않음.
- 복지관은 장애인 전문가로서 멘토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할 때 참석하여 참여 장애인들의 어려움이나 변화 등을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나 농장 활동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복지관 담당자는 농장의 농업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함.

지금 저희가 멘토한테 부탁드리는 거죠. 저희가 자주 회의를 했었어요. 단계를 넘어 갈 때마다 회의를 해서 '이 친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희가 만든 리스트가 원래 그걸 바라고 만들었던 건데 멘토 분들이 힘들어 하실까봐 자꾸 축약하다 보니까 그런 게 빠지긴 했는데...

○ 서비스 대상의 개인 특성을 고려한 목표 설정 및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사회적 농업의 지향점에 대해,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단기간 내에도 농장에서 역

할을 찾고 일을 하면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업이나 자립이라는 목표 자체가 불가능한 장애인들도 있음.

- 따라서 개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인 목표 설정은 현실적이지 않음.

③ 흥성 행복농장

○ 사업 추진 경과

- 만성정신질환자 방문 프로그램 자연구시(4박5일)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회
- 금마중학교 도움반 학생 농업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1학기 과정 완료 2학기 과정 시작(9월 12일)
- 지적장애 및 자폐 청소년 대상 농장 활동 매뉴얼 집필 중
 - 필진 확정, 목차 구성, 사진 확보, 2차례 집필 준비 세미나
- 돌봄농업 연속 세미나 기획 및 참여자 섭외 완료
 - 7월 28일 1차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1회, 총4회 예정
 - 9월 15일 3차 세미나(정신장애인 만나기)까지 차질없이 성황리에 실행
- 『한국의 농업 현실과 사회적 농업』(2017년 연속 세미나 자료를 토대로 한 책자 제작) 원고 교정 및 감수 중
- 여성 귀농인 창업 인큐베이팅 : 농장 농지 일부를 할애하여 허브(적소렐) 모종 정식 후 9월 들어 첫 수확, 9월에 새 품목(로즈마리) 정식 준비 중
- 바질페스토 등 농산물 가공 인허가 관련 협력 단체(흥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와 협의, 인허가 신청 절차 진행 중
- 정신보건 관련 대규모 컨퍼런스에 ‘사회적 농업’ 홍보 목적으로 참여
 - 8월 하순, 충남정신건강복지센터와 바질페스토, 가든박스 등 기념품 제작 및 부스 참여
 - 가든박스, 바질페스토, 건바질 등 3종 1,000여 기념품 제작 및 배포, 긍정적 반응
 - 2019년에는 부스 참여뿐만 아니라 ‘사회적 농업 세션’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의키로 함.

○ 관찰자 의견

- 당초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을 대체로 차질없이 일정대로 진행 중이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17년 사회적 농업 세미나 실행 결과를 바탕으로 한 도서 발간 시기가 늦추어지고 있음.
- 지적장애 및 자폐 청소년 대상 농장 활동 매뉴얼 제작 프로그램 진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음. 홍성군 관내 도농교류활동을 추진해 온 여러 그룹에게 장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사회적 농업 실천 참여를 권장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매뉴얼 제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함. 홍성군 도농교류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관내 도농교류 참여 농장들과의 네트워킹을 이미 진행하기 시작한 상황임.
- 8월 폭염으로 인한 병충해 확산으로 농장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 초래, 농장 운영 수준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임.

○ 사업 추진 성과

- 수년 전 자연구시 기본과정을 계기로 고용한 정신장애인(2명)이 요양병원에서 주거 독립, 홍성읍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행복농장 및 오누이권역센터로 출퇴근하면서 재직 중이며, 중증 만성정신질환을 앓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시설에서 나와 농촌에서 농업 및 농업 관련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사회 복귀 및 재활한 드문 사례로 평가됨.
- 한국에는 아직 소수에 불과한 돌봄농업 실천 농장으로서, 사회적 농업의 의의와 필요성을 각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함.
- 매스미디어(주요 신문 및 방송)를 통해 정보를 발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매월 2~3차례 방문객들이 행복농장을 방문해 사회적 농업에 관한 강의와 견학을 실시
- 홍성군 지역사회 안에서도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는 중심 장소로 자리매김
- 인근 지역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려는 농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서울이나 대전 등지의 정신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자연구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
- 재학 중에는 학교 체제 안에서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의 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받는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직면하게 될 일자리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업 직업재활 교육 과정을 형성
- 오랜 경험과 기술적 측면에서의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농업 직업재활 모형을 만들 수 있는데, 행복농장의 경우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정리하여 발달장애인의 농업 재활 모형을 정립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선 상태로 평가할 수 있음.

- 충남정신건강복지센터, 홍성군 도농교류센터, 지역 내 다수 농가 및 농업생산자 단체, 홍성군청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됨.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고 시도할 만한 여건이 조성됨.

④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① 1차 방문 (6/29(금) 10:00~12:00)

○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현황

- 발달장애아동 대상 가족 농장 및 원예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장소: 평치두레농장(두레농장에 사용료 지급)
 - 프로그램 대상 확대 및 참여 가족 모집 완료(이랑협동조합)
 - 10가족→20가족으로 확대, 월1회에서 월2회로 프로그램 운영횟수 증가
 - 아동 대상 프로그램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이랑협동조합에서 가족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시 돌봄 인력 지원
 - 1회차 프로그램 준비(7/7 토, 총 10회) - 가족별 텃밭 분양, 가족-마을주민 멘토 매칭, 친환경 농업 강의 진행
- 지역독거노인 대상 원예치유, 돌봄 프로그램
 -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협력하여 대상 노인 모집(12인) 및 이동 지원
 - 2회차 프로그램 실시
 - 농업·원예·요리 체험·강좌 프로그램 운영
- 여성농업인 청년들이 협업하는 공유농장 조성·운영
 - 고산면 청년 귀농인과 토박이 농민 토종씨앗농장 파종 및 협의 모임 진행
- (예비)귀농·귀촌인 대상 마을 연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 귀농귀촌 지원센터 등 연계 주체와 공동으로 프로그램 기획 및 협의
 - 귀농·귀촌자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귀농·귀촌인의 수요와 라이프 스타일(기상시간, 작업시간)이 다양하여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 로컬푸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장 활동 준비를 위한 소비자 모임 결성

○ 지역 네트워크 운영

- 사회적 농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및 운영

- 주요 프로그램 거점별(두레농장, 권역별) 대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회 상시 개최
- 프로그램별로 협력 주체들과 사전 프로그램 기획 및 피드백 회의 개최

○ 기타 활동

- 사회적 농업 현장 벤치마킹(홍성, 영광) 실시

○ 애로사항

- 프로그램 참여자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음. 차량구매에 대한 예산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음.
- 프로그램 별 참여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레크레이션 등)이 필요한데 이를 기획, 운영하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② 2차 방문 (9/1(토) 9:00~13:00) - 발달장애아동 대상 가족 농장 및 원예 치유 프로그램 3회차 모니터링

○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진행은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주관, 협동조합 이랑에서 아이들 보호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은 당초 계획했던 20가족에서 15가족으로 축소하였음.
- 당일 9가족이 참여(지역 내 유사 행사 개최로 일부 가족 불참)
- 프로그램 참여 아동은 5세에서 1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분포
- 두레농장(하우스) 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가족별 경작 구역을 구분
- ‘인사 - 지난 프로그램(지렁이 사육) 결과물 확인 - 프로그램 소개 - 레크레이션 - 휴식 - 가족별 요리 - 작물 수확 - 포장 - 로컬푸드 판매’ 순으로 진행
- 레크레이션은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직원이 주관하며, 가족별 요리는 지역(평치) 주민이 지원, 작물 수확은 가족별로 매칭이 된 마을 주민(5인)이 지원, 로컬푸드 판매는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 둔산점에서 이루어짐.
- 로컬푸드 판매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 아동들은 로컬푸드 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판매대금은 아동 통장으로 입금, 로컬푸드 매장 내 사회적 농업 관련 제품을 위한 별도의 판매대 설치
- 농작물은 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지역 주민(고령농)에게 소정의 비용 지급

○ 프로그램 참여 가족 의견

- 재활 치료차 방문하던 협동조합 이랑을 통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접하게 됨
- 야외에서 아이들이 눈치보지 않고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며,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 관찰자 의견

- 이랑협동조합과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간 업무 분담과 협력은 잘 이루어짐.
- 참여 가족의 만족도가 높으며, 지역 주민 또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 우호적인 입장
- 참여 대상 아동의 발달장애 정도, 나이의 편차가 큰 관계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구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
- 농업관련 활동에 대해 참여 가족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성과

- 기존 지역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 사회적 농업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식시킴.
- 시범사업 주체인 완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주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문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본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체들 사이에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함.
- 완주군을 비롯하여, 농정 및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부문의 행정과 지역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지역단위 지원 체계를 구축함.
- 발달장애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였던 이랑협동조합의 경우 다음연도 사업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 주체들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함.
- 발달장애 아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들의 경우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야외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나, 본 사업을 통해 주기적으로 야외활동과 농작물 재배, 그리고 사회적 교류에 참여함으로써 아동 및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독거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경우 요리체험, 원예활동과 함께 육체적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건강 관리 및 정서적 안정감 제고에 기여
- 사업에 멘토로 참여하는 지역 주민(노인)의 경우에도 소득뿐만 아니라 아이들과의 교류 및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㉔ 임실 선거월빙푸드영농조합법인

○ 사업 추진 경과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회원들 마을 방문 휴양 및 체험 프로그램 6회 실시
 - 향후 임실군에서 회원들의 장기 체류 및 경제활동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임실군 여러 마을 주민과 협의 중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원예치료 프로그램 6회 진행
-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닌 사람들과의 만남, 교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숍 1회 실시
 - 마을 주민 및 활동가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 관찰자 의견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관련 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원예치료 및 휴양 프로그램이 잦은 빈도로 충실하게 수행되고 있음. 범죄피해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당사자 자녀까지 대상으로 포함하는 프로그램 변경이 있었는데, 적절한 변경 조치였다고 판단됨.
- 원예치료 및 휴양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회원들의 요구, 도움 요청(지원센터, 컴퓨터 퇴소 후 주거 및 일자리 관련 도움 요청)이 있는 바, 예상치 못한 상황임.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요구여서, 임실군청과의 논의가 필요함.
- 각종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하여 선거리의 고령 농업인 그리고 원예치료사 등 협력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대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성과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복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농업을 소재로 한 원예치료 및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독특한 실천 사례로서 농업이 어떤 사회적 기능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
- 원예치료 활동과 마을 방문 활동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당초 월 2회(마을 1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회)로 계획했던 프로그램 활동이지만, 참여자들의 요청에 따라 월 4회, 즉 매주 프로그램을 진행
-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결의 사람들과의 대화도 꺼리던 범죄 피해자 및 가족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대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가고 있어,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도움을 제공. 가령, 실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참여에도 어려움을 겪던 참여자들이 수개월 만에 지역축제나 유명 관광지 같은 익명의 사람들이 지나는 개방된 장소에서 일정한 경제적, 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됨.

- 원예치료 및 휴양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범죄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에 직면했는데,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주거 및 일자리 요구가 나타남. 범죄 피해자지원센터나 피해자 쉼터의 수용 인원에는 한계가 있어, 관련된 범죄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범죄 피해자 가족들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가 대두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상자들 중 몇몇이 선거웰빙푸드영농조합법인 측에 일자리와 주거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하기에 이르렀으며, 선거웰빙푸드영농조합법인의 현재 역량으로는 일자리 및 주거를 충분히 지원할 수 없으나, 한 가족을 마을로 11월 중에 귀농하도록 돕기로 결정하였고,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 중에 있음.
- 일자리는 여의치 않지만 선거웰빙푸드영농조합법인이 수행하는 보존화 제작, 원예치료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액의 소득이라도 얻을 수 있게 조치하기로 함.
- 사회적 농업이 원예치료 등의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경제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 진행해야 하는 실천임을 확인하는 계기

⑥ 무주군 팜앤씨티

1. 사업개요

가. 사업운영계획(1년차)

○ 사업목표

- ① 치유·힐링 농장 시범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구성·운영을 통한 농촌지역 돌봄·교육 등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여 농업의 사회가치성 전파 확대
- ②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농업 구축
 - 지역 내의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과 교육으로 사회적 농업의 활동을 통한 사회적 응 실현 및 사회복귀로 따뜻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③ 프로그램 안정화를 통한 사회적 농업 서비스 확대

- 지역 소외계층 지속적인 발굴로 사회적농업 서비스 확대하고, 농장 및 전문가 연계 강화로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정착 및 안정화

○ 사업내용

① 운영농장 구축

- 대표농장(팜앤씨티)/협력농장(비밀의정원)
 - 호롱불마을(설천면소재): 노지농장(채소- 오이, 상추 등)
 - 진원반디길(안성면소재): 시설농장(채소- 토마토)
 - 반햇소(적상면소재): 축산농장(한우)
 - 무주정원산책(안성면소재): 화훼농장(꽃, 식물류)

② 사회적 농업 운영프로그램

- 채소농장(호롱불, 진원마을): 노지채소(오이, 콩, 상추, 옥수수)와 시설채소(토마토)의 농작물 재배 및 수확활동
- 축산농장(반햇소): 소와 친구 맺기, 동물 돌보기 등
- 화훼농장(무주정원산책): 꽃 가꾸기, 압화, 치료 등

③ 지역 네트워크 적극 활용

- 서비스대상(발달장애, 사회부적응, 소외계층 아동 등)
 -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 만나지역아동센터, 안성초·중학교 특수반
- 전문가조직: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교사, 사회복지사, 지역아동센터 센터
- 지역협력조직: 무주군 새마을부녀회
- 중간지원조직: 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사)마을을잇는사람들)

나. 사업추진체계



다. 사업운영체계

- 운영주체: 농업회사법인 무주팜앤시티(주)
 - 호롱불 마을, 진원반디길마을, 반햇소영농조합법인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 참여농장
 - ① 호롱불 마을(설천면, 대표 박희죽)
 - 농업: 노지농장, 채소류(오이, 상추 등)
 - 주요특징: 체험휴양마을(레저스포츠체험)
 - ② 진원반디길마을(안성면, 대표 김강엽)
 - 농업: 시설농장, 채소류(토마토)
 - 주요특징: 체험휴양마을(장류가공체험)
 - ③ 반햇소(적상면, 대표 전병술)
 - 농업: 축산업, 소 농장

- 주요특징: 6차산업인증(유통·판매)

④ 무주 정원산책(안성면, 대표 홍성학)

- 농업: 시설원예
- 주요특징: 원예치료 활동

○ 서비스 대상

- 국립 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연14기수. 기수당25명, 총 350명) 단기교육
- 무주군 안성면 만나지역아동센터(32명)
- 무주군종합복지관(10명)
- 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24명)
- 솔로몬지역아동센터(26명)

○ 협력조직

① 중간지원조직(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 무주군의 마을에 교육 및 사업 지원, 마을로 가는 축제 운영지원 등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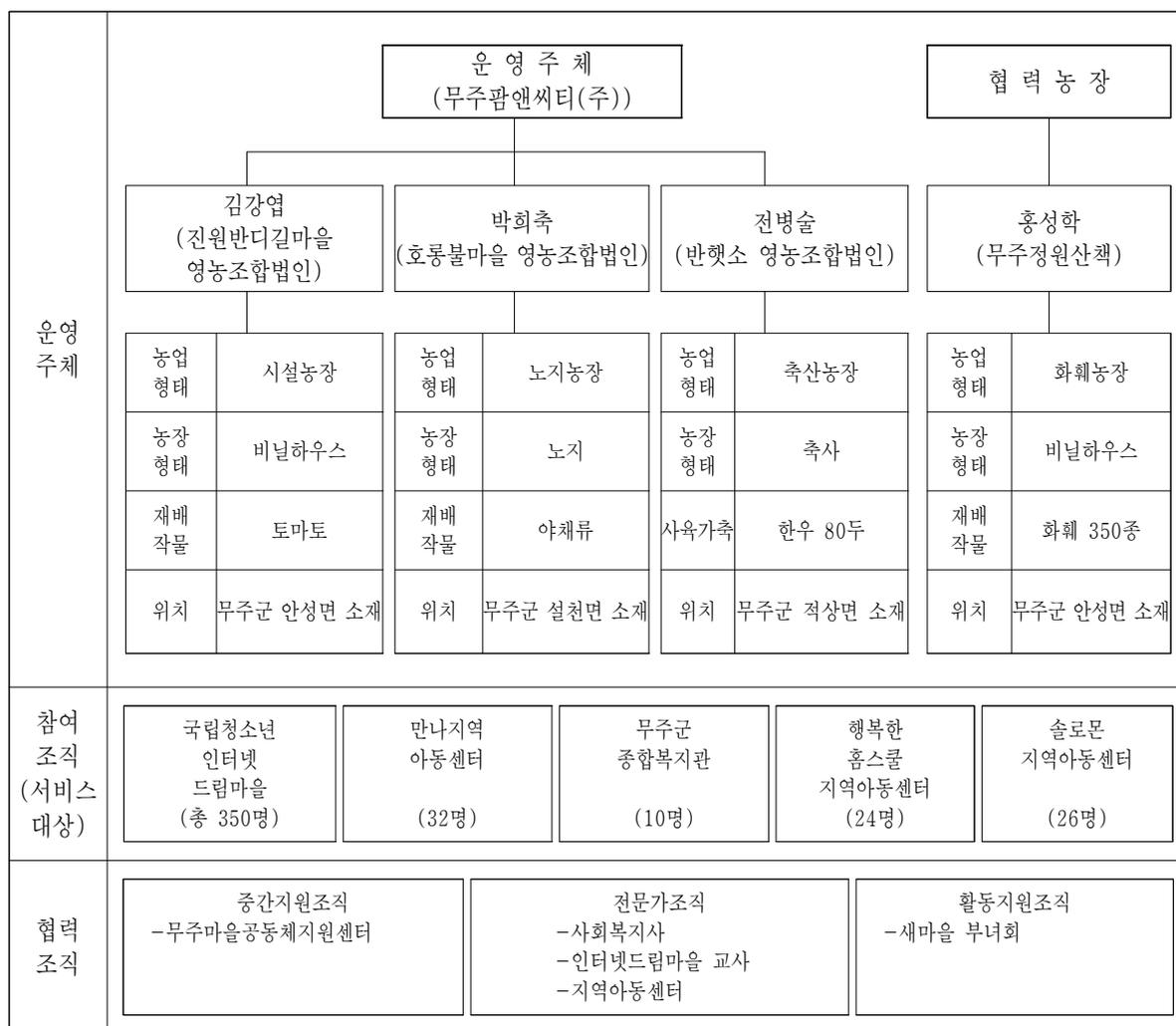
② 전문가조직

- 지역 내 사회복지사 1명,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교사 17명, 무주군종합복지관 4명, 만나·솔로몬·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1명

③ 활동지원조직(새마을 부녀회)

- 안성면 36개 마을부녀회로 36명 회원 활동

무주군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운영 체계



라. 지역네트워크 구축 계획

○ 사회적 농업 지역 네트워크 협력 대상 및 내용

- 청년농가공동체: 협력농장을 중심으로 청년농가공동체와 결합하여 사회적 농업 활동의 다양성과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사회복지협의회: 무주군내의 서비스 수혜자 발굴과 지역 자원 연계 활동과 함께 지속적 모임을 통해 사회적 농업 사례 연구
- 교육기관(지역아동센터, 안성초·중·고등학교): 수혜자와 관련된 기관의 결합으로 농가의 프로그램을 수혜자의 연령 및 정서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의료기관(안성보건소, 무주보건의료원): 수혜자의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네트워크 운영체계

무주군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



2. 사업활동

가. 사업활동 요약

○ 참여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요약

진원반디길마을	호롱불마을	반햇소	정원산책
<p>총 8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림마을 2회 -만나센터 3회 -종합복지관 1회 -행복홈스쿨 1회 -솔로몬센터 1회 	<p>총 6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림마을 0회 -만나센터 2회 -종합복지관 0회 -행복홈스쿨 2회 -솔로몬센터 2회 	<p>총 9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림마을 3회 -만나센터 1회 -종합복지관 3회 -행복홈스쿨 1회 -솔로몬센터 1회 	<p>총 9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림마을 3회 -만나센터 1회 -종합복지관 3회 -행복홈스쿨 1회 -솔로몬센터 1회

○ 기타 활동 요약

① 2018 사회적 농업협의회 1차 회의

- 일시: 2018년 8월 08일(수), 12시00분 ~
- 참석: 운영주체 5, 서비스대상 단체 5, 협력조직 7, 무주군청 2
- 내용: 사회적 농업 사업개요, 추진경과 발표, 향후계획 논의

② 사회적 농업 사례탐방

- 일시: 2018년 8월 28일(화), 08시30분 ~
- 장소: 충남 홍성 꿈이 자라는 뜰 외 2곳
- 참석: 무주군 사회적 농업 관계자 및 청년 농가 28명

③ 2018 사회적 농업협의회 2차 회의

- 일시: 2018년 9월 14일(금), 12시00분 ~
- 참석: 운영주체 5, 서비스대상 단체 5, 협력조직 7, 무주군청 2
- 내용: 사회적농업 사업개요, 추진경과 발표, 향후계획 논의

④ 지속가능협의회 전국대회 참석

- 일시: 2018년 9월 13일
- 참석: 지속가능협의회 시군 및 도 지부, 무주마을공동체
- 내용: 지속가능협의회 전국대회 참석, 세미나 발표, 사회적농업 공감대 형성, 향후 시민단체와의 협력 방안 논의

⑤ 사회적 농업 모니터링 간담회

- 일시: 1차-2018년 7월 10일(화), 2차-2018년 8월 22일(수)
- 장소: 안성면공동체센터
- 참석: 모니터링단(이민수) 1명, 협력조직 7명

나. 참여 농장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추진 경과

○ 진원반디길마을 영농조합

- 사업활동 개요

회차	날짜	도착 시간	대상	참여인원	
1	8월 29일	17:00	무주만나지역아동센터 (안성면)	총인원 35명	교사 3명 초등학생 32명
2	9월 3일	18:30	무주만나지역아동센터 (안성면)		
3	9월 5일	17:00	무주만나지역아동센터 (안성면)		
4	10월 10일	17:00	무주만나지역아동센터 (안성면)		
5	10월 17일	17:00	무주만나지역아동센터 (안성면)		

* 활동 사례

- 일시: 2018. 09. 03. 14:00 ~ 17:00

- 체험내용: 식품 만들기 체험(떡갈비, 소시지) 및 햄버거 만들어 시식

- 대상: 만나지역아동센터(아동 28명, 교사 5명, 담당자 3명)

		
사전교육	위생모, 덧신 착용	손씻기, 소독
		
떡갈비 반죽	떡갈비 만들기	만족도 조사

○ 반햇소 영농조합법인

- 사업활동 개요

회차	날짜	도착 시간	대상	참여인원	
1	08월 02일	10:20	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무주읍)	총인원 27명	교사 3명 초등학생 24명
2	08월 10일	12:30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안성면)	총인원 60명	교사 5명 멘토 15명 중·고등학생 40명
3	08월 14일	14:00	무주만나지역아동센터 (안성면)	총인원 36명	교사 4명 초등학생 32명
4	08월 17일	10:40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설천면)	총인원 29명	교사 3명 초등학생 26명
5	09월 03일	14:00	무주종합복지관 (무주읍)	총인원 15명	교사 3명 장애인 12명
6	09월 07일	12:30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안성면)	총인원 15명	교사 3명 장애인 12명

* 체험 사례

- 일시: 2018. 08. 02. 09:00 ~ 15:00

- 체험내용: 식품 만들기 체험(떡갈비, 소시지) 및 햄버거 만들어 시식

- 대상: 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 30명(아동 24명, 교사3명, 담당자 3명)

		
사전간담회	사회적경제 박람회 홍보	사전교육
		
과정설명	떡갈비 체험	표정

○ 정원산책

- 사업활동 개요

회차	날짜	도착 시간	대상	참여인원	
1	08월 10일	16:00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안성면)	총인원 60명	교사 5명
					멘토 15명
					중·고등학생 40명
2	09월 07일	16:00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안성면)	총인원 60명	교사 5명
					멘토 15명
					중·고등학생 40명
3	09월 11일	16:30	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무주읍)	총인원 27명	교사 3명
					초등학생 24명
4	09월 17일	14:00	무주종합복지관 (무주읍)	총인원 15명	교사 3명
					장애인 12명
5	10월 04일	15:20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설천면)	총인원 29명	교사 3명
					초등학생 26명
6	10월 12일	16:00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안성면)	미정	기수별로 참여인원 변동으로 인하여 결정되는대로 연락주기로 함
7	10월 15일	14:00	무주종합복지관 (무주읍)	총인원 15명	교사 3명
					장애인 12명
8	10월 16일	16:00	무주만나지역아동센터 (안성면)	총인원 36명	교사 4명
					초등학생 32명
9	11월 19일	14:00	무주종합복지관 (무주읍)	총인원 15명	교사 3명
					장애인 12명

* 체험 사례

- 일시: 2018. 08. 10. 12:00 ~ 18:00
- 체험내용: 식품 만들기 체험(떡갈비, 소시지) 및 햄버거 만들어 시식
- 대상: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학교(아동 37명, 멘토 15명, 교사 5명)

		
사전교육	과정설명	떡갈비 체험
		
화웨이야기	압화작업	작품들

3. 참여농가 모니터링 결과

○ 시범 사업 참여 계기

- 참여농가는 모두 사회적 가치와 의미에 무게를 두고 참여 함
- 정원산책 홍성학 대표(남, 67세)는 3년 전 안성면 공정리로 귀농, 화훼농업을 일구고 있음. 주로 꽃모종, 화분을 재배하고, 방문객에게 판매하는 일을 함.
- 안성면공동체지원센터로부터 시범사업 운영주체로 참여해 줄 것을 제안 받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작업이라 생각하여 수락
-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들에게 꽃가꾸기를 통해 정서를 순환하고, 자존감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 특히 홍성학 대표의 이전 직업이 교사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에 전문성을 살릴 수 있었음.

사회적 배려자라고 할 수 있는 복지원 칠드런, 지역아동센터, 또 인터넷마을 등의 아이들이 내 화원에 와서 정서도 순환하고, 식물 모종을 가져다가 집에서 키워보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특히 내 직업이 교사였는데, 교육계를 은퇴하고, 소외계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비록 돈은 안되겠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하게 되었다 -홍성학(정원산책 대표)-

○ 시범사업 활동의 성과

- **정원산책 홍보 효과:** 정원산책은 시작한지 채 2년도 안되었는데,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정원산책을 지역 내에 알리는 계기가 됨.
-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 내 여러 네트워크가 생김. 안성면사무소, 설천면사무소, 영농법인, 도예공방, 농업기술센터 등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됨. 도예공방은 도자기로 된 화분을 구하게 되면서 교류하게 됨.
- **아이들의 교육적, 정서적 효과:** 덕유산 자락의 백합은 기후와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대전과는 다르다고 함. 열대고산지방 작물이 이곳에서 자라기도 함. 이 정원에 는 국내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식물도 많음. 농장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꽃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수업이 끝난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 방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함. 그러나 이곳에 와서 꽃을 만져보고, 때로는 씹어보기도 하면서, 꽃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됨.

수업 끝나고 아이들이 할 일이 없다. 지역아동센터에 가서도 주로 방안에서만 생활한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꽃 하나하나를 만져보고, 씹어보게 한다. 꽃마다 냄새와 맛이 다르다. 아이들이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도 보람을 느낀다. -홍성학(정원산책 대표)-

- **마을 활력 제고:** 요즘은 마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일이 흔치 않음. 그런데 아이들이 화훼 농업 체험을 하며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임. 이 때 운영주체로서 만족감을 갖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마을에도 활기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듦.
- 홍 대표에 의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많다고 함. 지식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배우기도 함. 장애에 대한 인식과 편견도 사라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됨.
-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정원산책에서는 총 8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함. 1회 진행할 때와 8회 진행할 때 많이 달라짐. 1회 때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면, 회차가 거듭되고 8회에 와서는 노하우와 기술이 생김.
-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요양원 개념의 사회적 농장이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됨.

우리 마을이 33가구이다. 대부분 고령농이라고 보면 된다. 내가 67세인데 젊은 편에 속한다. 5~6년 이후에는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 노동력을 잃은 저 양반들이 갈 데라고는 요양원 밖에는 없을 텐데, 농장과 요양시설이 함께 갖추어진 곳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홍성학(정원산책 대표)-

○ 시범사업 성과 창출 요인

-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중간지원조직 내 ‘사회복지사’, ‘마을활동가’의 기존 네트워크와 경험이 파트너십과 네트워킹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 중간지원조직 사업팀 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어, 프로그램 조직 및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됨. 이를 통해 팀원들이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을 빨리 습득할 수 있었음. 또한 마을활동가로 일하면서, 마을(이장 등)과 농가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음. 사업 실행 전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보를 주고, 마을과 농가의 참여를 유도함.
- **체험과 공동체사업이 활성화된 마을공동체가 존재:** 무주군의 경우 농촌 체험·관광과 공동체사업이 활성화된 다수의 농촌공동체마을 존재함. 특히 최근에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6차산업화 마을연합체가 구성되어 있었음.

-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행정공무원이 존재:** 무주군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만들기를 담당할 전문공무원을 채용하였음. 핵심 의사결정자(과장, 군수)의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졌지만, 마을사업과 사회적농업을 명확히 이해하는 전문 행정공무원직원이 사업을 담당함에 따라 사업추진 주체와의 행정적 협조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짐.

○ 시범사업 활동의 애로사항

- **꽃의 주기를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 프로그램 운영 기간 필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의 주기를 전체적으로 경험해야만 꽃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음. 씨를 뿌려, 가꾸고, 꽃이 피는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봄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함. 그러나 이번 년도는 프로그램이 8월 말에 시작되어, 식물의 변화과정을 제대로 보지 못함. 꽃의 사이클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움.
- **혹서기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7~8월의 무더운 날씨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임. 냉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농가에서는 더욱 바깥의 체험프로그램을 피해야 함.

이번에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7-8월 너무 더운 날씨에 진행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같이 영세농은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더워라, 하는 것을 마음이 좋지 않았다. 여름에는 실내프로그램을 해야 할 것 같다. 계절적으로는 봄, 가을이 가장 좋다. 농가에서도 봄, 가을에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여름에 한다 하더라도 4시 이후에나 할 수밖에 없다. -홍성학(정원산책 대표)-

- **지역 주민과의 결합이나 권유는 아직 미흡:** 정원산책을 정비하느라 마을 모임에도 못 나가는 실정임. 주변 농가에 이러한 사회적 농업을 권유할만한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봄. 체험프로그램 진행에 주변 농가를 결합시키지는 못함.

○ 차기년도 과제

① 프로그램 부문

- 꽃이라는 식물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화훼농업 체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씨를 심는 봄에 시작해 한 계절의 과정을 경험하는 게 매우 중요하며, 프로그램 운영 주기는 월 2회가 가장 적절. 그 이상 할 경우에는 생업에 지장을 줄 것임. 월 2회만으로도 꽃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한여름 무더운 날씨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되도록 실내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야 함.

② 참여대상자 부문

- 동일한 대상자가 씨앗에서 꽃 단계로 진행하는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는 올해(25~30명) 보다 적은 규모인 15~20명이 적절함.

③ 예산 부문

-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은 강사료, 시설사용료, 재료비 등 30~40만원 수준 인데, 농가의 수익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
- 프로그램 진행 시간은 2~3시간에 불과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준비부터 이후 정리에 이르기까지 평균 3일이 소요됨. 또한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회의 및 교육에도 참여해야 함. 월 2회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꼬박 열흘의 노동력 필요. 그러나 60~70만원 지원에 재료비를 빼고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음.
- 농가 입장에서 사회적 농업을 수익비즈니스 모델로 접근하기에는 무리임.

4. 중간지원조직(무주마을공동체지원센터) 모니터링 결과

가. 농가 및 서비스 대상 참여 과정

○ 농가 참여 과정

- 안성면 중심 농가와 청년농가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15개 정도의 농가와 사전 접촉을 시도
- 본 시범 사업에 합류할 농가를 선정하기 위해 안성면 단위 농가와 청년농가 네트워크 안에서 15~6개 농가와 접촉을 시도.
- 다양한 농업 경험 제공 위해 네 농가를 참여하도록 함. 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운영 농가는 진원 반디길마을, 호롱불마을, 반햇소, 정원산책 등 총 네 곳임. 네 농가를 참여시킨 이유는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농업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대부분의 일반 농가는 한 두 작물을 집중 재배하므로, 작물의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 여러 농가를 선정함. 진원반디길마을은 토마토 등 하우스농사를, 호롱불마을은 야채 재배를, 반햇소는 육가공 및 식품체험을, 화훼농가는 꽃가꾸기를 담당함.
- 마을기업 ‘팜앤시티’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농가 참여, 진원반디길마을, 호롱불마을, 반햇소는 마을기업 ‘팜 앤 시티’에서 활동. 무주군 마을기업 ‘팜 앤 시티’ 내에서 활동하면서, 자체적 농업생산과 체험휴양마을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음. 반햇소 등은 지역 사회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있어 사업 농가로 참여시키는 데 어렵지 않았음.

○ 서비스 대상 참여 과정

- 복지관, 지역아동센터와 공식·비공식 접촉 통해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선정
- 지역 복지 단체 1곳당 3~4회 접촉을 갖고 협의를 함. 유선 전화는 수도 없이 시도.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설득하는 작업이 어려운 곳도, 쉬운 곳도 있었음.

나. 사업 성과

○ 중간지원조직 내 ‘사회복지사’, ‘마을활동가’ 역량 발휘

- 중간지원조직 사업팀 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어, 프로그램 조직 및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됨. 이를 통해 팀원들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빨리 습득할 수 있었음.
- 또한 마을활동가로 일하면서, 마을(이장 등)과 농가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음. 사업 실행 전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보를 주고, 마을과 농가의 참여 유도.

○ 사업 참여 대상자에게는 교육적 효과 뚜렷

- 본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입장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임. 참여 아동이나 장애인 등이 흥미롭게 참여하고, 표정도 밝아짐.

생각했던 것보다 사회적 효과가 큰 것 같다. 아동 등의 수혜자 표정이 밝아진 걸 알 수 있다. 처음에는 말도 못 붙이던 아이들이 바뀌었다. 어두워 보였던 아이들이 표정이 밝아지는 등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안성면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

○ 지역 복지 단체와의 MOU 체결 등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복지 기관과 수없이 컨택을 시도, 총 5개 기관이 참여하게 됨. 이 과정에서 무주종합복지관과 인터넷마을은 MOU를 체결함. 지역아동센터연합협의회와는 MOU 체결 추진 중임.

다. 과제 및 전망

○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

- 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시키기 위해서는 농가 지원 예산 증액 필요
- 사회적 농업이 소득창출 측면에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현재 조건에서 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는 어려움.

농가입장에서는 현실적,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영세농가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일이 될 것이다. 부농이라면 소득이 나지 않아도, 시도하기에 부담이 없겠지만, 영세농가는 소득이 나지 않는 사회적 농업을 하려고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농가에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하면 답이 없다. 확실한 지원, 확실한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안성면공동체지원센터장-

- 농가에서 사회적 농업에 장기적 전망을 갖고 참여하기란 현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농가의 접근성을 높이기 힘들. 체험휴양마을 내 체험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농가 정도만이 참여 가능.
- 사회적 농업이 농가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음. 농업생산의 영역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복지 등 다양한 정보를 섭렵해야만 하므로, 농가의 피로도가 높아짐. 중간지원조직 입장에서는 농가와 함께 사업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매번 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음.
- 사회적 농업은 사업 수혜자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분명히 효과적이거나, 농가에게는 그렇지 않음. 사회적 농업이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있는 만큼, 농가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확대해야 함.

○ 사회적 농업으로 특화된 복합 농장 필요

- 네 농가가 서로 떨어져 있어 동선이 길다는 점이 장애 요인 중 하나였음. 프로그램 참여자로서는 이 곳 저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따름.
- 사회적 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게 중요함. 예를 들어 냉난방 시설이 전혀 갖춰있지 않은 농가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기란 어려움. 특히 앞으로 사업대상을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까지 확산하기 위해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키고, 다양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농장을 특화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전업농과는 다른 사회적 농업농 모델 개발 필요

- 사회적 농업 접근은 전업농가의 농업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과정이 아님. 사회적 농업으로 특화된 틀과 모델을 별도로 개발해야만 함.
- 사회적 농업 방식의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실행해야 할 것임.

○ 프로그램 참여 대상 발굴 및 교육기관 네트워크 강화

- 올해에는 지역아동센터, 무주종합복지관, 인터넷마을 등이 참여함. 주로 시설이용자 중심으로 사업대상자를 발굴하였음.
- 아직까지 복지 및 교육 기관에서 중간지원조직에 ‘사회적 농업’ 참여를 제안한 경우는 없음. 복지기관 입장에서는 시설 바깥으로 나오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함.
-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 계층이 존재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만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임.
-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복지, 교육 등 행정 기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행정 관계자나 학부모의 관심은 전무한 실정.
-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교육지원청 등의 협조를 이끌어내려 노력하고 있음.

학부모는 ‘농업에 관심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왜 우리 아이가 농업이야’ 하는 식이다. 교육 관계자도 관심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내년에 논의하시죠’라고 얘기하고 만다. -안성면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

○ 지자체의 지원 필요

- 복지관련 단체에서는 관심을 보임. 사회적 농업이 사회적 취약 계층이 지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임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무주군 농정에서 ‘사회적 농업’은 우선 순위가 아님. 또한 지역마다 사회적 농업 소관부서가 다 달라 내용의 차이가 있음. 무주군의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담당자 한 명을 제외하고, 무주군 행정 전반적으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 농가, 복지단체 등 네트워킹 구축

- 프로그램 기획부터 보조금 운영, 의견 조율 등 모든 사안에 대해 네 농가와 끊임 없이 피드백을 함. 나중에는 이러한 피드백이 농가 입장에서는 지나친 간섭으로 오해받기도 함.
- 그러나 초창기에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할 것임. 틀 개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대상자 선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 작업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노하우를 농가에 이식하는 게 중요할 것임.
- 또한 농가, 중간지원조직, 복지단체 이 세 개의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네트워킹이 제대로 구축되어야만 사회적 농업이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음.
- 완주 두레농장이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김장행사를 한 것을 보며, 내년에는 지역 내 자원 봉사단체와 결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애초 취지에서 벗어난 흥미 위주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불가피

- 농촌 단위의 지역 아이들에게 ‘농사’ 체험은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이 아님.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어도 농사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다반사임.
- 아이들에게 즐거워할만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흥미 위주의 체험 프로그램을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음.
- 농가 입장에서는 ‘농업’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려 해도, 복지센터에서는 흥미와 재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주길 바람. 이 두 입장뿐만 아니라, 네 농가의 입장과 복지서비스 5개 기관의 입장과 요구를 연결시키는 것이 무척 어려웠음.

○ ‘사회적 농업’에 대한 마을활동가, 복지관계자 입장차 조율 필요

- 사회적 농업은 주로 마을활동가들이 조직하고, 운영함. 마을활동가는 지역주민, 지역농가, 마을공동체 지향의 인식을 지님. 그러나 사회적 농업은 ‘복지서비스’ 영역의 하나로, 의료, 교육 기관, 지역 전체 네트워크의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마을활동가 영역의 외연을 더 확대해야 함.
- 특히 사회복지사와 마을활동가가 참여대상자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름. 이러한 입장차를 조율해 나가야 함.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케어의 대상, 나와 다른 대상,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본다. 그러나 마을활동가는 그들을 나와 동등한 입장, 때로는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므로, 사회복지사와 마을활동가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갭에서 오는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고, 이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안성면공동체지원센터장-

○ 실무팀 인건비 지급 불가능한데서 오는 어려움

- 센터가 맡고 있는 기존 사업에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이 추가됨. 그러나 시범사업 예산안 안에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팀을 꾸려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임.
-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일이 늘어난 셈이며, 자원봉사 수준에서 본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주민 사회에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참여 독려 필요

-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보조강사 등으로 참여하지는 못함. 그러나 점차적으로 프로그램에 주민을 결합시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마을공동체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올해에는 별도의 주민교류회를 개최함. 화분, 그림, 사진 등을 결과물로 만들어 마을 주민에게 보고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설천면 호룡불 마을에서는 마을 아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송편 빚기 등의 행사를 함.

○ 농민단체, 지역주민단체 조직 1단계 네트워크의 안정적 구축 이후에 시도

- 사회적농업 전국시행기관과의 ‘사회적농업시범사업협의회’ 네트워크는 큰 도움이 됨. 행정, 농림부 관계자의 피드백을 공유할 수 있음. 타 지역의 사례 등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됨.
-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는 농가, 교육, 의료, 복지 등과의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음.
- 1단계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이후에야 농민단체나 지역주민조직, 시민단체의 연계를 시도해야 함. 무리하게 네트워크를 확장할 때 위험요소도 따를 것임.

7] 영광 여민동락영농조합

1.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링 근거 자료

- 현장방문
- 자문 및 상담
- 사업체의 각종 문서(활동 일지, 사업계획서, 사업평가서 등)

○ 모니터링 내용

- 사업의도
- 사업 추진기관 및 대표에 관한 정보
- 사업내용 및 추진상황
- 사업운영 방식(행정차원)과 평가
- 지역협력기관과 협력 내용
- 사업제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 추진기관의 강점과 약점
- 향후 사업에 대한 계획과 고려할 사항

2.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개요

- 시범사업 추진기관 개요 -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이하 여민동락영농조합)
 - 전남 영광군 묘량면 동삼로1길 95-36에 위치한 ‘여민동락영농조합’은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했던 세 부부가 도시에서 영광군 묘량면으로 귀농하여 마을살이를 하면서 농촌마을에서 맞닥뜨린 문제들(어르신, 교육, 생활의 어려움)을 지역주민과 더불어 해결해나가면서 더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조성한 ‘여민동락공동체’에 속한 여러 조직/단체 중 하나
 - 여민동락공동체에서는 저소득 고령노인의 소득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더불어 삶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저소득 고령노인 30여 명을 고용하여 모싧잎, 콩류 등을 재배·판매하는 동시에 수확한 모싧잎과 콩류를 전량 공급받아 저소득 고령노인 6명이 모싧잎송편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진행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추진 배경
 - 기존 사업 참여 노인들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생산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됨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
 - 또한 스스로 작은 농사라도 짓고 있는 고령노인의 경우는 자체 이동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공동화되어가는 마을에는 대중교통도 여의치 않아서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러 가기까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외부지원이 필요
 - 묘량면 어르신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청장년층이 필요한데, 현재 농촌에서 그런 특성의 부류는 대체로 귀농귀촌인이어서 이들을 사회적 농업을 실천할 주요 주체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목표
 - 사회복지사 3명, 농민 3명, 사무행정요원 1명을 포함한 총 투입인원 7명이 영농조합법인을 조직하여 고령노인에게 적합한 신규작물 기술교육과 실습반을 운영하고 여타 농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을 시작
 - 여민동락의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여민동락영농조합 사회적 농업 사업 목표

1. 신규 작물재배에 대한 적응과 자체 생산역량 확보
2. 농업활동의 지속성과 소득보장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 유지
3.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을 위한 운영주체 발굴과 양성
4. 농업, 농촌의 공익성 이해와 연대의식 함양
5. 사회적 농업 연계프로그램 운영 및 귀농귀촌인 지역융화를 돕는 지역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구성

- 사회적 농업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민동락은 4개의 사업을 추진
- 각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여민동락영농조합 사회적 농업 사업

1. 고령노인에게 적합한 신규작물 기술교육과 실습 지원
 - 작물: 야생화 2~3종
 - 대상자: 더불어살사회적협동조합 노인일자리에 참여 신청한 고령노인과 지역 귀촌인 약 40명
 - 교육/실습 기간: 3월 ~ 12월
 - 교육기관: 야생화영농조합법인
2. 고령노인 다품종 소량 생산 농산물 이동과 판매 지원
 - 대상자: 지역내 고령노인(공개모집) 약 10명
 - 모집후 작물의 종류와 적절 수확양, 수확시기, 판매방법 등 협의
 - 지원내용: 수확지원, 포장과 이동지원, 직거래 판매지원
 - 지원제공: 귀촌인, 법인 활동가,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
3. 귀농귀촌인에 대한 고령노인과의 연계농업교육과 실습 실시
 - 대상자: 귀농귀촌인 약 3명
 - 교육기간: 3월 ~ 12월, 매월 1회 이상
 - 이론교육: 농업과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제반 내용(예: 사회적 농업, 농가공, 유기농업, 국가 푸드플랜, 로컬푸드, 농업 미래와 농정 방향 등)
 - 실습교육: 모싯잎/콩류/야생화 등 작물 재배와 보조, 고령 노인 일자리 지원(이동, 농사보조, 운반, 관리)
4. 초중고학생, 일반인 대상 농산물 생산과정 체험과 농업, 농촌 이해교육
 - 대상자: 지역내 학교 초중고학생, 여민동락 방문 도시민 개인/단체 약 30명
 - 교육내용: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 특징: 학교와 교육과정 연계, 지역 생산조직 체험 교육, 연대활동 추진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의 기대효과

-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여서 기대하는 효과는 사업 참여자 개인과 지역사회로 파급되며, 본 사업을 구상할 당시 사업주체인 여민동락영농조합에 제시했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음.

<p>여민동락영농조합 사회적 농업 사업 기대효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품성있는 작물 수확과 매출 증대로 참여 고령노인 가계소득 기여 2. 농업활동을 통한 소득보장과 신체활동으로 삶의 질 개선 3. 사회적 농업의 지지조직 강화와 개인과 실천조직 발굴 4. 귀농귀촌인 지역융화, 마을 활성화 기대 5. 내부인력 역량강화 및 지역 전문 활동가(체험지도, 마을해설, 프로그램 운영자) 육성

3.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진행 내용

1) 고령노인에게 적합한 신규작물 기술교육과 실습 지원

○ 개요

- 고령노인에게 적합한 신규작물은 노인의 특성에 맞게 기후와 계절(강한 햇빛, 찬 바람, 비나 눈 등)에 영향을 가급적 덜 받으면서 (고강도)노동집약적이지 않은 작물이어야 한다고 판단됨.
- 그 결과 야생화를 신규작물로 정하고 묘량면 동삼로 1길 95-36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2동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 비닐하우스 땅은 임대하였고, 바로 수 미터 떨어진 인근에는 영농조합이 구매한 대지가 있어서 향후 그곳에 건조나 포장 관련 작업장 및 사업에 필요한 부대시설, 그리고 사회적 농업 사무실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함.

○ 작업환경

- 비닐하우스 바로 옆에는 대표와 실무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귀농·귀촌인이 조성한 한옥마을이 입지하고 있음.
- 마을의 원도로(여민동락공동체 사무실)에서 자동차로 약 5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참여 어르신들을 차량(스타렉스와 카니발) 2대로 이동시켜야 함.
- 현재는 부대시설이 전혀 없어서 참여 어르신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면 작업이 진

행되고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쉬어야하고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해결되지 못함.

○ **작업성과**

- 참여 어르신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사업소득으로 30만 원 정도 예상
- 참여를 통한 심리적 만족감

2) 고령노인 다품종 소량 생산 농산물 이동과 판매 지원

3) 귀농귀촌인에 대한 고령노인과의 연계농업교육과 실습 실시

4) 초중고학생, 일반인 대상 농산물 생산과정 체험과 농업·농촌 이해교육

4. 사회적 농업 지역 협력

○ **사회적 농업 사업별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 현황**

- 여민동락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의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협력한 지역 내 기관들과 각 기관들의 활동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p>여민동락 사회적 농업 사업을 위한 지역 협력기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화영농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내용: 야생화 재배와 관리교육, 실습 2. 여민동락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내용: 지역사회 개인/단체/도시민 네트워킹 3. 동락점쟁 사회적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내용: 농산물 홍보, 판매 지원 4. 묘량면 쌀생산자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내용: 지역내 학교, 도시민 농사 체험교육 5. 깨움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준)

- 협력내용: 체험지도사, 마을해설사, 프로그램 운영자 육성

6. 농업기술센터

- 협력내용: 농산물가공, 귀농귀촌 일반교육 연계교육

○ 지역 네트워크의 성과 및 개선과제

- 농촌에서는 지역자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민동락영농조합은 여민동락공동체가 조성한 여타 조직들(여민동락공동체, 동락점빵, 깨움마을학교)을 협력 네트워크 안에 포함함으로써 수행하고자 하는 사회적 농업 사업들과 관련한 지역 네트워킹이 순조롭게 조성됨.
- 그러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건강을 살필 보건지소,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면에 관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소득을 비롯한 복지적 차원에 관여할 면사무소 사회복지과와의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것에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체험교육의 경우 군 혹은 면의 관광문화관련 부서, 마을해설사협회 같은 조직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영역을 네트워크 협력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이은경 여민동락영농조합 대표는 사업주체인 조합 안에 “사회복지사가 2명이나 있어서 다행이다.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사회복지개입이 필수적인 사회적 농업이지만 읍에 있는 복지관 지원이 묘량면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합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1차 모니터링)고 응답함.

5.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운영/행정

1) 예산

○ 예산 배정 상의 문제점

- 본 사업은 예산 6천만 원으로 사업을 계획하였고 실제 지급된 예산액도 6천만 원이었으나, 예산이 실제로 지급된 시점이 늦어져 사업 진행이 지연됨.
- 계획과 달리 짧은 기간 동안 6천만 원을 소진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고, 급하게 예산을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역에서 “여민동락이 돈을 뿌리고 다닌다”는 말을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사업을 진행
- 실제로 문제가 되는 점은 야생화를 심는 시기를 놓친 것에 있으며,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6, 7월은 모두가 바쁜 시간이므로 사업이 계획대로 봄에 조성되어 1년 절기에 맞게 농사(실제 농사이건 체험이건)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못함.

이은경 대표에 따르면,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알리는 차원에서 실제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마을 주민과 관계자(네트워크 참여단체 등)를 대상으로 포럼 같은 것을 개최하려고 했다. 그러나 예산이 오지 않은 채 6월이 되었고, 7월에 예산을 받아서 포럼이나 네트워크 회의를 한다면, 참여할 사람도 얼마 없을 것이다”(1차 모니터링)라고 염려한 바 있다.

○ 예산 중복 사용 관련 애로사항

- 정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사업들은 중복 지원을 고려함. 이 사업은 농림축산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사회적 농업의 성격상 사회복지영역의 특성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으니 보건복지부의 관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그런데 중복 지원까지 고려해야 하니 사업의 운영에 어려움이 따름.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를 이 사업에 포함해도 되는가? 또한 이 사업이 사회복지영역의 일자리사업과는 어떻게 다른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
- 요양서비스수급자 중에서 5급 정도로 거동이 가능한 경우 며칠이라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에 의한 수급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어떤 사람은 정부의 수혜를 받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도 크기 때문에 사업 참여자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지역에 뿌린 내린 기관이 겪어야 할 어려움이 존재함.
- 국기법 수급자들은 사업에서의 수익이 소득으로 잡혀서 사업에 참여하면 오히려 수급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임.
- 이 사업이 소득보장 뿐 아니라 동네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활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국기법과 본 사업의 충돌 지점은 정부 차원의 해결이 필요함.

○ 인프라 구축 관련 애로사항

- 이미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본 시범사업 참여조직의 경우(예를 들어 행복농장)는 실제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여민동락영농조합의 경우는 이제 야생화 농업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예산에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밭 조성을 위한 흙

구매비용 등 실제 농업에 소요되는 비용상의 문제가 발생함.

○ 인건비 관련 애로사항

- 현재 시범사업 규정에 따르면, 사업 예산에서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음.
- 여민동락영농조합의 경우는 여민동락공동체의 직원이 참여하여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으나, 이은경 대표는, 사회적 농업에서 사회복지사가 필수 요원이라면, 사회복지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2) 평가

○ 평가방법에 대한 안내 미비

- 거의 모든 실무자들은 사업 후 평가를 고려하면서 사업을 진행
- 특히 본 사업처럼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결과가 향후에 미칠 영향(차년도 사업 가능성, 차년도 예산 조정 정도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 전부터 ‘평가항목에 맞춘’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임.
-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려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지만 사업 초기에 평가지표(필요하다면)를 포함한 평가방법에 대한 주무 기관의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6. 강점과 약점

1) 강점

- 여민동락공동체를 통해서 사업수행기관과 실무자들이 지역에 잘 알려져 있어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용이함.
- 여민동락공동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해 왔고, 여민동락공동체 사회복지사가 여민동락영농조합의 실무자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농업의 융합이 순조로움.
- 외부 예산지원에 의한 사업들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서 회계를 비롯한 행정절차에 익숙함.
- 모싯잎송편사업을 야생화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 외의 사업들은 기존의 여민동락공동체 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것이어서 사업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짐.

2) 약점

- 기존의 사업을 사회적 농업이라는 새로운 틀로 편입하는데 혼란스러움이 있음.
- 야생화농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는데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
- 여민동락공동체와 여민동락영농조합의 실무자가 중복됨에 따라 실무자의 업무 가중으로 본 사업에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음.

7. 내년 계획 및 향후 고려사항

- 야생화농장의 재배 정상화
- 야생화농장을 중심으로 한 판매, 체험교육 등 사업의 집중화
- 농장의 편의시설 보강
- 본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보강
- 사회복지와 관광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확장

Ⅷ 해남 야호영농조합

1. 사업 개요

- 시범사업 추진기관 개요 - ‘야호해남영농조합법인’(이하 야호농장)
 - 전남 해남군 현산면 만인길 110-1에 위치한 ‘야호해남영농조합법인’(이하 야호농장)은 2011년 3월에 설립
 - 야호농장의 대표이자 본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는 전병오는 본 사업에서 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수연과 부부사이로, 두 사람은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2002년부터 농촌으로 이주하여 대안적 삶을 추구하였고 2011년부터는 현재의 해남 미세마을에 자리잡고 쌀농사를 지으면서 다양한 문화/교육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추진 배경
 - 본 사업은 ‘해남에다녀왔습니다’의 전통장 명인인 이영희 선생님의 권유로 야호해남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
 - 전병오 대표는, 전반적으로 사회에는 “자기만의 어떤 역할을 하고 싶는데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자기 자리를 잡는데 멘토와 장(場)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1차 모니터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 사업이 평소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사업 참여를 계획하였으며, 현재 법인이 위치한 마을에서 그런 사람을 귀농·귀촌인과 다문화이주여성이라고 판단함.

- 이 사람들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적는데, 농업을 하지 않는 대신에 동화책 일러스트 작가나 미용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다수는 자기 길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서 본 사업과 같은 과정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목표

- ‘해남에다녀왔습니다’ 전통장 명인 1명, ‘야호문화나눔센터’ 문화·교육 강사 5명, 야호농장 해남꾸러미 생산자 10명이 시범사업에 실무인력으로 참여
- 야호농장의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p>야호농장 사회적 농업 사업 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절기별 농사, 가공 체험, 시범 판매를 통해 소비자 선호도 분석 2. 다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역량 강화 3. 다문화 농촌 관광 공간 모의 조성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구성

- 야호농장의 대표는 농촌 사회에서 배제된 집단은 귀농·귀촌인과 다문화이주여성으로 규정하였지만, 야호농장의 사회적 농업은 전적으로 다문화여성에 맞추어져 있음.
- 야호농장에서 진행한 사업은 모두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크게 농업 영역(주로 가공과 판매)과 문화 영역으로 구분
- 농업 영역은 제철 농산물로 신선한 꾸러미를 구성하고, 콩 수확물로 된장 가공, 배추 수확물로 김치 가공을 체험하며, 직거래 친환경 장터를 시범 운영하여 판매하는 활동으로 구성
- 문화 영역은 다양한 문화가 표현되는 그림책, 공예, 놀이 등을 융합하여 다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파견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로 구성, 나아가 농업과 문화를 융합하여서 일곱빛깔 부뚜막(농산물을 다문화 요리로 만들어 파는 식당) 운영, 갤러리 전시 등 다문화와 한국문화가 만나 제3의 특별한 문화(일종의 퓨전문화)를 창조하여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의 다문화 관광 공간 설계를 포함
-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야호농장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

야호농장 사회적 농업 사업

1. 절기별 농사체험 및 가공체험, 꾸러미 판매

- 대상: 다문화여성 20~30명
- 기간: 4월 ~ 12월
- 특징: 식사제공

2. 다문화 융합 문화예술교육 강사 육성

- 대상: 다문화여성 20~30명
- 내용: 그림책, 놀이, 공예, 요리
- 기간: 4월 ~ 12월
- 특징: 식사제공

3. 일곱빛깔 부뚜막

- 대상: 다문화여성 20~30명
- 내용: 해남꾸러미 회원 및 군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음식과 한식이 접목된 식당 시범운영
- 기간: 7월 ~ 8월
- 특징: 식사제공

4. 문화체험 선진지 견학

- 대상: 다문화여성 20~30명
- 기간: 9월
- 특징: 식사/숙박 제공

5. 일곱빛깔 농가 체험

- 대상: 다문화여성 20~30명
- 내용: 다문화여성 가정에 지역아동센터 아동 초청
- 기간: 9월 ~ 10월
- 특징: 식사 제공

6. 다문화 장터 잔치 및 세미나

- 대상: 다문화여성 20~30명
- 내용: 해남 지역민이 참여한 장터와 세미나 개최
- 기간: 11월
- 특징: 식사 제공

7. 가족 잔치 및 다문화 갤러리

- 대상: 다문화여성 20~30명
- 내용: 공예품, 그림책 등 전시
- 기간: 12월
- 특징: 식사 제공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의 기대효과

<p>야호농장 사회적 농업 사업 기대효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문화여성이 농촌의 산업화를 경험하고 익혀서 수익 창출 유도 2. 양국의 문화 알기를 통해 문화 충돌로 인한 가정 및 지역 내 위험 요소 감소 3.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 강사 파견으로 다문화 자녀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각 개선 4. 한국 전통과 다문화적 자원이 서로 융합하면서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 뿐 아니라 문화적 자긍심 고양 5. 독특한 다문화 농촌 공간 조성으로 관광 자원화
--

2. 지역협력

○ 야호농장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협력한 지역 내 기관들과 각 기관들의 활동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p>야호농장 사회적 농업 사업을 위한 지역 협력기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남에다녀왔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내용: 농사 프로그램 진행, 가공상품 개발 2. 해남꾸러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내용: 농산물/문화상품 직거래 체험 3. 가족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내용: 가족소통 프로그램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내용: 다문화가족 여성 선정 및 지원 5. 해남공공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내용: 교육 현장활동 지원 6. 야호문화나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내용: 다문화여성 교육 현장활동 지원 및 다문화여성 프로그램 개발
--

○ 네트워크 성과 및 개선과제

- 야호농장은 2011년부터 해남에 정착해서 농사와 문화·교육 활동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협력했던 지역 기관을 활용해서 진행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순조롭게 확보함.

- 또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가족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협력 기관이 포함됨.
- 그러나 이 기관들의 협력 내용이 전체 사업에서 최소화되어서 실질적인 사업 목표 달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3. 운영/행정

1) 예산

○ 예산 상의 애로사항

- 본 사업의 예산은 일곱빛깔 부뚜막 사업을 진행할 식당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 여민동락영농조합이 야생화농장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것과 같이 야호농장에서도 식당 인프라 구축 비용없이 그 사업을 수행하기는 곤란함.
-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자본이 충분하든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물자를 지자체를 포함해서 정부의 지원이 제공되든지 하는 제반 조건 형성이 요구됨.

전병오: 식당을 개업할 공간이 없고 가게임차료도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그래서 일단 장터나 북카페 같은 곳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음식을 판매하는 것으로 할 생각이다.

자문: 장터나 북카페에서 시작하고, 꾸러미에서도 판매를 해서 어느 정도의 씨드머니를 마련한 후 사회적 기업든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식당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평가

정연수: 공공행정기관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과보다는 실제로 지역의 일로 사람들이 행복해졌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는지가 중요하다.

자문: 숫자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참여자들의 생각이나 삶이 변화되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참여자들이 처음 사업에 참여했을 때부터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경험, 변화들을 일지를 통해 기록해 두어야 한다. 마지막 성과결과보고서보다는 바로 그런 기록을 통한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강점과 약점

1) 강점

- 농촌의 배제집단을 지역사회 안으로 포용하려고 하려고 하는 사회적 농업의 기본 가치에 부합되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
- 10년 넘게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경험과 인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역량을 보유함.
- 농촌 사회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보는 문화·예술·교육 능력을 사업 주체가 확보함.

2) 약점

- 과거 문화와 예술에 집중되어 있어서 체계성과 행정력이 다소 약함. 이를테면, 수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 사이에 연결성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집중도가 떨어짐.
- 사회적 농업의 특성인 농업과 사회복지(‘사회적’)의 융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농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식은 출중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데 필요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사업이 모호해 질 우려가 있음.
- 대표가 대안적인 삶을 지향하고 기존에도 비공식적인(비제도권적) 사업에 관여한 바 공공과의 협력관계에 미숙함.

5. 내년 계획 및 향후 고려사항

- 집중(집약)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기타 사업들을 재조정
- 사업 참여자(다문화여성)에 대한 개별 접근(일종의 사례관리) 강화
- 일곱빛깔 부뚜막을 정상적으로 개업할 수 있는 기초(인프라) 확보에 대한 장기 기획과 그에 따른 단기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구조에서 사업 참여자의 인건비 확보를 위한 전략을 구상

㉑ 청송 해뜨는농장

1. 사업개요

1) 농장 현황 및 사업

○ 농장 현황

- 업체명: 청송 해뜨는농장(농업회사법인(주))
- 소재지: 경북 청송군 현동면 안현로 1011
- 조직형태: 농업법인
- 사업프로그램 유형: 교육, 고용 복합형
- 청소년을 위한 농업진로체험, 마을여행, 청년 농업 창업커뮤니티 공유센터 운영 등
- 외부기관 연계
 - 헬로파머: 2030세대를 위한 농촌생활 온라인 매거진 ‘헬로파머’발행, 활동취재 및 확산, 아카이브 운영
 - 팜타스틱: 농업기획활동 전반 멘토링
 -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판로개척, 창업멘토링, 하나로마트 입점, 펀딩 컨설팅
 - 경북대학교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농업실습 및 영농창업 컨설팅
- 시설현황

시설명	시설규모	비고
농장	2,000평	
교육장	20평	
체험장	10평	
숙박시설	30평	2018 건축예정
식당시설	10평	

○ 기존 추진 사업 현황

- 농업을 전공하고 귀농한 부부가 운영하는 해 뜨는 농장은 2016년부터 경북대학교와 연계하여 청년들에게 단기아르바이트를 제공하고, 농업 관련 창업 멘토링을 운영
- 평균 3~7명의 청년들이 1박 2일, 월 4회 사과농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배우고 실습
- 2017년 11월에는 경상북도와 (사)경북세계농업포럼이 주최하는 청년 포럼을 주최
- 청년 창농의 실질적 문제점과 현실적 지원 방안들에 대해 청년과 함께 고민
- 귀농하여 정착하기까지 어려운 점들을 청년의 입장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 사과상자(사과, 지역, 청년 플랫폼)라는 공유공간을 운영하여 청소년 때부터 농업 관련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소개를 비롯한 진로체험의 장을 제공
- 청년 귀농 공유센터로서의 역할을 통해 사회적 농업의 실현과 확산을 도모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참여 동기 및 과정

- 농촌 정착 원하는 청년을 위해 ‘사회적 농업’ 신청함.
- 경북 FTA위원회 청년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출 TF팀에 참여하면서 귀농청년정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함.
- 해뜨는 농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농대 출신의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 무엇인지 고민함.
- 농업 기반 없이 농촌에 들어오려는 청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옴.
- 아르바이트로 참여해 오던 대학생들, 농촌 정착 피력
- 2015년부터 아르바이트로 참여한 ○○가 농촌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함. 경북대 농업동아리 회장 △△ 2명이 농촌 정착을 피력
- 그러나 당시 해뜨는 농장은 대학생에게 단기아르바이트만 제공하였을 뿐, 농촌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은 없었으며, 청년 정착 돕기 위해 사회적 농업 신청

2) 사업 추진 계획

○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운영계획

년차	사업목표	사업내용
1년차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소외계층(청소년, 청년)을 위한 농산업 분야 창업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 청년이 시골에 모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지원과 농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농촌융복합산업 등 전문성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농업체험교실 운영 • 청년커뮤니티 탐방: 도시재생, 농업, 혁신로드, 공유공간 등 •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101가지(직접 농사에서부터 농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 마을 협의체 조직을 위한 교육 • 지역축제 기획단 활동 및 직거래 장터 운영
2년차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오디션을 거쳐 영농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협업공간을 제공하여 농업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운영 • 플랫폼을 중심으로 농정경영, 문화예술작가, 농촌융복합산업에 이르기까지 기획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활동공간 및 주거공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농업체험교실 운영 • 귀농오디션을 통한 청년인턴제 운영 • 운영된 마을협의체를 통한 마을 소식지 발간 및 공동브랜드 운영 • 청년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청년 농업공유센터 운영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명	내용	대상	인원	기간
농업을 job아라	• 진로체험, 자유학기 프로그램, 농업 활동의 직업 체험 기회 제공 - 반일, 종일, 1박2일 형태로 운영 - 농촌에서 하루 살기	청소년 청년	20명 5명	5~12월
농촌융복합산업의 이해	•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이해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워크샵 운영	청년 지역주민	40	6월
혁신로드 탐방	• 도시농업, 청년활동 활성화를 이룬 혁신로드를 탐방하고, 청송관내 청년이 모이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구상	청년 지역주민	30	7월
사회적 농업(청년) 선진지 탐방	• 사회적 농업 관련 마을 탐방을 통해 지역 연대	청년 지역주민	10	8월
로컬푸드, 판로개척을 위한 선진지 탐방	• 농부장터, 직거래장터 등 로컬푸드 매장 운영에 관한 노하우, 소비자 및 생산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터득	청년 지역주민	15	9월
푸드박람회 참가	• 각종 가공품, 디저트류의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농산물 납품 및 디저트 생산 아이디어 확산	청년 지역주민	10	8월
사회적 농업 학습 모임	• 지역주민과 청년 간의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학습 모임 운영	청년 지역주민	10	4,7,9,11월
디저트류 등 가공기술 워크샵	• 밥보다 비싼 디저트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메뉴 개발 및 가공 분업화 학습	청년 지역주민	10	6,8월
청년농부 네트워크데이 (팝파티)	• 청년 농업 기획자들이 연 2회 네트워크 모임을 팝파티 형태로 운영	청년 지역주민	100	10월
지역네트워크 구축	• 청년과 지역네트워크가 안정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기회의 및 활동 지원 - 사업발표회, 차기사업계획 수립 등	청년 지역주민	15	12월

○ 지역네트워크 구축 계획

연계 대상	연계 필요성 및 활동 내용	구축 시기
경북 FTA대책위원회 청년인력양성&일자리창출분과	농산물 유통, 농업 관련 이슈, 청년창업분과 지원	5월
경북대학교 영농특성화사업단	청년농업인포럼 운영, 실습활동지원	5월
청송군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 청소년진로체험 운영	5월
현동면보육센터	소외계층 체험학습 제공, 문화체험	6월
청소년문화센터	취미, 여가 활동, 청소년수련활동 협업	6월
청송군보건소	지역주민의 건강 관련 캠페인	6월
경북정보화농업인연합회	농업인 멘토, 정보 공유	7월
청송농촌관광연구회	관광 연계 체험활동 개발, 지역명소 탐방	7월
협동조합 농부장터	판로 개척, 지역농산물 입점	8월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농업 교육, 나의 살던 고향장터 출정,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8월
우체국홈쇼핑	홈쇼핑 입점, 판매 컨설팅	9월
대구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경제의 이해, 마을조직 관련 멘토링	10월
복성로 허브	도시재생 사례 탐방, 마을운영 사례 공유	10월
팝타스틱	농업 관련 디자인, 브랜딩 멘토링, 기획	10월
에브리바디세컨드플레이어	트렌드에 맞는 디저트 개발, 체험프로그램 운영	10월
헬로파머	2030세대를 위한 농촌생활 온라인 매거진 '헬로파머'발행	연중

2. 2018년 사회적 농업 활동 현황

1) 농장 현황

- 해뜨는농장은 사과 생산보다 유통이 큰 비중을 차지. 우체국 쇼핑 등을 이용하여 사과를 판매한다. 택배비를 포함하여 2만 5천원에 사과를 판매
- 해뜨는농장에서는 3명의 주체가 각각 이득을 얻고 있음
 - 학교(교수): 농업 실습 교육
 - 농장: 노동력
 - 학생: 학습, 아르바이트
-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는 단순 일자리임. 일당으로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학생이다 보니 일손으로서 역량은 부족함. 지급하는 일당에 비해 제공 노동력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농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단순한 청년들이 아님. 일자리와 돈 보다는 농촌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라 할 수 있음. 노동력을 공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쳐주면서 한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음.
- 2013년부터 농장에서는 팜파티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을 넓히고 있음.
 - 팜파티 등 도농교류 활동은 사과 유통 사업을 위한 것임. 도농교류 활동을 통해 회원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사과 판매망을 안정화함.
 - 충성도가 강한 회원은 100여명 정도임.
- 청송 해뜨는농장에서는 몇 개 대학의 8개 영농동아리와 함께 하고 있음.
- 청송 해뜨는농장 대표는 경북도청 등 행정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청년 정책 등 각종 정책위원회 등에도 참여하고 있어, 정책 사업 정보가 많은 편임.
- 청송 해뜨는농장에서는 청년들을 독립적인 경영체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단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경영체가 될 수 있어야 다양한 협력 관계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 지역사회보다도 독립적인 경영체들 간의 협업이 중요함.

- 해뜨는농장은 유통사업으로서 청년들이 독립적인 농장을 설립한 이후에도 판매망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해뜨는농장에서는 어른들의 간섭이 없는 청년공간을 만들고 있음. 컨테이너에 마련한 조그만 공간이지만,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원하는 대로 꾸미고 있음.

2) 해뜨는농장 사회적 농업의 특징

- 사적 네트워크를 계기로 청년 교육 및 학습 공간으로서 사회적 농업 추진
 - 2013년부터 학생들이 농장으로 농업 실습을 오기 시작함. 대학에서 함께 공부했던 선배들이 교수가 되면서 학생들을 농장에 소개
 -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중 2명이 청송에 정착
 - 일당에 비해 청년 노동력의 질은 다소 부족. 하지만 농촌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교육에 중점을 두고 농장을 운영
- 독립적 농업 경영체 육성과 경영체 간 협력 확대를 추구
 -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인 목표는 청년들을 독립적인 경영체로 육성하는 것. 지역사회에서 청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됨.
 - 해뜨는농장에서는 유통사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향후 청년들이 독립하게 되면 유통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양한 정책 정보 제공을 통해 청년들이 부족한 토지와 자본 문제에 대한 지원 추진: 농장 대표가 경북도 내 다양한 정책 위원회 활동에 참여
- 청년들의 학습과 정착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중
 - 청년 괴짜방 사업(경북도청 지원): 청년 주도 목공, 사진, 모임방

3) 추진경과

- 슬기로운 농장 생활
 - 실습용 과수원 사과묘목 잔가지 정리하기, 사과 컨테이너 정리하기, 사과상자 루프탑 바다색깔 오일스테인 칠하기, 농장 담벼락 오일스테인 칠하기 등
 - 제초작업 등(2018.6.30.)
 - 마지막 사과정리(2018.7.1.): 사과즙 용 선별, 택배용 사과 포장 등

- 차광막치기(2018.7.26.): 루프탑 보수공사를 위한 차광막 설치 등
- 방학 프로그램 운영(2018.8.1.~): 청년숙소, 사무실 공간꾸미기, 체험행사 준비, 양봉농장 실습교육 등
- 제과제빵 실습(2018.8.9.): 소세지빵 및 아몬드 품은 토끼 쿠키 만들기 등
- 사과즙 가공 실습(2018.8.12.): 주말동안 '매일사과해' 사과즙 만들기 위해, 사과즙 가공장에 사과 실어주고, 흙과 골라내기 작업
- 사과 선별하고 포장하기(2018.9.1.): 명절 택배 시즌 사과 선별 및 포장
- 청춘상상랩 바닥 데코타일 공사 완료(2018.10.22.): 청년농산업창업박람회 슬로건으로 장식했던 조형물 가져와서 오일스테인 정성껏 새로 칠해서 청춘상상랩에 설치



○ 청년 2명 청송군 전입(2018.6.15.)



○ 사회적농업박람회 참석(2018.7.13.)



○ 청년 숙소 완공(2018.7.20.)



○ 네트워크 회의(2018.8.7.)

- 청송농촌관광연구회 임원들에게 사회적농업 설명
- 해 뜨는 농장 청년들 실습프로그램 계획을 수립
- 앞으로 청송농촌관광연구회 행사에는 학생들이 항상 참여하기로 결정



○ 해뜨는농장 레지던시 가동(2018.8.12.)

- 스토리작가와 사진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앞으로 해뜨는농장 청년들의 사는 모습과 우리 동네 이야기들을 기록하기로 하고 그 기본구상 수립

○ 경북정보화농업인연합회 경진대회 참석(2018.9.30.~31.)

- 지난 30~31일 이틀 동안 경북정보화농업인연합회 경진대회에 같이 참석하여 온라인 마케팅과 상품전시 등 요즘 농업인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체험



○ 2018 경북농식품산업대전 참석(2018.9.6.~7. 대구 엑스코 3층)



○ 네트워크 회의(2018.10.4.)

- 청송농촌관광연구회 임원들과 2018 청송사과축제(2018.11.1.~4.)에 청송해뜨는농장 청년들이 청송농촌관광연구회 부스에서 체험진행을 하기로 협의
- 행사진행 방법과 내용, 재료 등 세부사항을 의논하고 내일 회원들에게 체험실습을 하기로 협의

○ 사회적농업협의체 회의(2018.10.11.)



○ 2018 경북 청년농산업창업박람회 참석(2018.10.19.)

- 청송해뜨는농장과 청춘상상랩이 여러 가지 체험을 운영



○ 경북 우체국쇼핑 직거래 장터 참석(2018.10.26.~27.)

- 우체국쇼핑몰 입점 업체들이 많은 상품을 판매
- 청춘상상랩 청년들이 직접 판매수익을 가져가기로 결정.



○ 와디즈펀딩 오픈(2018.10.30.)

- 청송해뜨는농장 청춘상상랩을 응원하는 와디즈펀딩 오픈

○ 2018 청송사과축제 참석(2018.11.1.~4.)

- 2018 청송사과축제에 11월1일부터 4일까지 체험부스 운영
- 스트링아트, 사과껍질반침 만들기 체험 진행도 하고, 사과핀, 사과머리띠, 사과꽃핀도 만들어 판매



푸드 #청송사과부사세트 프로젝트

청년농업인의 꿈을 키우는 청송 해뜨는농장 빨간사과

스토리
펀딩 안내
댓글
세소식
서포터



청년의 꿈을 키우는 사과농장, 청송 해뜨는농장의 사회적농업 프로젝트! 젊은 농업인들의 꿈이 빨갱게 영글어가는 청송 해뜨는농장 사과상자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펀딩성공

146 % 달성

2,931,000 원 펀딩

45 명의 서포터

#청송사과부사세트 프로젝트는 소중한 서포터들의 펀딩과 응원으로 2018.11.25에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애플 펀딩 요청하기

♡ 16
□ 문의
공유하기

● 펀딩하기는 소절하기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2018 코엑스 푸드위크 참석(2018.11.28.~12.1)

- A홀 249 청송해뜨는농장 부스에선 사회적농업 홍보도 하고 청년들이 수확한 맛있는 사과 판매
- 청춘상상랩 청년대표들은 이번 행사에 참가하면서 3층 명굴시장 셀러들의 심플하면서도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디스플레이, 복장, 상품의 품격을 높여주는 포장 등을 학습



3.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활동 성과 및 과제

1) 사업 성과

○ 농촌 청년 창업의 모델 제시함

- 농업 전공한 청년들의 실습 공간으로 활용
 - 해뜨는농장은 원예농을 전공한 청년들의 실습 공간으로 자주 활용되면서, 취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음.
- 대표는 농산업창업지원센터 강연, 청년 멘토링 등으로 활동
 - 원예학과를 졸업하고 영농 및 직거래 유통 창업에 성공한 대표 부부의 사례는 예비 청년 귀농 창업자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음.
 - 대표는 도내 대학에 설치된 ‘농산업창업지원센터’에 강연을 많이 다니며, 해뜨는 농장 창업 사례를 교육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과정에서 결성된 협동조합이 또 다른 창업교육의 자원으로 활용
 - 사회적 농업 시범 사업 과정에서 탄생한 청년들의 협동조합 ‘청춘상상랩’을 예비 귀농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모델로 제시하기도 함.

○ 청년 공유공간 ‘사과상자’는 지역 청년의 네트워크 거점 공간이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청년 공유공간 ‘사과상자’ 조성
 - 농촌에는 어린이집, 노인정은 있으나, 청년을 위한 공간은 부족. 청년들이 대부분 읍내 카페에서 시간을 보냄. 청년들만을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
 - 대표는 자비를 들여 지역 청년의 공유공간인 ‘사과상자’를 조성
 - 현재 사과상자는 청년들의 놀이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

○ 청년의 자기계발 위한 기회 제공

- 코엑스 행사 기간 서울 청년창업공간, 마을재생공간 방문
 - 행사 마지막 날 서울 혁신 거리에 위치한 청년창업공간 방문하여 청년창업에 대한 컨설팅 받음
 - 서울시 성수동 마을재생 거리 방문

- 사회적 농업에 자기 계발 프로그램 매우 중요
 - 현재까지 청년들은 주말에만 오기 때문에 생활상에서 나타나는 간극이나 갈등이 크지는 않음. 다만 전날 과음 후 제대로 일하지 않고 그늘에서 쉬는 청년들이 간혹 있음.
 - 사회적 농업 주체인 실행 농가와 사회적 농업 참여 대상자가 궁합이 맞는 것도 매우 중요함.
 - 특히 청년 타겟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업에 있어, 농업 노동을 수행하는 것 못지않게,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공간, 시간을 제공해야 함. 일주일에 2~3일은 시내 나가서 다른 것을 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윤 대표는 농업회사법인 등에 정책을 제안할 때에도,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별도의 교육 시간을 내어 줄 것을 강조한다고 함.
- 다양한 청년활동과 수상을 통해 농촌 정착 예비청년들의 자립 능력과 자존감 강화됨
 - 청년들끼리 협동조합 ‘청춘상상랩’ 결성
 - 해뜨는농장의 청년들이 협동조합 ‘청춘상상랩’을 결성
 - 목공 기술을 통해 지역 어르신 집의 가구 수리해주면서 지역 사회에 기여. 비즈니스 모델로는 동네 어르신 사진 찍어주기, 농가 상품 사진을 찍어 온라인 홍보 해주기 등. 주요 테마는 목공(체험상품). 생활용품 DIY 상품사진, 프로필사진, 지역주민 인물 사진 찍어주기
 - 대표 부부는 농촌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이 일반 회사를 만들기는 어려우므로 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회사를 만들어 농촌 정착을 위한 훈련을 쌓을 것을 권유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동체회사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장려상으로 입선
 - 이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자존감, 자신감이 향상됨.
-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설정한 본 사업에 대해 행정과 지역내에서 초기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업이 지속되면서 청년유입 등의 측면에서 지역 내 관심이 높아짐.
 - 특히 농장을 운영하는 대표 부부는 농업 기반 전혀 없이 농업을 시작하려는 청년은 곧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함.
 - 2001년 농업 기반 없이 귀농한 대표 부부는 청송으로 귀농할 당시에는 농업 기반이 전혀 없었다고 함. 땅을 임대해 사과농사를 지으면서, 무연고 귀농, 농업 무기반 귀농자의 농촌 정착이 얼마나 힘든지를 뼈저리게 경험하였으며, 이 때문에 농업 기반이 전혀 없는 청년 귀농자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음.

- 사회적 농업 시범 사업 통해 ‘해뜨는농장’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지역내외에서 크게 확산됨.
 - 해뜨는농장의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인정받아 뿌듯
 - 연암대학교의 강의에서 해뜨는 농장 사례가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는 내용 듣고 뿌듯. 그동안 해뜨는 농장이 청년 대상으로 해 오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셈
 - 언론, 방송 등 크고 작은 보도로 해뜨는 농장 인지도 크게 확산
 - 경북도내에서 사회적 농업 시범 사업에 선정된 곳은 ‘해뜨는농장’이 유일. 이로 인해 언론에 크고 작은 주목을 받음.
 - 해뜨는농장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은 각종 신문, 방송 등에 수없이 보도되면서 해뜨는농장의 인지도가 크게 확산됨.

- 사회적 농업 실천을 위한 지역단위 네트워크가 활성화
 - ‘청송군 농업기술센터’ 내 ‘청송농촌관광연구회’, ‘경북정보화농업인연합회’ 활동에 청년들 합류하여 함께 활동
 - 청송농촌관광연구회 사무국장, 감사 등 역임. 해뜨는 농장 청년들을 연구회에 합류시켜 함께 활동
 - 회원들과 칠판 만드는 체험을 하고, 청년들 일손이 필요하면 제공하고, 역으로 청년들을 가르쳐 줄 회원을 연결시켜 주기도 함.
 - 청송군 농촌관광체험 행사에 청년들이 부스 운영하며 행사를 도움
 -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의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센터 내 여러 단체와 연계하여 활동
 - ‘팜타스틱’, ‘에브리바디세컨드플로워’ 연계하여 상품 기획, 디자인 협업
 - 팜타스틱과 세컨드플로워와의 협업으로 사과 관련 소품 등을 제작
 - 팟캐스트 ‘헬로파머’는 도시와 농촌의 청년을 이어주는 프로그램. 팟캐스트에 해뜨는농장 청년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해뜨는농장에 와서 녹음을 하기도 하며, ‘해뜨는농장’, ‘사회적 농업’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
 - 향후, 경북 도내 다양한 대학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각 대학의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

- 목공, 사진 등의 기술을 통해 지역 주민과 자연스럽게 교감하고, 사회적 농업 활동에 지역 주민 참여

- 이곳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모두 목공 기술을 배우고 익힘. 컨테이너 숙소를 꾸미고, 내부 장식을 위해 목공 기술이 필요했음. 테이블, 책꽂이 등 모든 나무 가구는 청년들이 만듦.
- 목공 도구가 비치되어 있어, 동네 아이들과 함께 목공 체험 진행하기도 하고,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청소년체험농장에서 목공 상품 판매하기도 함.
- 동네 어르신 집에 가서 가구, 식탁, 계단 난간 등을 수리해주거나, 의자를 만들어 주는 등 재능 기부 봉사를 해 주면서 마을 주민 사회에 편입

2) 성과 창출 요인

- 영농기술 교육보다는 농촌교육(창업, 생활)에 중점
 - 대표는 농장 청년들과 하루를 보내며 평균 4시간 정도를 대화하며 요구사항을 파악함. 이를 통해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영농기술보다는 청년이 원하는 농촌다운 삶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
 - 이와 함께 해뜨는농장은 일반 사과농장에 비해 규모가 작아 유통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농장에서는 하지 않는 농촌의 매력이 포함된 택배포장, 디자인, 온라인홍보의 중요성을 깨달음
 - 따라서 기존 농업교육기관의 영농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을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농촌교육에 중점을 둬.
- 지역주민과의 자연스럽게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지역 사회는 아직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 청년이라 하더라도 마을 주민은 경쟁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려운 작업(사과 수확, 박스 이동 등)을 도와주는 작업에 참여하도록 프로그램 운영하여 주민들과 청년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함.
 - 이와 함께 목공, 사진 기술 등을 활용해 동네 어르신 집에 가서 가구, 식탁, 계단 난간 등을 수리해주거나, 의자를 만들어주는 등 재능 기부 봉사 활동을 하면서 마을 주민 사회에 편입
- 지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
 - 농장 대표는 ‘청송농촌관광연구회’, ‘경북정보화농업인연합회’ 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 청송군과 경북도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함.

- 이와 함께 디자인, 상품 기획에서도 지역의 경험이 많은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업함.
- 도시와 농촌의 청년을 이어주는 팟캐스트인 ‘헬로파머’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팟캐스트에 해뜨는농장 청년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해뜨는농장에 와서 녹음을 하기도 하며, ‘해뜨는농장’, ‘사회적 농업’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 함.

3) 개선 과제

-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이 시범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성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큰 도움이 안되어 농가의 경제다각화 측면에서는 미흡함
 - 인프라 정비 부분에서 자부담에 따른 비용 지출 발생
 - 비록 숙소 컨테이너는 군에서 지원해주었으나, 설치를 위한 바닥 작업, 전기 공사, 배관 공사를 위해 자부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농가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 외부 시선 때문에 강습비를 매번 책정하기 불편하며, 강습비를 다시 청년들에게 환원하는 경우가 많음.
 - 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체가 대표임.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는 매 강습비를 대표가 가져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밖에 책정할 수밖에 없음.
 - 대표는 자신의 인건비를 청년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농업이 실행 농가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인의 봉사과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는 사회적 농업이 정착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함.
- 지역 농가와의 결합 통해 청년 대상의 사회적 농업 실천의 층위를 두텁게 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농업 경험 위해 타농가와의 결합 필요
 - 해뜨는농장에서 취급하는 과수는 ‘사과’이므로, 다른 농작물을 가르쳐주는 데 한계가 큼.
 - 인근 농가와 결합하여 빵 만들기도 하고, 양봉 농장에도 데려가기도 했으나,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농업, 다양한 농촌의 모습을 학습시키는 게 중요
 - 청송군을 청년을 위한 사회적 농업 실천 베이스캠프화
 - 지역 농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청송군이 청년 대상의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베이스캠프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위상을 확립해야 할 것임.

- 지역 농업인의 ‘사회적 농업’에 대한 오해와 인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나 모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대표는 청년들의 협동조합 결성을 돕고, 사회적 경제 박람회 등을 다니며 농업과 복지 영역의 매개 부분을 인식하게 됨. 그러나 일본, 유럽 등의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상황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다고 얘기함.
 -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 9곳 가운데에는 분명 훗날 ‘시설’을 염두에 두고 기대를 한 농가도 있을 것이라고 함.

- 농촌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 대상의 사회적 교육 프로그램은 농업교육 못지 않게 농촌 교육도 중요함.
 - 농업노동의 고되고 힘든 것을 상쇄시켜주는 것은 농촌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임.
 - 정책 담당자는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농촌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고, 마을 주민과 함께 결합하고, 농촌을 이해하는 다양한 교육과 훈련 등의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함을 인정해야 함.

- 청년 정서와 입장에 맞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 청년을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청년을 대하는 어른들의 교육이 중요. 인생의 선배라는 이유로 애들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되며, 청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스킬이 중요. 이러한 스킬을 배우기 위해 어른들 교육이 필요

- 사회적 농업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임.
 - 시범 사업이 해뜨는농장에 탄력을 주고, 청송군의 전폭적 협조와 지원이 큰 힘 되었음
 - 해뜨는농장이 힘이 좀 빠질 무렵,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이 원활유가 되어 줌. 지금까지 수 년 간 해뜨는농장이 청년들과 함께 해오던 일이 사회적 농업이라는 제도적 시스템 속에서 탄력을 받은 것임.
 - 경북에서 유일한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선정 농가이며, 특히 청년 대상의 사업이라 청송군과 경북도의 관심과 지지가 높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음.

- 국내 9곳 농가 중 사회적 농업 시범 사업 농가로 선정된 곳은 경북에서 ‘해뜨는농장’이 유일하여, 청송군의 관심과 지지가 큼.
 - 특히 사회적 농업 실천 대상이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경북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음.
-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예산 집행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e-나라 정산 시스템이나 서류 정리의 까다로운 절차 등이 불편
 - 해뜨는농장만의 유연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때가 있으나, 군의 기존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음.
 - 청년들을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에 관한 경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군의 인식이 저조함.

참고2**사회적 농업 육성법 초안 전문(약칭: 사회적 농업법)⁷****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적 농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농장”이란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농업지원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정책

제4조(사회적 농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업육성정책을 총괄하고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농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⁷ 이 법안의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위탁연구 ‘(가칭) 사회적 농업법 제정 연구(연구책임: 홍성민)’의 결과에 해당한다.

3. 사회적 농업의 인력양성, 재정지원, 교육, 홍보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정보교류, 산업간 연계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연구,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도별 사회적 농업지원계획 수립)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 농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 농업 육성위원회) ①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사회적 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농장 등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농업육성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 농업육성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업, 농촌, 복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업의 확산과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사회적 농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 농업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적 농장(이하 “지정 사회적 농장”이라 한다)은 지정 사회적 농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지정을 받지 아니한 사회적 농장은 지정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지정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 사회적 농장에 대하여 사회적 농업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협력관계 구축비, 취약계층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시설개선비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경영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 사회적 농장에 대하여 농업경영·기술·세무·노무·법률·회계 등에 대한 자문과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설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정 사회적 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국

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판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정 사회적 농장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최 및 참석,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지정 사회적 농장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5조(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정 사회적 농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등) ① 지정 사회적 농장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10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 사회적 농장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지정 사회적 농장의 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7조(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 사회적 농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농장 및 그 운영주체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지정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10조 제3항에 위반하여 지정표시 등을 사용한 자
 2.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6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16조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 및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20XX년 X월 X일부터 시행한다.